

이 연구결과는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위탁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기관 / (주) 에스에이컨설팅

2024.11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 윤지성((주)에스에이컨설팅 대표)

참여연구자 : 박종연((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금현우((주)에스에이컨설팅 연구원)

제 출 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수탁연구과제 『2023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11

(주)에스에이컨설팅

대표 윤 지 성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방향	1
제2절 주요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년 4월 제출)	3
제3절 연구구성	6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7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조직과 정부지원정책	7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8
1. 사회적기업의 분포	8
2. 사회적기업 지원금	12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 분석	30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30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1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38
제2절 사회서비스제공	45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구조	68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79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분석	82
제1절 재정성과: 수입구조 분석	82
1. 매출액	82
2. 영업이익(손실)	100
3. 당기순이익(손실)	109

제2절 지출: 비용구조 분석	123
1. 매출원가	123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130
3. 영업외비용	135
4. 노무비	140
제3절 기타 성과지표	150
1. 노동생산성	150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153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170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174
제1절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174
1. 사회적기업 분포	174
2.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76
3.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78
4.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80
5. 사회적기업 분포 종합진단	182
제2절 사회적 및 경제적성과 비교	184
1.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비교	184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190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91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92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의 비교	193
6. 비용구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194
제3절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195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195
2. 기업규모별 경제적성과 비교	200
 참고문헌	205

표 목차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3
<표 1-2>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6
<표 2-1>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9
<표 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11
<표 2-3>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15
<표 2-4> 지역별 지원금	17
<표 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19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22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23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26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29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33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34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6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7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39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41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2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3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	44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48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1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2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3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4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추이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5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8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0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63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65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67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69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70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72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73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78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80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81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86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87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88
<표 4-4> 지역별 매출액	91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103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105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110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3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17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21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124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127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129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131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3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134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137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139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141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3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144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46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49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1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152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154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5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6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7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158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159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159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160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161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167
<표 5-1>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171
<표 5-2>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및 비용구조 요약 (2021~2023)	173
<표 부1-1> 2023년 사회적기업 시도 분포 현황	175
<표 부1-2> 2023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175
<표 부1-3>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77
<표 부1-4> 2023년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177
<표 부1-5>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79
<표 부1-6>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179
<표 부1-7>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181
<표 부1-8> 2023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181
<표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당 임금	185
<표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187
<표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189
<표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190

<표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91
<표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92
<표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193
<표 부2-8> 판매관리 및 영업외비용 비교	194
<표 부3-1> 2023년 기업분류 기준표	195
<표 부3-2> 3개년(2021~2023)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197
<표 부3-3> 3개년(2021~2023)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198
<표 부3-4> 2023년 시도 및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199
<표 부3-5>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현황 조사 항목 (2022) ..	201
<표 부3-6>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간 기업규모별 재무제표 비교(2022) ...	204

그림 목차

[그림 1-1] 2023년 사업보고서(2024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4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8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2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13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14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15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16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31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32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35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38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40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46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	46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7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49
[그림 3-10] 청소 분야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	49
[그림 3-11]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0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7
[그림 3-13]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59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61
[그림 3-15]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61
[그림 3-16]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68
[그림 3-17]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74
[그림 3-18]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75
[그림 3-19] 연도별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금액	76
[그림 3-20]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기업 수 및 사회적 목적 채투자 총액	77
[그림 3-21] 연도별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금액 및 비율	77
[그림 4-1] 매출 총액	82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3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84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4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85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5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6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7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88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89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0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90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93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94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95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96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97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97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98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99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100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101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2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03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04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06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07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108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109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0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111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112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112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4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5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116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123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124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125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126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130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131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132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135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136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136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140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141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142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150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154
[그림 부1-1] 2023년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	175
[그림 부1-2] 2023년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176
[그림 부1-3]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178
[그림 부1-4] 2023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180
[그림 부1-5]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2023)	183
[그림 부1-6]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3)	183
[그림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183
[그림 부1-8]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3)	183
[그림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월 임금, 평균 주 근로시간 ..	185
[그림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186
[그림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주 근로시간 ..	188
[그림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190
[그림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191
[그림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192
[그림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교	193
[그림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194
[그림 부3-1] 3개년(2021~2023)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198
[그림 부3-2] 2022년 일반기업 중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기업 비교	202
[그림 부3-3] 2022년 일반기업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기업 비교	202
[그림 부3-4] 2022년 일반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비교 ..	20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방향

사회적기업은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다. 2023년 기준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 수는 3,737개로, 이는 5년 전인 2018년의 2,122개 대비 76.1% 증가하였으며, 고용인원·사회서비스 수혜인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취약계층의 고용 창출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다수 사회적기업의 규모가 작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제공 형에 편중되어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은 부족한 상황이며, 정부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나타나 자생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3년에 발표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에서는 기존의 ‘획일적 육성’ 지원에서 벗어나 ‘자생력 제고’를 중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였다.

- ①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 ②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③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
- ④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

특히, 사회적 가치와 성과를 평가하여 차등 지원 체계를 도입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발맞추어 성과 측정을 위한 사회적 가치지표(SVI, Social Value Index) 도입 및 경영공시 자료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성과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현 정부는 사회적기업 지원체계를 일반 기업과 유사하게 조정함에 따라 일반기업과의 차별성을 파악하고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회적기업의 객관적 현황과 사회적성적을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를 통하여 사회적기업만의 특성을 도출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을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성적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기업 지원정책 수립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적 자료를 구축하고자 한다.

제2절 주요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년 4월 제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분석을 진행한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 4월 말과 10월 말에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17조). 전년도 자료를 다음 해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2023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는 2024년 4월까지 제출이 완료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 이후 사업보고서 양식은 총 네 차례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길현중 외, 2013, 2018), 본 연구에 활용된 사업보고서는 2017년 개편되어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4월 제출 사업보고서 오프라인 양식은 [그림 1-1]과 같다.

2024년 4월 기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은 3,637개소로, 전체의 97.3%에 해당한다. 최근 3년간 사업보고서 제출률은 평균 96.7%로, 사회적기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합한 자료로 평가된다. 한편, 대체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또는 반납, 휴폐업 등의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연도별 사업보고서 제출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

연도	사회적기업	제출기업	
	개소	개소	제출 비율
2021	3,215	3,063	95.3
2022	3,534	3,441	97.4
2023	3,737	3,637	97.3

[그림 1-1] 2023년 사업보고서(2024년 4월 제출) 오프라인 양식

① 기업 현황	사회적기업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사회적 목적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제공형 <input type="checkbox"/> 지역사회 공헌형 <input type="checkbox"/> 혼합형 <input type="checkbox"/> 기타형 <input type="checkbox"/>						
	조직 형태	「민법」에 따른 법인 <input type="checkbox"/> 「민법」에 따른 조합 <input type="checkbox"/> 「상법」에 따른 회사 <input type="checkbox"/>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input type="checkbox"/> 공익법인 <input type="checkbox"/> 비영리민간단체 <input type="checkbox"/> 사회복지법인 <input type="checkbox"/> 소비자생활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input type="checkbox"/> 농(어)업회사법인 <input type="checkbox"/> 영농(어)조합법인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업종	주업태		주종목		주사업		주업종 코드
부업태			부종목		부사업		부업종 코드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범위					연간 개최 횟수	
		사내 이해관계자		사외 이해관계자				
		임원 등	근로자	수혜자	지역사회	기타		
	이사회	명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명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수혜자인원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근로자 처우개선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미처분이익잉여금/매당 액				천원(천원)			
④ 지원 내역	정부 지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창출사업			천원			
		전문인력지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정책자금			천원			
		기타			천원			
	민간 지원	소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민간금융지원			천원			
		기타			천원			
		소계			천원			

[그림 1-1]의 계속

⑤ 재정 성과	매출액		천 원		공공시장		천 원	
					민간시장		천 원	
	매출총이익		천 원		매출원가		천 원	
	영업이익		천 원		판매비와 관리비		천 원	
	영업외수익		천 원		노무비		천 원	
	법인세차감전이익		천 원		영업외비용		천 원	
당기순이익		천 원		법인세 등		천 원		
⑥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기업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기타 정부지원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비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천 원	시간	
⑦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보건□사회복지□보육□환경□ 간병·가사 지원□산림□고용□청소□ 문화·예술□ 관광·운동□ 문화재□ 기타□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비취약계층						명	
⑧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시/도 () 구/군					
	공헌 내용							
⑨ 기타	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2.	천 원	천 원	천 원	천 원		
<p>「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p> <p>○○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귀하</p>								

제3절 연구 구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주요 현황과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표 1-2>의 순으로 구분해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를 제시할 것이다.

사회적성과와 경제적성과는 기존 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일반기업과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부록]에 상대적 성과 비교 형식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 1-2>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연구보고서의 구성

구분	주요 내용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방향 · 주요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4년 4월 제출) · 연구의 구성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분포,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고용 · 사회서비스 제공 ·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 사회적 목적 재투자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성과(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지출(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 · 기타성과지표(노동생산성, 비취약계층 고용)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황 · 사회적 및 경제적 성과 비교 · 기업 규모별 경제적 성과 비교

제2장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사회적기업 현황

제2장에서는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의 개요 및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정리한 후, 인증사회적기업 일반 현황을 사업보고서 분석 결과를 활용해 제시하고자 한다. 이 중 후자인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에는 조직 특성별 분포와 사회경제적 성과로 분류되기 어려운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 수익에 대한 정보가 제시될 것이다.

제1절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과 정부 지원 정책

사회적경제는 2017년 발표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이후 시장 자본주의의 한계를 보완·대체 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성장을 지원하였다. 2021년 정부 평가에서도 사회적경제 기업 수는 2016년 20,459개에서 2020년 31,724개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취약계층 취업자 수도 사회적기업 기준 2016년 23,858명, 2020년 33,20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의 양적·질적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성숙기 문턱에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한계점으로는 매출의 높은 공공조달 의존도, 기부·자원 봉사 등 시민 활동 연계기반 미흡, 글로벌 ESG 트렌드 대응 및 디지털·그린 전환 적응 역량 부족 등을 예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1)¹⁾.

이에 2023년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에서는 우수 사회적기업의 규모화 지원을 위해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 2023.09)²⁾.

1) 관계부처 합동(2021.1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 고용노동부(2023.09.01.).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제2절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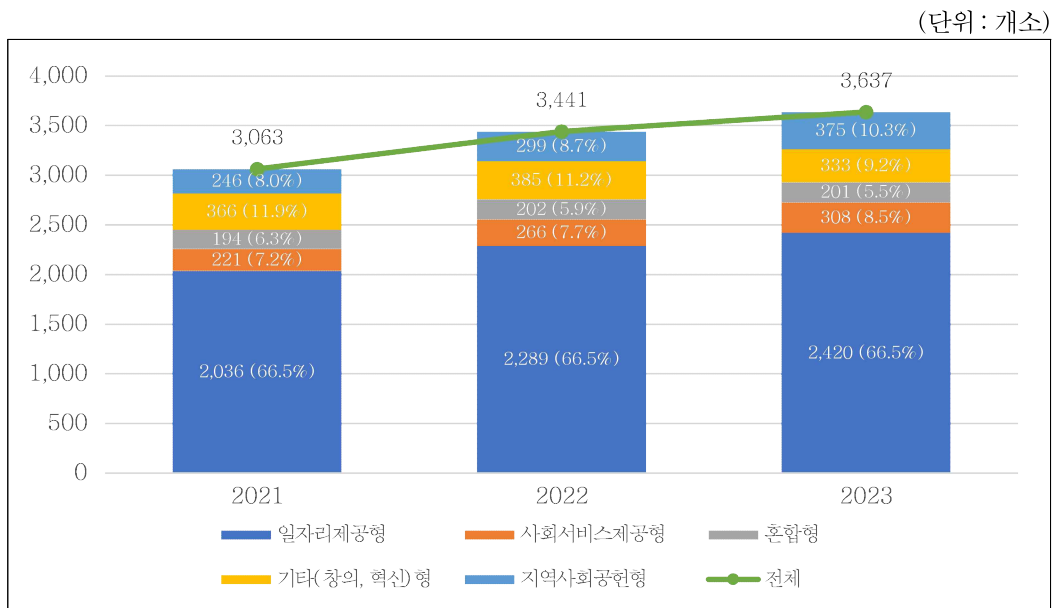
이하에서는 2023년 사업보고서 자료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기업 지원금에 대해 검토한다.

1. 사회적기업의 분포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된 인증사회적기업의 수를 이전 연도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그림 2-1]과 같다. 2023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은 총 3,637개소로 전년 대비 196개소 증가했다.

사업보고서 제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확인하면 다음 <표 2-1>과 같다. 사회적기업이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은 경기(17.8%)와 서울(16.5%)로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약 34.3%에 해당된다. 반면 사회적기업이 가장 적게 소재한 지역은 4.0% 미만을 기준으로 세종(0.8%), 제주(2.4%), 울산(3.1%), 대전(3.2%), 대구(3.7%)이며, 이외 다른 지역은 4.0~7.2%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2-1]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수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2-1>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

구분	개소	백분율
서울	599	16.5
부산	169	4.6
대구	133	3.7
인천	213	5.9
광주	153	4.2
대전	117	3.2
울산	114	3.1
세종	30	0.8
경기	648	17.8
강원	200	5.5
충북	152	4.2
충남	152	4.2
전북	211	5.8
전남	202	5.6
경북	261	7.2
경남	195	5.4
제주	88	2.4
전체	3,637	100.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 <표 2-2>는 이들 인증사회적기업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최근 인증을 받은 기업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6~2023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가 2,631개소(72.3%)로 2007~2015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 수인 1,006개소(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

한편,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인증사회적기업 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폐업, 인증 반납 등으로 인한 인증연도별 기업 수의 감소가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은 일자리제공형이 2,420개소(66.5%)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각 유형 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형은 일자리제공형(66.5%)으로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이며, 그 다음으로는 지역사회공헌형(10.3%)으로 전년대비 1.6%p 증가, 기타(창의·혁신)형(9.2%)은 전년대비 2.0%p 감소, 사회서비스제공형(8.5%)은 0.8%p 증가하였다.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결합된 혼합형(201개소, 5.5%)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중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창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72.0%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최근 3년간 인증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자리제공형의 비중은 66.5% 수준으로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지역사회공헌형 인증사회적기업은 꾸준히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혼합형 및 기타형 인증사회적기업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는 상법상회사가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2,447개소(67.3%)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상법상회사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이유는 상법상회사의 설립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금 요건이나 인적 구성이 요구되는데, 자본구조가 취약한 기관들은 민법상법인의 형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출자금 요건이 다소 낮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인증 초기에 상법상회사가 많았으며 특히 자활공동체가 이를 활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곽선화 외, 2010). 한편 추세를 보면,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수가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012년 제정된 협동조합기본법을 통해 설립된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기업의 수

(단위: 개소)

구분		2021	2022	2023
인증연도	2007	33	33	32
	2008	94	97	92
	2009	45	46	46
	2010	123	124	116
	2011	92	91	90
	2012	105	105	102
	2013	186	176	161
	2014	189	187	175
	2015	218	208	192
	2016	217	209	198
	2017	222	218	197
	2018	274	276	259
	2019	360	354	331
	2020	415	407	394
	2021	490	487	470
	2022	-	423	412
	2023	-	-	37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36	2,289	2,420
	사회서비스제공형	221	266	308
	혼합형	194	202	201
	기타(창의·혁신)형	366	385	375
	지역사회공헌형	246	299	33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43	304	309
	비영리민간단체	74	61	54
	사회복지법인	72	74	74
	상법상회사	1,993	2,304	2,44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1	11	11
	영농조합법인	100	118	10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66	569	633
	기타	4	-	-
전체		3,063	3,441	3,63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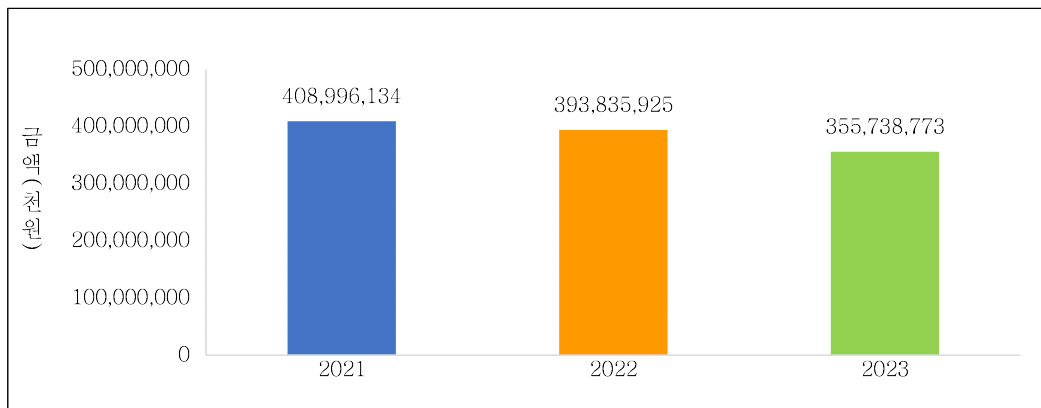
2. 사회적기업 지원금

이어서 인증사회적기업의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일부 정부보조금의 경우 영업외수익이라는 용어를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점을 고려하여(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6), 본 성과 분석에서는 지원금이라는 용어를 활용하여 정부지원 및 일반지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순수한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석에 활용되는 지원금 및 기타 영업외수익에서 금융지원은 제외한다. 정부지원에는 일자리창출사업지원금, 전문 인력사업지원금, 사업개발비지원금, 사회보험료지원금,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책자금은 제외하였다. 민간지원에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영업외수익 금액이 포함되며 민간금융지원은 제외하였다.

사회적기업의 전체 지원금 총액의 추이를 확인해보면 다음 [그림 2-2]와 같다. 2023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은 2022년 대비 약 9.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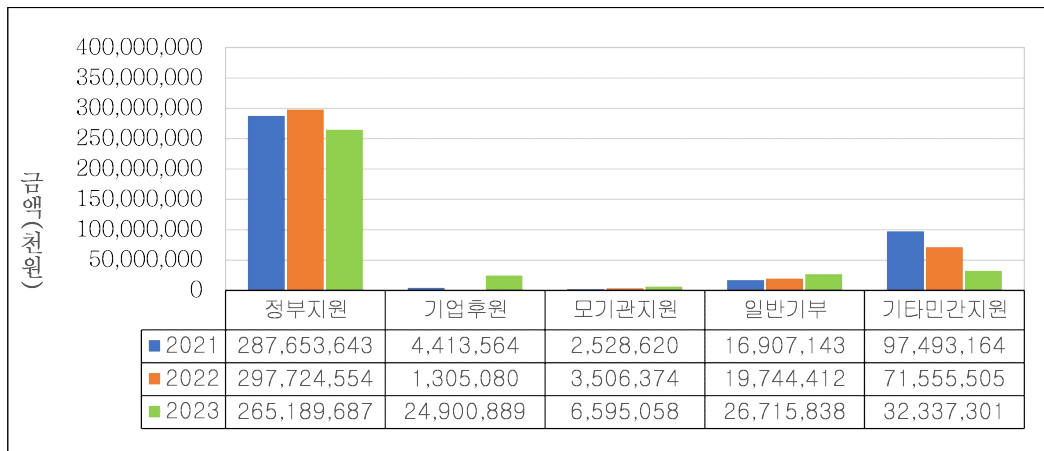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사회적기업 지원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해보면 아래의 [그림 2-3]과 같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0.9% 감소하였다. 기타 민간지원의 경우에는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기업후원의 경우 전년 대비 기업후원을 받은 기업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모기관지원의 경우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38.7%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88.1% 증가했다. 일반기부는 2022년은 전년 대비 약 16.8% 증가하였고, 2023년은 전년 대비 약 35.3% 증가하였다.

기업후원과 일반기부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트렌드의 확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며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후원과 기부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중개 역할 강화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에 기타 민간지원으로 통합되어 관리되던 항목들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업후원, 일반기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분류한 점이 금액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후원 및 일반기부를 받은 기업의 수가 적어 세부 내용 및 상관관계에 대한 사항은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3] 연도별 항목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총액

(단위: 천 원)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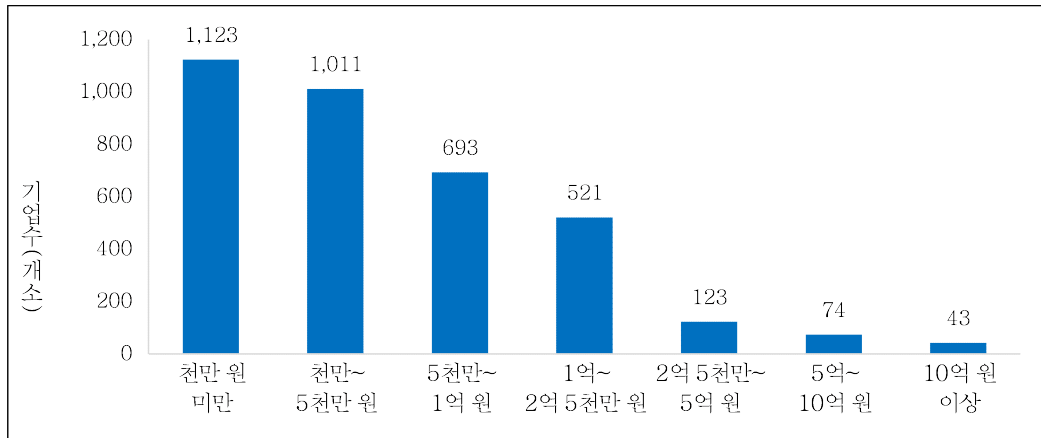
2023년 정부지원 2,521개소, 기업후원 236개소, 모기관지원 89개소, 일반기부 368개소, 기타민간지원 3,441개소, 총지원금 3,588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그림 2-4]는 사회적기업 지원금의 금액 및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다. 사회적기업 중 2022년에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등 다양한 항목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 3,637개소의 중 3,588개소(98.7%)로 나타났다. 지원금 액수는 천만 원 미만이 1,123개소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그 뒤로, 천만 원 ~5천만 원이 1,011개소, 5천만 원~1억 원이 693개소, 1억 원~2억 5천만 원이 521개소, 2억 5천만 원~5억 원이 123개소, 5억 원~10억 원이 74개소, 10억 원 이상이 43개소 순이었다.

[그림 2-4]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 총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3,588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으로, 지원금을 총지원금과 개별항목(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으로 구분한 뒤, 항목별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의 평균 및 중위값을 분석해 보면 다음 <표 2-3>과 같다. 총지원금을 먼저 살펴보면, 2023년 총지원금 평균은 약 9천 9백만 원, 중위값은 약 3천 3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2021년 및 2022년 총지원금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각각 평균 약 1억 3천만 원과 1억 2천만 원, 중위값 약 5천 8백만 원과 5천 7백만 원으로 2023년에는 평균값과 중위값 모두 이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항목 중 정부지원의 평균 약 1억 5백만 원, 중위값은 약 5천만 원으로 다른 지원금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의 순으로 지원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후원금은 평균 약 1억 6백만 원, 중위값은

약 1천 8백만 원, 모기관지원금은 평균 약 7천 4백만 원, 중위값 약 1천 6백만 원, 일반기부금은 평균 약 7천 3백만 원, 중위값 약 6천만 원, 기타 민간지원금은 평균 약 9백만 원이었다.

<표 2-3>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평균	중위값
정부지원	131,049	62,486	108,067	54,420	105,192	50,242
기업후원	90,073	11,690	33,464	5,000	105,512	10,766
모기관지원	40,137	9,284	87,659	42,707	74,102	16,200
일반기부	62,388	10,128	60,380	10,460	72,597	6,448
기타 민간지원	32,123	6,409	28,361	6,136	9,398	145
총지원금	133,965	58,282	122,997	57,370	99,147	33,230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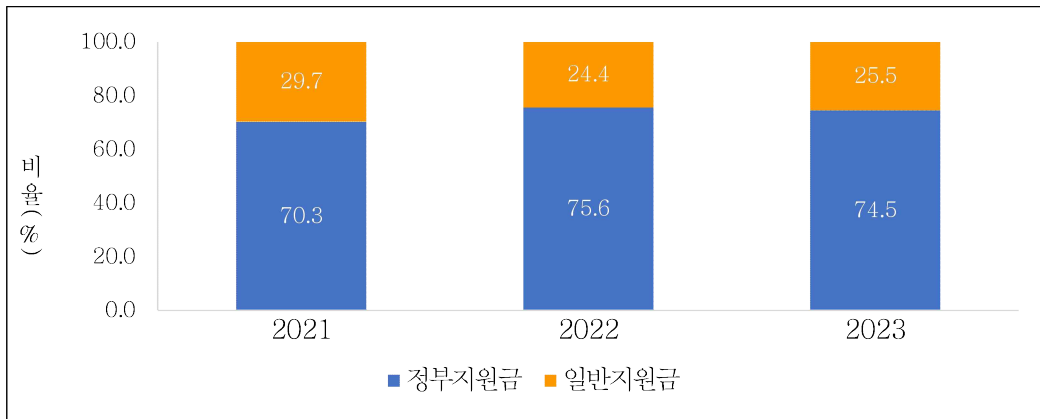
2023년 정부지원 2,521개소, 기업후원 236개소, 모기관지원 89개소, 일반기부 368개소, 기타민간지원 3,441개소, 총지원금 3,588개소 기준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그림 2-5]와 같다. 2023년 전체 지원금 중 정부지원금은 7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정부지원금과 일반지원금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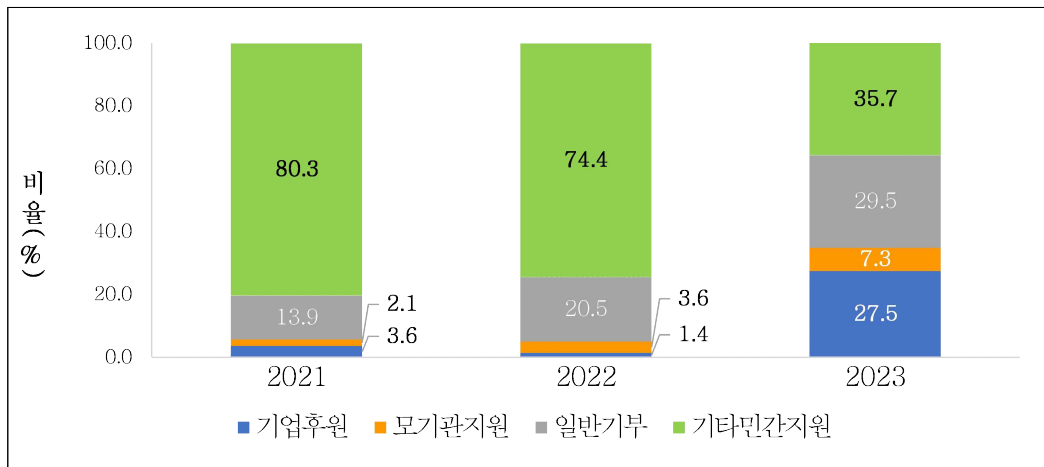
주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편, [그림 2-6]에는 정부지원금 이외의 일반지원금의 비율 변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체비율에서 기타민간지원금은 2022년 74.4%에서 2023년 35.7%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기업후원금은 2022년 1.4%에서 2023년 27.5%로 대폭 상승하였으며, 일반기부는 2022년 20.5%에서 2023년 29.5%로 상승하였다. 모기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2.1%, 2022년 3.6%, 2023년 7.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일반지원금 구성비

(단위: %)



주1 :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전체 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의 평균 및 중위값을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2-4>와 같다. 먼저 지원금 총액의 평균을 살펴보면 기업 수가 23개소로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제주가 약 1억 7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서울 약 1억 4천만 원, 대전 약 1억 3천 4백만 원, 전북 약 1억 1천 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지원금의 경우 제주 약 1억 6천 2백만 원, 전북 약 1억 4천 3백만 원, 경남 약 1억 3천 8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후원금은 서울 약 2억 5천 4백만 원, 전북 약 9천 2백만 원, 경북 약 4천 9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기관지원금의 경우 제주 약 2억 1천만 원, 광주 약 1억 5천 4백만 원, 충북 약 1억 2천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기부금의 경우 서울 약 1억 9천 5백만 원, 대전 약 1억 6천만 원, 경북 약 4천 8백만 원, 제주 약 4천

1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민간지원금의 경우 인천 약 1천 8백만 원, 제주 약 1천 5백만 원, 경북 1천 4백만 원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4> 지역별 지원금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서울	평균	99,736	254,149	81,207	195,154	12,581	140,495
	기업 수	369	75	20	91	563	586
	중위값	32,823	20,000	22,587	9,942	161	20,738
부산	평균	109,108	18,725	20,775	6,830	13,935	96,226
	기업 수	125	6	4	15	160	168
	중위값	65,000	7,638	21,000	4,612	90	49,583
대구	평균	78,767	16,771	-	29,717	5,155	67,763
	기업 수	101	7	-	8	123	132
	중위값	61,067	14,366	-	5,517	42	45,178
인천	평균	73,378	21,234	50,357	5,449	18,098	68,872
	기업 수	140	6	7	16	204	211
	중위값	45,572	7,500	5,000	3,745	116	24,761
광주	평균	110,058	38,409	154,309	9,047	6,989	87,388
	기업 수	104	6	4	7	145	153
	중위값	62,325	7,175	73,367	7,040	74	36,375
대전	평균	136,651	8,713	1,745	160,425	5,654	134,410
	기업 수	82	6	3	23	113	116
	중위값	70,590	4,500	2,000	13,160	150	47,555
울산	평균	90,747	44,132	10,087	22,654	2,624	78,062
	기업 수	88	4	3	15	110	113
	중위값	48,758	32,763	10,000	2,440	57	42,678
세종	평균	57,412	-	540	14,360	1,386	46,378
	기업 수	23	-	1	2	30	30
	중위값	37,620	-	540	14,360	121	23,478
경기	평균	98,010	45,806	100,110	21,902	8,697	81,855
	기업 수	419	58	17	74	633	642
	중위값	44,463	8,275	9,500	5,842	215	27,880

<표 2-4>의 계속

지역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민간지원	지원금총액
강원	평균	94,477	11,223	45,550	9,030	10,752	77,977
	기업 수	133	10	6	16	189	194
	중위값	61,347	5,500	19,950	3,465	128	37,414
충북	평균	97,697	33,966	119,850	21,894	7,989	80,054
	기업 수	99	6	4	16	143	148
	중위값	54,380	15,700	79,499	12,821	160	34,311
충남	평균	99,007	13,385	40,048	35,150	6,382	81,241
	기업 수	108	8	4	13	146	152
	중위값	60,238	7,150	5,360	22,222	244	38,418
전북	평균	143,449	91,587	60,703	11,904	4,079	119,432
	기업 수	163	7	3	14	203	211
	중위값	55,207	13,914	50,808	3,600	130	35,415
전남	평균	84,009	16,730	63,733	4,938	5,229	63,507
	기업 수	134	4	3	9	194	198
	중위값	53,246	15,900	85,000	5,000	64	32,877
경북	평균	111,872	48,720	7,647	47,598	13,963	113,663
	기업 수	217	17	4	18	255	260
	중위값	56,974	10,000	7,063	5,318	193	52,765
경남	평균	138,276	27,238	11,200	15,830	5,552	108,956
	기업 수	142	5	2	20	185	194
	중위값	46,424	23,000	11,200	6,815	86	36,372
제주	평균	162,367	24,639	210,250	40,990	14,990	178,158
	기업 수	74	11	4	11	45	80
	중위값	55,775	6,318	210,000	5,386	5,663	62,775
전체	평균	105,192	105,512	74,102	72,597	9,398	99,147
	기업 수	2,521	236	89	368	3,441	3,588
	중위값	50,242	10,766	16,200	6,448	145	33,23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으로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확인해보면 다음 <표 2-5>와 같다. 먼저, 인증연도를 확인해보면 지원금 총액에 있어서 2007년 인증

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약 7억 2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인증기업의 평균 금액이 약 4억 3백만 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2007년 인증기업의 경우 평균 금액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평균과 중위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지원금을 받는 기업 간에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지원금 총액이 약 1억 2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2천 1백만 원,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억 원, 일자리제공형이 약 9천 6백만 원, 혼합형이 5천 5백만 원 순이었다. 인증 유형별로 세부 지원금 평균 금액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정부지원금과 기타 민간 지원금은 일자리제공형이, 기업후원금은 지역사회공헌형이, 일반기부금은 기타(창의·혁신)형이 모기관지원금은 사회서비스제공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사회복지법인의 지원금 총액 평균은 약 6억 5천만 원, 중위값이 6억 1백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정부지원금 및 기타민간지원금에서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후원금, 모기관지원금, 일반 기부금에서는 민법상법인의 지원금 총액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평균, 중위값 및 기업 수

(단위: 천 원, 개소)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07	평균	641,561	327,674	29,563	876,957	53,108	702,452
		중위값	16	6	2	9	30	31
		기업 수	210,917	28,355	29,563	7,150	4,686	29,070
	2008	평균	316,829	47,732	120,970	59,945	27,262	234,472
		중위값	49	16	11	19	86	90
		기업 수	93,456	5,000	89,790	15,062	954	25,847
	2009	평균	212,485	47,720	354,361	27,109	2,413	138,088
		중위값	22	5	2	8	41	43
		기업 수	33,354	38,000	354,361	5,593	172	10,865
	2010	평균	253,295	10,817	76,850	15,578	8,428	142,350
		중위값	55	11	12	20	112	114
		기업 수	44,189	5,000	44,877	6,760	286	7,327
	2011	평균	217,739	26,229	58,466	17,286	8,213	123,391
		중위값	43	11	6	22	88	90
		기업 수	56,700	24,146	48,750	5,120	175	14,539
	2012	평균	239,268	63,034	56,515	7,350	4,099	109,554
		중위값	40	7	7	21	96	100
		기업 수	71,108	5,000	20,000	3,805	167	6,527

<표 2-5>의 계속1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연도	2013	평균	117,334	59,346	24,728	43,847	5,099	63,569
		중위값	65	14	5	18	157	160
		기업 수	52,907	9,000	20,379	6,805	142	5,083
	2014	평균	132,542	33,837	54,952	17,015	4,922	64,852
		중위값	71	9	5	9	166	169
		기업 수	36,250	11,000	7,000	16,998	111	5,452
	2015	평균	175,166	28,325	86,874	15,026	8,931	88,118
		중위값	80	9	2	15	183	185
		기업 수	29,801	5,000	86,874	10,530	86	5,909
	2016	평균	73,066	50,231	9,770	188,371	10,087	70,051
		중위값	91	11	4	23	193	193
		기업 수	18,948	5,000	3,115	7,343	279	7,918
	2017	평균	51,301	8,885	442,999	18,048	4,369	40,319
		중위값	104	13	3	10	188	193
		기업 수	27,315	5,000	17,000	5,848	70	9,101
	2018	평균	66,554	24,891	6,600	15,538	7,678	58,879
		중위값	187	16	1	20	249	256
		기업 수	28,294	20,235	6,600	5,300	269	20,041
	2019	평균	64,970	178,952	50,624	53,677	4,355	68,402
		중위값	252	15	7	28	318	326
		기업 수	35,258	11,000	4,068	4,657	99	28,894
	2020	평균	90,877	237,184	2,000	19,458	5,473	100,991
		중위값	338	26	6	30	367	391
		기업 수	60,901	17,183	2,000	7,841	91	54,017
	2021	평균	109,082	278,247	4,855	154,717	2,963	130,338
		중위값	425	25	4	42	437	469
		기업 수	70,712	24,952	4,350	3,794	86	69,470
	2022	평균	83,743	102,796	5,542	27,068	3,172	87,045
		중위값	376	20	8	38	393	412
		기업 수	62,838	10,900	3,870	4,959	61	61,628
	2023	평균	69,852	34,727	112,751	28,231	36,716	98,495
		중위값	307	22	4	36	337	366
		기업 수	51,395	11,957	350	11,823	3,698	56,877
인증 유형	일자리 제공형	평균	111,731	33,894	75,876	34,327	11,065	95,836
		중위값	1,678	117	66	212	2,305	2,392
		기업 수	55,530	8,000	18,500	5,000	209	35,916
	사회 서비스 제공형	평균	100,442	169,081	94,284	152,895	8,571	126,554
		중위값	226	37	6	43	292	305
		기업 수	40,724	10,732	7,609	14,293	59	32,798
	혼합형	평균	77,073	45,690	92,133	22,658	4,120	54,624
		중위값	105	15	5	28	189	195
		기업 수	31,570	6,000	7,000	6,310	66	9,251

<표 2-5>의 계속2

구분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지원금총액
인증 유형	기타 (창의· 혁신)형	평균	100,067	129,598	53,702	229,352	6,437	120,575
		중위값	249	49	10	45	349	368
		기업 수	38,000	20,011	13,300	18,908	100	25,956
	지역 사회 공헌형	평균	83,636	424,648	11,920	47,720	4,265	100,236
		중위값	263	18	2	40	306	328
		기업 수	48,324	33,100	11,920	9,013	83	44,069
조직 형태	민법상 법인	평균	265,899	398,394	257,242	204,938	15,139	294,399
		중위값	186	38	7	91	294	304
		기업 수	85,360	26,992	20,379	7,343	196	42,981
	비영리 민간 단체	평균	106,606	18,681	126,937	26,111	6,804	76,496
		중위값	28	3	4	9	51	54
		기업 수	39,482	26,400	90,222	16,373	12	8,896
	사회 복지 법인	평균	692,334	85,574	93,489	33,011	42,770	649,602
		중위값	55	14	35	45	64	72
		기업 수	662,332	5,507	43,000	7,420	379	600,689
	상법상 회사	평균	73,378	34,216	20,742	7,929	8,966	61,467
		중위값	1,676	103	30	88	2,327	2,419
		기업 수	45,812	8,596	2,985	2,330	186	28,966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평균	122,410	37,000	-	7,116	3,223	107,387
		중위값	9	1	-	1	11	11
		기업 수	81,070	37,000	-	7,116	1,025	62,014
	영농 조합 법인	평균	76,332	1,078	5,000	2,250	4,012	57,538
		중위값	73	1	1	2	100	104
		기업 수	60,850	1,078	5,000	2,250	98	29,269
	일반/ 사회적 협동조합	평균	91,122	65,073	32,272	42,702	5,897	95,331
		중위값	494	76	12	132	594	624
		기업 수	50,118	9,300	14,380	11,696	67	46,950
전체		평균	127,162	73,105	61,171	72,979	35,851	139,196
		중위값	2,003	42	57	254	2,698	2,705
		기업 수	68,875	25,464	24,060	12,424	5,795	65,19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한편, <표 2-6>은 전체 지원금에서 차지하는 세부 항목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분석한 결과이다. 정부지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대체로 정부 지원의 비율이 70~80%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반면, 사회서비스 제공형, 기타(창의·혁신형), 민법상 법인 등 일부 유형에서는 다른 인증유형이나 조직 형태에 비하여 일반기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표 2-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지원금 비율

(단위: %)

		정부지원	기업후원	모기관지원	일반기부	기타	계
인증 연도	2007	47.1	9.0	0.3	36.2	7.3	100.0
	2008	73.6	3.6	6.3	5.4	11.1	100.0
	2009	78.7	4.0	11.9	3.7	1.7	100.0
	2010	85.8	0.7	5.7	1.9	5.8	100.0
	2011	84.3	2.6	3.2	3.4	6.5	100.0
	2012	87.4	4.0	3.6	1.4	3.6	100.0
	2013	75.0	8.2	1.2	7.8	7.9	100.0
	2014	85.9	2.8	2.5	1.4	7.5	100.0
	2015	86.0	1.6	1.1	1.4	10.0	100.0
	2016	49.2	4.1	0.3	32.0	14.4	100.0
	2017	68.6	1.5	17.1	2.3	10.6	100.0
	2018	82.6	2.6	0.0	2.1	12.7	100.0
	2019	73.4	12.0	1.6	6.7	6.2	100.0
	2020	77.8	15.6	0.0	1.5	5.1	100.0
	2021	75.8	11.4	0.0	10.6	2.1	100.0
	2022	87.8	5.7	0.1	2.9	3.5	100.0
	2023	59.5	2.1	1.3	2.8	34.3	100.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81.8	1.7	2.2	3.2	11.1	100.0
	사회서비스제공형	58.8	16.2	1.5	17.0	6.5	100.0
	혼합형	76.0	6.4	4.3	6.0	7.3	100.0
	기타(창의·혁신)형	56.2	14.3	1.2	23.3	5.1	100.0
	지역사회공헌형	66.9	23.2	0.1	5.8	4.0	100.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5.3	16.9	2.0	20.8	5.0	100.0
	비영리민간단체	72.3	1.4	12.3	5.7	8.4	100.0
	사회복지법인	81.4	2.6	7.0	3.2	5.9	100.0
	상법상회사	82.7	2.4	0.4	0.5	14.0	1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3.3	3.1	0.0	0.6	3.0	100.0
	영농조합법인	93.1	0.0	0.1	0.1	6.7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5.7	8.3	0.7	9.5	5.9	100.0
전체		74.5	7.0	1.9	7.5	9.1	100.0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2-7>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지원금

(단위: 천 원)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연도	2007	255,298	231,483	467,572	17,301	108,415	396,107	398,465	-	33,996	17,815	702,452	641,561	327,674	29,563	876,957
	2008	240,591	265,214	31,801	86,657	96,226	262,643	247,841	68,799	118,548	42,756	234,472	316,829	47,732	120,970	59,945
	2009	148,895	159,098	211,073	-	62,827	189,932	179,779	202,500	291,776	23,647	138,088	212,485	47,720	354,361	27,109
	2010	139,917	140,714	276,418	36,218	21,066	132,461	137,530	20,490	53,596	19,418	142,350	253,295	10,817	76,850	15,578
	2011	176,308	182,268	51,415	48,055	38,544	195,719	163,235	25,925	119,720	19,602	123,391	217,739	26,229	58,466	17,286
	2012	136,491	155,483	288,978	-	10,652	163,561	200,681	5,000	53,511	11,719	109,554	239,268	63,034	56,515	7,350
	2013	124,460	113,577	27,515	21,077	33,873	105,831	112,722	5,000	19,697	32,783	63,569	117,334	59,346	24,728	43,847
	2014	136,283	133,151	112,038	175,036	31,121	127,638	129,649	45,193	110,000	23,143	64,852	132,542	33,837	54,952	17,015
	2015	66,509	62,601	93,523	4,862	24,392	107,666	100,749	35,679	-	18,919	88,118	175,166	28,325	86,874	15,026
	2016	219,352	212,602	32,419	22,634	53,625	138,731	94,163	16,154	-	201,768	70,051	73,066	50,231	9,770	188,371
	2017	105,872	81,087	58,924	564	164,448	65,256	56,569	14,873	-	26,400	40,319	51,301	8,885	442,999	18,048
	2018	154,826	134,542	41,056	1,996	173,673	98,267	80,663	17,705	-	136,110	58,879	66,554	24,891	6,600	15,538
	2019	130,228	120,234	-	2,380	127,556	129,079	108,472	5,000	-	38,237	68,402	64,970	178,952	50,624	53,677
	2020	94,576	97,601	20,694	7,275	57,106	108,810	97,982	5,478	-	21,946	100,991	90,877	237,184	2,000	19,458
	2021	126,805	138,427	34,264	3,803	22,689	126,490	107,049		-	187,595	130,338	109,082	278,247	4,855	154,717
	2022	-	-	-	-	-	87,852	79,717	5,000	-	30,623	87,045	83,743	102,796	5,542	27,068
	2023	-	-	-	-	-	-	-	-	-	-	98,495	69,852	34,727	112,751	28,231

<표 2-7>의 계속

구분		2021					2022					2023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평균 지원금 (전체)	평균 정부 지원금	평균 기업 후원금	평균 모기관 지원금	평균 일반 기부금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6,939	122,455	85,500	47,635	58,162	124,567	110,733	37,514	89,442	52,273	95,836	111,731	33,894	75,876	34,327
	사회서비스제공형	153,919	169,477	234,074	7,862	48,945	122,789	94,895	82,347	-	129,012	126,554	100,442	169,081	94,284	152,895
	혼합형	198,008	250,216	218,698	45,775	26,759	90,315	92,584	5,000	53,790	34,691	54,624	77,073	45,690	92,133	22,658
	창의·혁신형(기타)	137,012	120,604	47,695	2365	77,541	138,676	115,956	10005	-	45,567	120,575	100,067	129,598	53,702	229,352
	지역사회공헌형	119,608	101,446	18,404	1,131	117,016	114,104	101,120	5,261	-	61,053	100,236	83,636	424,648	11,920	47,7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65,405	159,487	188,174	41,765	62,077	254,297	214,654	15,038	65,828	120,534	294,399	265,899	398,394	257,242	204,938
	비영리민간단체	94,960	103,064	-	6,300	19,032	140,250	135,499	-	45,354	29,287	76,496	106,606	18,681	126,937	26,111
	사회복지법인	560,275	591,673	-	79,377	57,040	623,861	645,193	-	97,559	23,309	649,602	692,334	85,574	93,489	33,011
	상법상회사	103,758	101,419	61,943	4,723	14,337	88,825	78,658	19,948	5,600	8,974	61,467	73,378	34,216	20,742	7,9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5,811	116,841	20,638	-	9,542	146,521	146,127	32,548	-	8,325	107,387	122,410	37,000	-	7,116
	영농조합법인	116,418	92,021	-	-	19,669	80,919	79,750	-	-	4,000	57,538	76,332	1,078	5,000	2,25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5,724	173,067	156,553	12,163	87,324	128,288	104,640	94,150	-	46,094	95,331	91,122	65,073	32,272	42,702
	기타	51,915	64,010	-	-	-	-	-	-	-	-	-	-	-	-	-

주: 항목별 지원금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2021~2023년 총지원금 및 세부 지원금 평균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로 구분해 비교한 결과는 <표 2-7>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 지원금 규모는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이 과거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정부지원금 평균도 이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인증유형과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평균 지원금(전체)’의 경우 사회서비스제공형이 2023년 기준 약 1억 2천 7백만 원, 사회복지법인이 약 6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이 2022년에 감소했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기타(창의·혁신)형은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감소하는 형태를 나타냈다. 반면, 나머지 인증유형은 전체적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직형태별로는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22년에 감소한 뒤 2023년에 다시 증가한 반면,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법상회사,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는 꾸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다음의 <표 부가분석 2-1>에서는 앞에서 분석한 2021~2023년 전체 지원금, 정부지원금, 민간지원금, 지원금 비율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부가분석 2-2>에서는 전체 지원금을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지원금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2-1>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천 원, %)

	항목	2021	2022	2023
전체지원금	전체총액	408,996,134	393,835,925	355,738,773
	인증연도	2007	8,169,533	12,279,321
		2008	22,134,370	24,163,138
		2009	6,700,254	8,167,085
		2010	17,069,907	15,762,912
		2011	16,220,363	17,027,539
		2012	14,195,052	15,374,726
		2013	23,149,483	17,144,606
		2014	25,757,411	19,911,470
		2015	14,432,519	18,841,582
		2016	47,379,995	25,526,461
		2017	23,503,486	12,463,978
		2018	42,112,616	24,861,473
		2019	46,882,178	42,467,080
		2020	39,154,390	43,197,502
		2021	62,134,578	60,715,416
		2022	-	35,931,635
		2023	-	36,049,32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57,939,510	265,451,858
		사회서비스제공형	33,708,355	30,697,290
		혼합형	38,017,499	17,250,124
		기타(창의·혁신)형	50,146,453	48,259,402
		지역사회공헌형	29,184,317	32,177,251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56,403,180	70,440,365
		비영리민간단체	6,932,108	7,713,757
		사회복지법인	39,779,523	46,165,725
		상법상회사	206,478,258	189,552,3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493,923	1,611,729
		영농조합법인	11,525,403	8,820,18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6,176,080	69,531,861
		기타	207,658	-
정부지원금	전체총액	287,653,643	297,724,554	265,189,687
	인증연도	2007	4,398,182	8,367,775
		2008	14,851,973	17,101,009

	항목	2021	2022	2023
정부지원금	인증연도	2009	4,454,744	5,752,916
		2010	12,101,432	11,415,009
		2011	11,300,632	11,263,193
		2012	11,194,787	12,642,886
		2013	15,446,501	12,173,997
		2014	17,575,921	13,742,753
		2015	9,077,163	12,593,658
		2016	35,291,998	13,747,832
		2017	14,757,874	9,107,646
		2018	30,541,105	19,036,467
		2019	32,583,504	34,168,560
		2020	25,766,790	37,135,056
		2021	48,311,038	48,386,259
		2022	-	31,089,538
		2023	-	21,444,597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75,110,615	200,758,388
		사회서비스제공형	26,269,004	21,825,796
		혼합형	31,777,392	13,702,480
		기타(창의·혁신)형	34,613,281	34,438,976
		지역사회공헌형	19,883,350	26,998,91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8,276,934	50,228,974
		비영리민간단체	5,565,464	5,555,463
		사회복지법인	30,767,020	38,066,395
		상법상회사	141,581,558	143,628,77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51,566	1,315,142
		영농조합법인	7,177,624	7,655,97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3,169,467	51,273,824
		기타	64,010	-
민간지원금	전체총액		121,342,491	96,111,372
	인증연도	2007	3,771,351	3,911,546
		2008	7,282,396	7,062,130
		2009	2,245,510	2,414,169
		2010	4,968,475	4,347,904
		2011	4,919,731	5,764,346
		2012	3,000,265	2,731,841
		2013	7,702,982	4,970,610
		2014	8,181,491	6,168,717
		2015	5,355,356	6,247,924
		2016	12,087,997	11,778,629
		2017	8,745,612	3,356,332
		2018	11,571,511	5,825,005
		2019	14,298,675	8,298,520
		2020	13,387,600	6,062,446
		2021	13,823,540	12,329,157
		2022	-	4,842,097
		2023	-	14,604,73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82,828,894	64,693,469
		사회서비스제공형	7,439,351	8,871,494
		혼합형	6,240,107	3,547,644

		항목	2021	2022	2023
민간지원금	인증유형	기타(창의·혁신)형	15,533,172	13,820,426	19,454,813
		지역사회공헌형	9,300,967	5,178,338	10,881,337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8,126,246	20,211,391	40,039,941
		비영리민간단체	1,366,644	2,158,294	1,145,800
		사회복지법인	9,012,503	8,099,330	8,692,932
		상법상회사	64,896,700	45,923,528	25,707,02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442,358	296,587	79,565
		영농조합법인	4,347,780	1,164,204	411,73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3,006,613	18,258,037	14,472,089
		기타	143,648	-	-
지원금 비율	전체비율		0.15	0.15	0.05
	인증연도	2007	0.10	0.10	0.12
		2008	0.15	0.15	0.09
		2009	0.14	0.14	0.07
		2010	0.15	0.15	0.06
		2011	0.17	0.14	0.04
		2012	0.11	0.12	0.06
		2013	0.13	0.11	0.01
		2014	0.12	0.10	0.03
		2015	0.10	0.09	0.04
		2016	0.13	0.09	0.02
		2017	0.13	0.19	0.02
		2018	0.16	0.11	0.03
		2019	0.18	0.16	0.04
		2020	0.14	0.15	0.06
		2021	0.20	0.18	0.08
		2022	-	0.18	0.08
		2023	-	-	0.1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0.12	0.12	0.04
		사회서비스제공형	0.20	0.19	0.11
		혼합형	0.19	0.26	0.05
		기타(창의·혁신)형	0.21	0.18	0.03
		지역사회공헌형	0.20	0.18	0.08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0.17	0.16	0.11
		비영리민간단체	0.25	0.28	0.13
		사회복지법인	0.27	0.30	0.20
		상법상회사	0.13	0.13	0.0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7	0.07	0.03
		영농조합법인	0.14	0.12	0.0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0.20	0.19	0.07
		기타	0.07	-	-

주: 지원금 비율=전체지원금총액/(전체지원금총액+매출액총액).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 지역별,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3)

<표 부가분석 2-2> 지원금 총액 분석

(단위: 천 원, %)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전체 지원금	지역	82,330,050	16,165,937	8,944,722	14,532,029	13,370,431	15,591,580	8,820,956	1,391,329	52,560,641	15,127,563	11,847,921	12,348,701	25,200,070	12,574,287	29,552,426	21,137,495	14,252,635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원 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973,852	46,784,326	10,175,287	39,786,242	38,392,308	24,081,672	8,235,082	24,334,214	420,856	11,813,971	116,638,841	12,332,224	9,873,427	-	1,156,058	1,855,523	2,884,891
정부 지원금	지역	36,802,745	13,638,462	7,955,474	10,272,972	11,446,029	11,205,345	7,965,760	1,320,480	41,066,220	12,565,471	9,672,032	10,692,761	23,382,212	11,257,251	24,276,183	19,635,130	12,015,160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의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5,704,715	31,367,094	7,188,564	19,641,903	31,580,933	19,671,165	7,359,188	19,352,409	278,686	5,544,308	97,641,229	7,805,100	8,546,169	-	694,063	939,713	1,874,450
민간 지원금	지역	45,527,304	2,527,475	989,248	4,259,057	1,924,402	4,386,235	835,196	70,848	11,484,422	2,562,091	2,175,889	1,655,940	1,817,858	1,317,037	5,276,244	1,502,366	2,237,475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의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1,269,137	15,417,233	2,986,724	20,144,339	6,811,375	4,410,507	875,894	4,981,804	142,170	6,269,663	18,997,612	4,527,124	1,327,258	-	461,965	915,810	1,010,441
비율	지역	0.04	0.08	0.06	0.04	0.05	0.08	0.07	0.03	0.03	0.05	0.05	0.06	0.07	0.05	0.05	0.07	0.12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처리, 의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0.03	0.13	0.10	0.02	0.07	0.04	0.08	0.10	0.03	0.07	0.04	0.08	0.16	-	0.05	0.03	0.0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제3장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 분석

제3장에서는 인증사회적기업이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사회적성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으로 통합해 보람되고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적 투자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사회통합을 구현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가치(편익)창출의 성과는 경제적성과 만큼 중요하다. 여기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성과를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제1절 취약계층의 고용

사회적기업은 복합적인 정책목표를 추구하나, 기본적으로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해왔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들을 지역사회에 통합하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성과이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는 점인데, 2010년부터는 목적 유형별로 취약계층 의무고용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취약계층은 ① 저소득자³⁾, ② 고령자, ③ 장애인, ④ 성매매피해자, ⑤ 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⑥ 북한이탈주민, ⑦ 가정폭력피해자, ⑧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⑨ 결혼이민자,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범죄구조피해자, ⑫ 그 밖의 취약계층 등 12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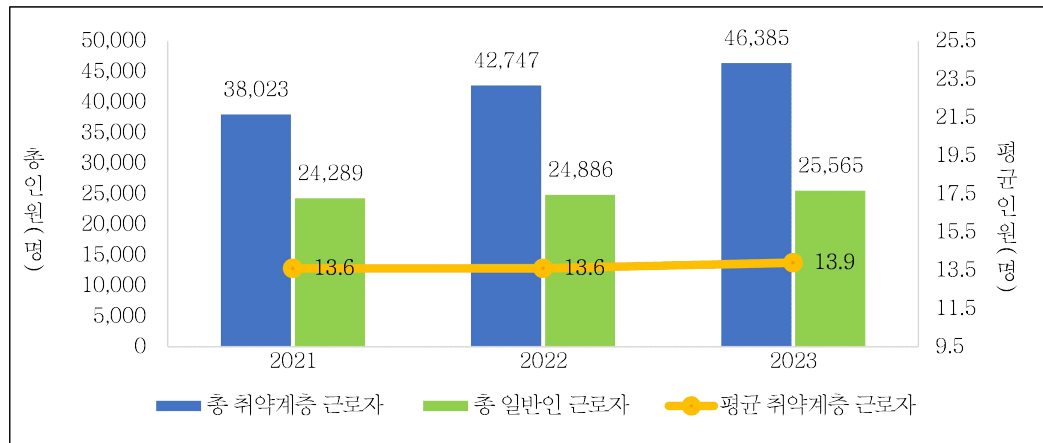
3)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사회적기업이 고용한 전체 유급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림 3-1]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2021~2023년 취약계층 근로자 및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취약계층 근로자는 46,385명으로 전체 유급근로자 수 71,950명의 64.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의 경우 총 취약계층 근로자는 2022년 42,747명 대비 3,638명(약 8.5%) 증가하였고, 총 일반근로자는 25,565명으로 2022년 대비 679명(약 2.7%)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기업당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13.9명으로 2022년 13.6명에 비하여 약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연도별 취약계층, 일반인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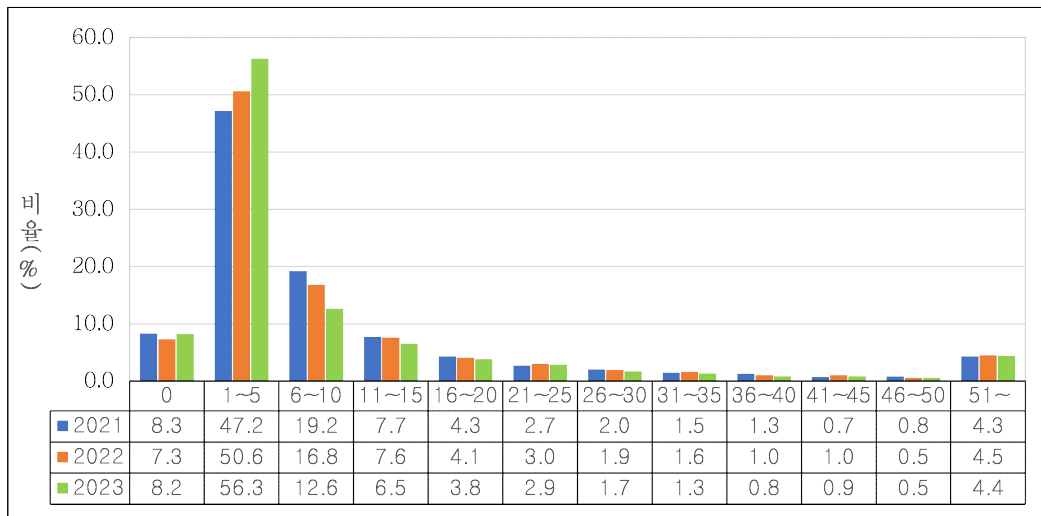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사회적기업 규모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살펴보면, [그림 3-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취약계층 근로자 10인 이하 채용 기업의 비중이 약 77.2%에 달해 소규모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취약계층 근로자가 5인 이하인 사회적기업이 약 64.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취약계층 근로자를 50인 초과하여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약 4.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별 사회적기업 비율

(단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은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결과이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2023년 취약계층 근로자 중 약 34.3%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편중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사회문제 수요도 크지만, 동시에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근로자 수가 많은 서울, 경기 등의 수도권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역시 약 35.4%로 높게 나타나 사회적기업 내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해당 지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기초생활수급자 수

(단위: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수		기초생활수급자 수	
서울	11,020	16.5	418,212	17.0
부산	1,736	4.6	230,100	9.4
대구	876	3.7	149,706	6.1
인천	2,778	5.9	167,473	6.8
광주	1,192	4.2	94,051	3.8
대전	1,475	3.2	74,348	3.0
울산	985	3.1	42,577	1.7
세종	876	0.8	8,082	0.3
경기	12,672	17.8	452,805	18.4
강원	2,303	5.5	82,055	3.3
충북	1,471	4.2	76,073	3.1
충남	1,307	4.2	87,637	3.6
전북	1,654	5.8	126,481	5.1
전남	1,029	5.6	101,803	4.1
경북	2,316	7.2	143,562	5.8
경남	1,918	5.4	170,441	6.9
제주	777	2.4	33,202	1.4
전체	46,385	100.0	2,458,608	100.0

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는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을 재구성.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보건복지부(2023)

<표 3-2>와 [그림 3-3]은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취약계층 고용 규모의 경우 전체 고용 규모는 매년 증가하였고, 고용 평균은 2022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이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2022년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2009년 인증기업의 평균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44.6명으로 가장 높았고 2007년 33.9명, 2008년 27.8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2>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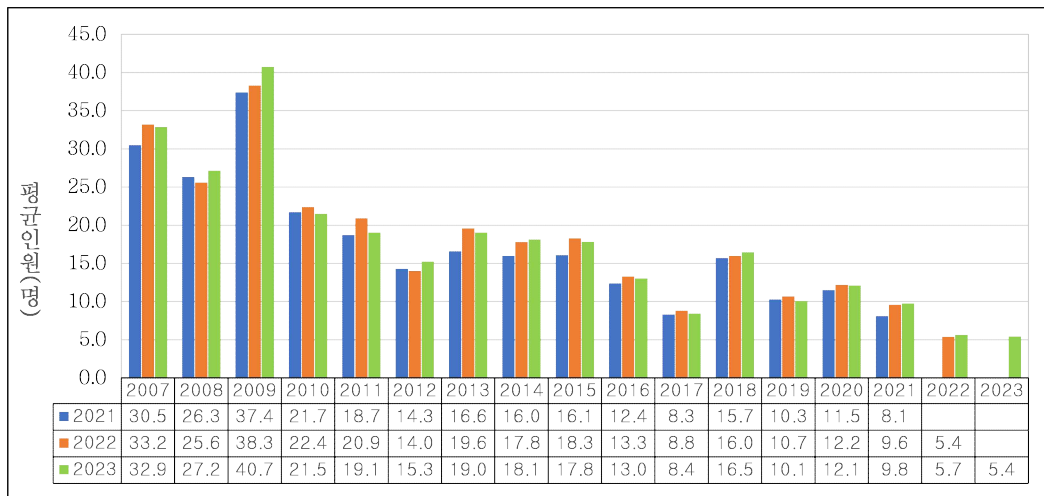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 유급근로자
2007	975	30.5	1,029	33.2	1,052	33.9
2008	2,187	26.3	2,329	25.6	2,498	27.8
2009	1,496	37.4	1,646	38.3	1,873	44.6
2010	2,257	21.7	2,421	22.4	2,495	24.0
2011	1,607	18.7	1,710	20.9	1,715	21.2
2012	1,330	14.3	1,361	14.0	1,556	16.4
2013	2,816	16.6	3,170	19.7	3,066	20.3
2014	2,847	16.0	3,130	17.8	3,172	19.2
2015	3,183	16.1	3,411	18.3	3,422	19.0
2016	2,348	12.4	2,504	13.3	2,581	14.7
2017	1,678	8.3	1,708	8.8	1,662	9.6
2018	3,837	15.7	3,909	16.0	4,261	18.5
2019	3,392	10.3	3,361	10.7	3,327	11.3
2020	4,386	11.5	4,586	12.2	4,770	13.2
2021	3,684	8.1	4,383	9.6	4,593	10.5
2022	-	-	2,089	5.4	2,329	6.1
2023	-	-	-	-	2,013	5.8
계	38,023	13.6	42,747	13.6	46,385	13.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편 [그림 3-3]에서는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이 최근 인증받은 기업에 비해 취약계층 고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이는 사회적기업에서 취약계층고용 경험이 누적될수록 취약계층 고용을 점차 늘려나간 결과일 수도 있고, 인증연도별 시장 및 정책 환경에 따라 사회적기업에 진입한 기업들의 규모 자체에 편차가 달랐던 결과일 수도 있기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3-3] 인증연도별 평균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 추이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표 3-3>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제시한 결과이다.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평균수를 보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2023년 기준으로는 혼합형이 평균 1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제공형이 평균 15.8명, 사회서비스제공형이 평균 14.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총수를 기준으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37,39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일자리제공형이 혼합된 혼합형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유형에 취약계층 고용이 집중된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 고용 비율이 각각 30%, 20%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경우, 고용한 절대적 수는 적지만 매년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지역사회공헌형은 취약계층 평균 유급 근로자 수가 2023년 3.7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기타(창의·혁신)형은 취약계층 평균 근로자 수가 2023년 4.9명으로 인증유형 중 두 번째로 적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도 1,189명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고용 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회적기업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사업의 특성상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계량화하기 어려우나, 혁신적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 등이 해당된다.

취약계층 고용에 기여하는 바는 적지만, 새로운 공공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증진과 사회적경제 생태계 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3>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일자리제공형	31,033	15.6	34,700	15.5	37,394	15.8
사회서비스제공형	2,422	14.7	2,787	13.7	3,315	14.0
혼합형	2,881	15.5	3,105	16.3	3,395	17.8
기타(창의·혁신)형	948	4.1	1,169	4.7	1,189	4.9
지역사회공헌형	789	3.6	996	3.7	1,092	3.7
전체	38,023	13.6	42,747	13.6	46,385	13.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4>는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고용현황을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유급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평균 약 30.7명으로 가장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법상법인(18.8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17.7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15.7명), 상법상회사(12.8명), 비영리민간단체(5.7명), 영농조합법인(5.2명) 순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 유급근로자를 가장 많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형태는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상법상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3년 현재 전체 취약계층 근로자의 약 62.3%인 28,888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취약계층 근로자 수를 2022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4>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수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총유급 근로자	평균유급 근로자
민법상법인	4,615	15.0	5,024	18.6	5,274	18.8
비영리민간단체	355	6.6	222	5.0	239	5.7
사회복지법인	2,230	31.0	2,343	31.7	2,242	30.7
상법상회사	23,573	12.9	27,122	12.8	28,888	12.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82	16.5	169	15.4	177	17.7
영농조합법인	416	4.6	499	4.4	523	5.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557	15.8	7,368	14.4	9,042	15.7
기타	95	23.8	-	-	-	-
전체	38,023	13.6	42,747	13.6	46,385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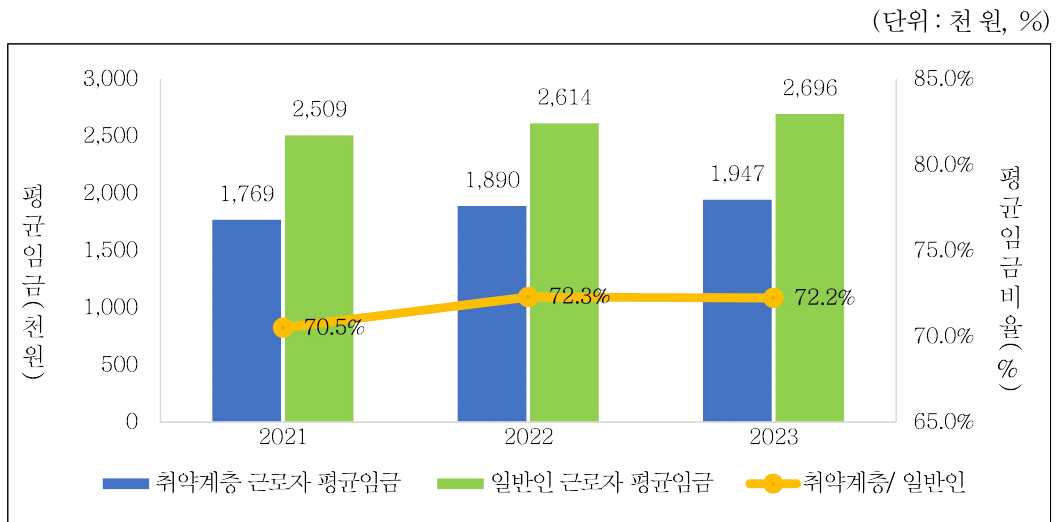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2.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임금 및 근로시간

앞서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성과를 양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본 절에서는 임금수준 및 근로시간과 같은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한다면, 이는 개인 근로자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전체 사회통합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림 3-4]는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연도별로 제시한 결과이다. 먼저 2021~2023년 취약계층과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수준은 약소하게 증가하였으나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2023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7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하였고,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195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3.1% 증가하여 일반인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연도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의 <표 3-5>는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임금과 임금 격차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강원이 271만 3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236만 원), 대전(208만 2천 원), 전북(205만 1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157만 1천 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임금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의 경우, 강원이 313만

8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북, 경기(289만 1천 원), 제주(277만 4천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205만 5천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을 상회하고 있다. 일반인과 취약계층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98만 3천 원)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서울(93만 원), 제주(89만 2천 원), 경기(84만 9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임금 격차는 2022년 72만 4천 원에서 2023년 74만 9천 원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3-5>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평균 임금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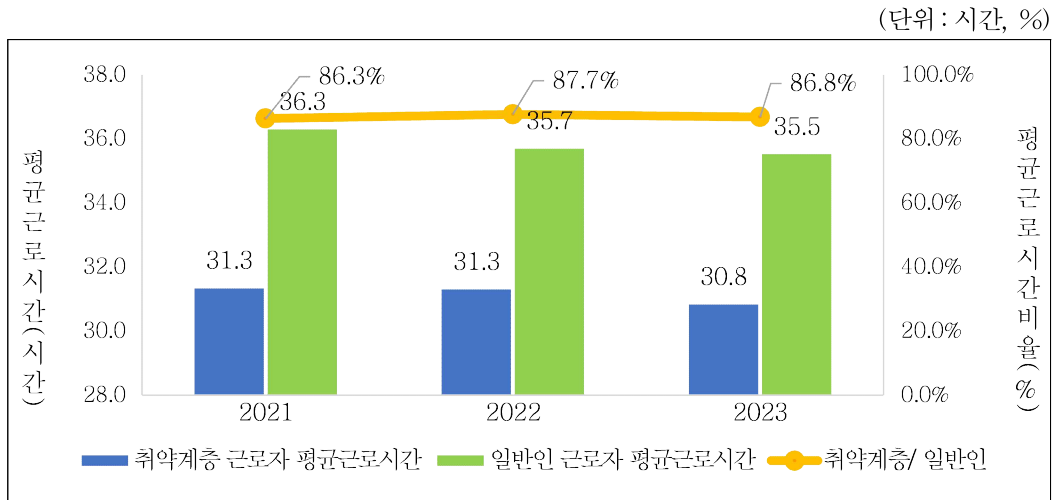
구분	취약계층 평균임금		일반인 평균임금		일반인-취약계층 임금격차	
	금액	순위	금액	순위	금액	순위
서울	1,736	15	2,665	9	929	2
부산	1,571	17	2,055	17	484	13
대구	1,753	14	2,202	16	449	15
인천	1,719	16	2,361	13	642	7
광주	1,764	12	2,751	5	987	1
대전	2,082	3	2,740	6	658	6
울산	1,846	11	2,314	15	468	14
세종	1,763	13	2,324	14	561	10
경기	2,042	5	2,891	3	849	4
강원	2,713	1	3,138	1	425	17
충북	1,945	8	2,739	7	794	5
충남	1,930	9	2,514	11	584	9
전북	2,051	4	2,666	8	615	8
전남	1,958	7	2,517	10	559	11
경북	2,360	2	2,891	2	531	12
경남	1,974	6	2,414	12	440	16
제주	1,872	10	2,774	4	902	3
전체	1,947		2,696		74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그림 3-5]와 같다. 2023년 취약계층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0.8시간이었으며, 주당 평균 35.5시간을 일하는 일반인 근로자보다 4.7시간가량 적게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3년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추이를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는 2021년 36.3시간에서 2022년 35.7시간, 2023년 35.5시간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2021년과 2022년에는 31.3시간에서 2023년에는 30.8시간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인 근로자 대비 취약계층 근로자 근로시간의 비율은 소폭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최근 3년간 86~87%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림 3-5]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지역별 주당 평균 근로시간 현황을 살펴본다. 다음의 <표 3-6>은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및 순위를 나타낸 표이다. 먼저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은 강원에서 34.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이 28.2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은 제주가 38.1시간으로 가장 길었으며 부산이 31.8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인과 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광주와 제주(7.0시간)이었으며, 그다음으로 충북(6.6시간), 서울, 인천(6.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표 3-6> 지역별 취약계층 및 일반인 근로시간

(단위: 시간)

구분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 평균 근로시간		일반인-취약계층 근로시간 격차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시간	순위
서울	29.0	16	35.0	13	6.0	4
부산	28.2	17	31.8	17	3.6	12
대구	30.9	11	35.4	10	4.5	7
인천	29.3	15	35.3	11	6.0	5
광주	29.7	14	36.7	7	7.0	1
대전	34.3	2	37.1	4	2.8	16
울산	32.3	5	35.4	9	3.1	14
세종	31.8	7	34.1	16	2.3	17
경기	31.4	8	35.1	12	3.7	11
강원	34.4	1	37.4	3	3.0	15
충북	30.4	13	37.0	5	6.6	3
충남	30.8	12	35.0	14	4.2	9
전북	32.1	6	36.8	6	4.7	6
전남	33.3	3	37.8	2	4.5	7
경북	32.3	4	36.2	8	3.9	10
경남	31.0	10	34.5	15	3.5	13
제주	31.1	9	38.1	1	7.0	2
전체	30.8		35.5		4.7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근로시간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연도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다음의 <표 3-7>과 같다.

2023년의 경우, 2015년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평균임금이 약 249만 5천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2013년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약 164만 2천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의 취약계층 평균 근로시간이 34.4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08년 인증기업의 경우 27.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전반적으로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 유지 후 2023년 소폭 감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인증연도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2007	1,701	31.3	1,958	30.7	2,010	31.8
2008	1,500	28.7	1,606	28.4	1,670	27.3
2009	1,604	29.2	1,670	28.2	1,757	27.5
2010	2,027	33.6	2,273	31.9	2,207	31.8
2011	1,626	32.3	1,779	32.0	1,840	32.6
2012	1,726	30.8	1,896	31.7	1,843	29.5
2013	1,496	28.8	1,572	28.3	1,642	27.4
2014	1,577	28.7	1,751	30.0	1,811	28.5
2015	2,297	34.9	2,386	34.4	2,495	34.4
2016	1,726	32.0	1,831	31.8	1,933	32.0
2017	1,897	32.5	1,960	31.8	2,045	31.0
2018	1,712	30.5	1,829	30.9	1,896	31.6
2019	1,673	29.9	1,829	30.7	1,885	30.0
2020	1,956	33.1	2,103	32.9	2,228	32.2
2021	1,728	32.3	1,779	31.9	1,813	30.7
2022	-	-	1,853	32.5	1,918	33.1
2023	-	-	-	-	1,860	31.3
계	1,769	31.3	1,890	31.3	1,947	30.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인증유형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에 대하여 살펴본다. <표 3-8>은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인증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정리한 결과이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기타(창의·혁신)형에서 228만 4천 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214만 5천 원), 일자리제공형(197만 9천 원), 사회서비스제공형(171만 3천 원), 혼합형(164만 7천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34.4시간), 일자리제공형(31.5시간), 기타(창의·혁신)형(30.1시간), 사회서비스제공형(28.2시간), 혼합형(25.6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에 유지되다가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인증유형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1,800	31.9	1,924	31.9	1,979	31.5
사회서비스제공형	1,525	27.6	1,637	27.1	1,713	28.2
혼합형	1,499	27.0	1,560	26.3	1,647	25.6
기타(창의·혁신)형	1,937	32.7	2,177	31.9	2,284	30.1
지역사회공헌형	2,070	36.2	2,095	34.4	2,145	34.4
전체	1,769	31.3	1,890	31.3	1,947	30.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마지막으로 <표 3-9>의 조직형태에 따른 취약계층 근로자의 연도별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살펴본다. 2023년 기준 영농조합법인의 평균임금이 227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상법상회사(213만 8천 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173만 4천 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의 경우 2022년 36.9시간으로 가장 길었던 영농조합법인이 2023년에도 36.4시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25.7시간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취약계층의 평균임금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평균 근로시간은 2022년에 유지되다가 2023년에는 소폭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조직형태별 취약계층 유급근로자 평균 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구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민법상법인	1,472	29.0	1,582	28.5	1,620	27.4
비영리민간단체	1,367	25.6	1,450	26.3	1,611	25.7
사회복지법인	1,369	30.4	1,385	30.2	1,437	29.7
상법상회사	1,929	32.5	2,062	32.6	2,138	3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87	31.8	1,662	31.2	1,734	31.3
영농조합법인	2,100	37.3	2,172	36.9	2,270	36.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53	29.2	1,626	28.4	1,650	28.2
기타	1,202	20.9	-	-	-	-
전체	1,769	31.3	1,890	31.3	1,947	30.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제2절 사회서비스 제공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제공 성과를 살펴볼 것이다. 사회적기업은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명 역시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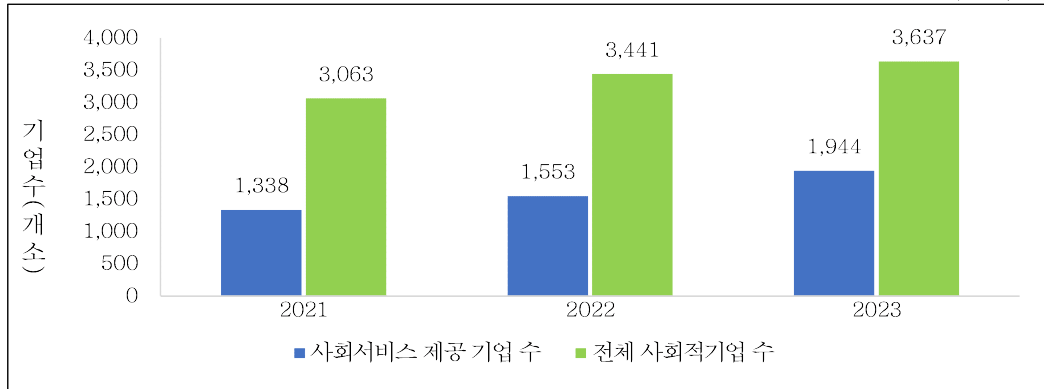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3조에서 정의하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보육, 예술·관광 및 운동, 산림 보전, 간병·가사, 문화재(국가유산)보존,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서비스, 고용서비스 등을 말한다.

사업보고서의 사회서비스 제공은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기타(창의·혁신)형의 경우 사회서비스 실적이 있는 경우 작성하도록 지침이 내려지고 있어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본 절에서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격적으로 주요 사회적기업에 초점을 맞추기 전 전체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다음 [그림 3-6]에는 최근 3년간의 전체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2023년의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은 1,944개소로 전년 대비 391개소(2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2023년에 전체 인증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의 비율은 2021년 43.7%에서 2022년 45.1%로 증가하였고, 2023년 5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및 사회적기업의 수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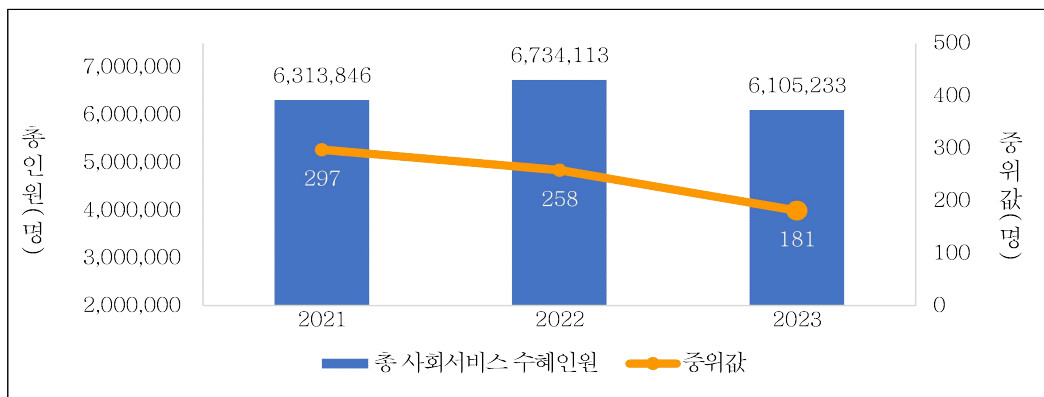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 [그림 3-7]은 최근 3년간의 전체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수 및 중위값을 제시한 것이다. 2023년의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약 615만 명으로 2021~2022년의 약 631만~약 637만 명 수준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중위값은 2021년 297명에서 2022년 258명으로 감소하였으며, 2023년 181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방역, 청소 등의 사회서비스 수요가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영향이 사라진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기간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총 수혜인원과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2023년에는 팬데믹 완화로 해당 서비스의 수요가 줄어들며 수혜인원 역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전체 사회적기업

(단위: 명)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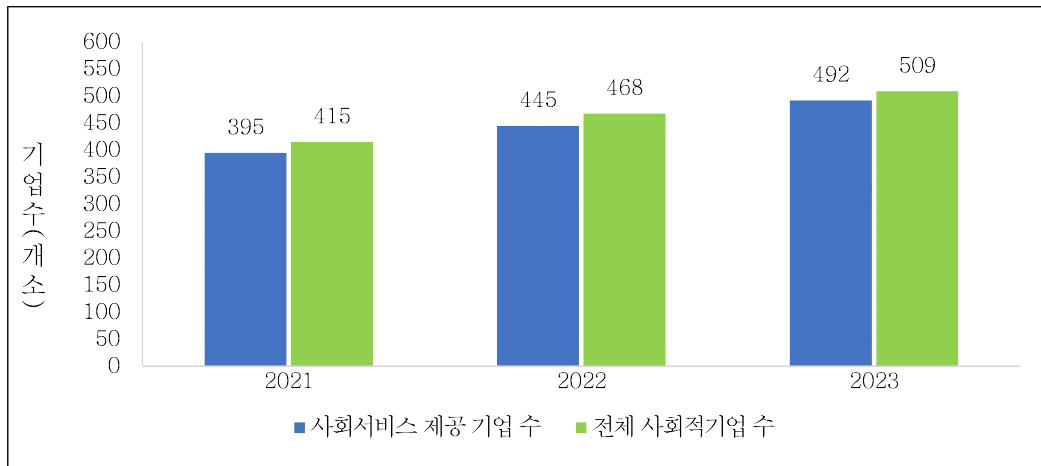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이처럼 인증사회적기업 전체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이하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에 대한 작성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림 3-8]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은 2021년 395개소에서 2022년 445개소, 2023년 492개소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사회서비스 실적 제공 의무가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사회적기업의 약 95.0% 이상(2021년 95.2%, 2022년 95.1%, 2023년 96.7%)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는 사회서비스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의 <표 3-10>은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경기가 84개소(17.1%)로 가장 많았고, 서울 80개소(16.3%), 전북 37개소(7.5%) 순으로 나타났다. 총 492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중 33.4%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세종의 경우 0개소(0.0%)와 대구의 경우 11개소(2.2%)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등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는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표 3-10> 지역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 및 비율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

구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기업 수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서울	80	16.3	2	13.4	10
부산	36	7.3	4	21.3	1
대구	11	2.2	16	8.3	15
인천	22	4.5	10	10.3	12
광주	28	5.7	6	18.3	3
대전	21	4.3	11	17.9	4
울산	23	4.7	9	20.2	2
세종	0	0.0	-	0.0	-
경기	84	17.1	1	13.0	11
강원	29	5.9	5	14.5	7
충북	27	5.5	8	17.8	5
충남	15	3.0	14	9.9	14
전북	37	7.5	3	17.5	6
전남	28	5.7	6	13.9	8
경북	19	3.9	13	7.3	16
경남	20	4.1	12	10.3	13
제주	12	2.4	15	13.6	9
전체	492	100.0	-	13.5	-

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비율은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비율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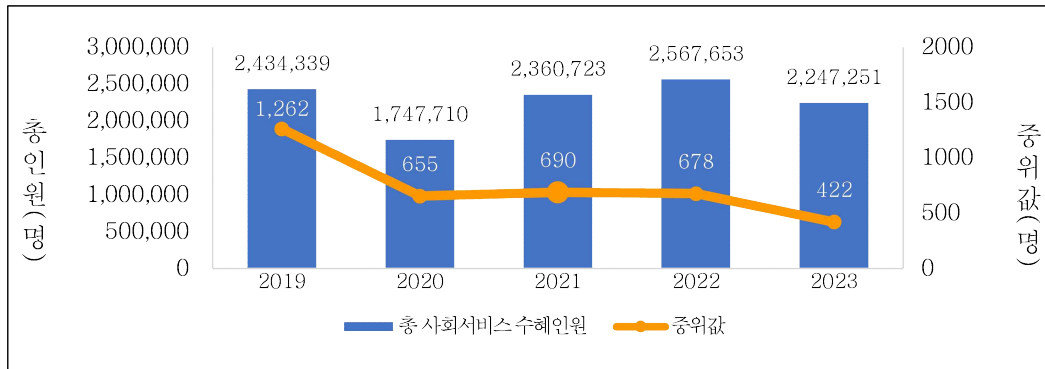
한편 전체 지역별 사회적기업 대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비율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비율 순위와 상이하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충북의 경우 지역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 대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의 비율이 각각 21.3%, 20.2%, 18.3%, 17.9%, 17.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양적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이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율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전체 사회서비스 수요 대비 공급 현황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그림 3-9]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추이를, [그림 3-10]은 청소 분야 사회서비스 인원의 변화를 보여준다. 2023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은 약 224만 7천 명으로, 2021~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방역과 소득 등 청소분야 사회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일시적으로 수혜 인원이 증가했으나, 팬데믹 완화로 해당 서비스 제공이 축소되면서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연도별 사회서비스 총 수혜 인원 및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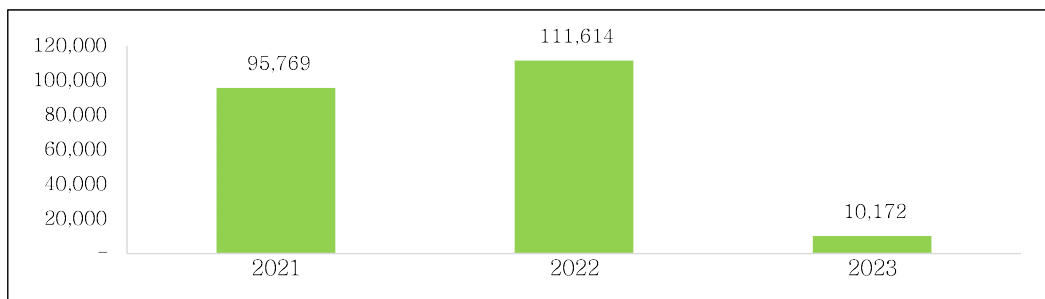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2022, 2023)

[그림 3-10] 청소 분야 사회서비스 총 수혜인원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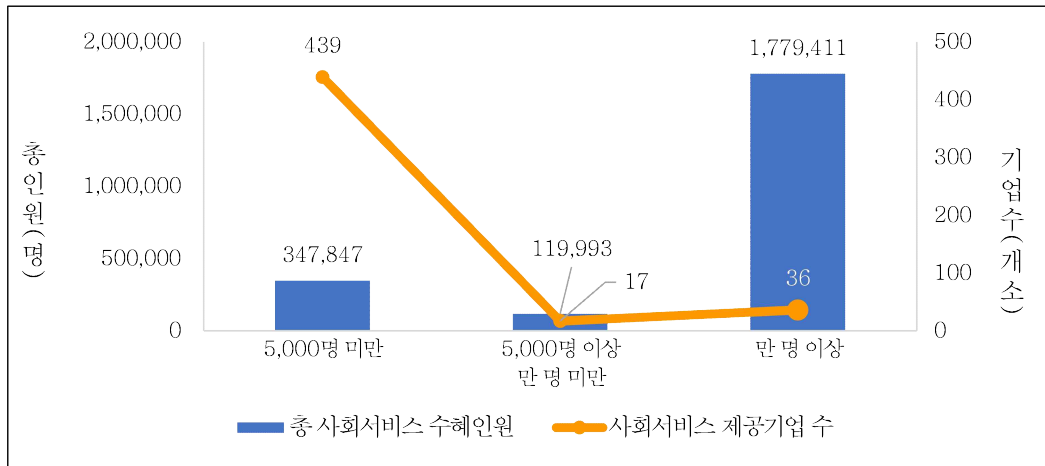


주: 2021~2023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804개 사회적기업 대상.

다음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서비스제공 기업과 수혜 인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그림 3-11]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사회적기업의 수와 총 수혜 인원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2023년 5천 명 미만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 439개소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89.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1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명 이상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36개소로 7.3%를 차지하고 있으나 수혜 인원의 약 79.2% 정도가 만 명 이상 제공 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일반 대중을 위한 공연 등과 같이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수의 사회적기업으로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11]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규모별 제공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사회적기업이 제공한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을 지역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3-11>과 같다.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 수혜 인원의 24.3%가 속한 경기도가 약 54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서울(17.6%), 부산(13.5%)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 지역은 전체 수혜 인원의 0.3%인 약 5천 9백 명으로 가장 적은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이 나타났으며, 수혜인원이 적은 지역은 경남(0.3%), 광주, 경북(1.1%), 대전(1.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역의 총인구가 사회서비스 수요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중 일부이기 때문에 지역별 인구수와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수혜자 수를 비교해 설명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많은 지역에서 지역별 인구수 비율보다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부산, 울산, 전북, 강원, 충북, 충남의 경우 지역별 인구수 비율 대비 사회서비스 수혜자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지역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및 지역 인구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명, %)

구분	사회서비스 수혜자			2023 인구주택총조사		
	인원	비율	순위	인원	비율	순위
서울	394,564	17.6	2	9,384,512	18.1	2
부산	303,040	13.5	3	3,279,604	6.3	3
대구	67,743	3.0	10	2,379,188	4.6	7
인천	70,240	3.1	9	3,025,950	5.8	5
광주	24,246	1.1	14	1,457,090	2.8	14
대전	27,086	1.2	12	1,470,336	2.8	13
울산	182,151	8.1	4	1,107,432	2.1	15
세종	-	-	-	386,261	0.7	17
경기	546,322	24.3	1	13,815,367	26.7	1
강원	111,408	5.0	8	1,528,014	3.0	12
충북	116,709	5.2	7	1,641,481	3.2	11
충남	136,661	6.1	6	2,216,332	4.3	8
전북	166,841	7.4	5	1,768,491	3.4	10
전남	62,680	2.8	11	1,776,668	3.4	9
경북	24,601	1.1	13	2,589,880	5.0	6
경남	7,012	0.3	15	3,271,148	6.3	4
제주	5,947	0.3	16	676,767	1.3	16
전체	2,247,251	100.0	-	51,774,521	100.0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통계청(2024) 2023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살펴본다. 먼저 <표 3-12>는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연도별로 구분한 결과이다.

2023년의 경우, 사회서비스를 가장 많이 제공한 기업은 2021년 인증기업이 62개소, 2022년 인증기업이 56개소, 2023년 인증기업이 49개소, 2008년 인증기업이 4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2007년이 2,335명으로 가장 높았고, 2013년(970명), 2008년(906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기업들이 소규모이거나 수혜 인원이 적은 형태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3-12> 인증연도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2007	14	1,704	14	780	14	2,335
2008	41	1,764	40	1,039	42	906
2009	14	995	15	363	16	382
2010	15	288	15	408	14	472
2011	10	1,616	9	1,396	10	769
2012	14	450	15	672	14	552
2013	22	985	21	1,433	20	970
2014	8	465	9	480	9	600
2015	30	1,150	28	1,408	28	293
2016	34	573	35	727	36	628
2017	26	999	20	396	19	245
2018	26	720	26	819	26	295
2019	37	570	35	591	36	360
2020	43	540	41	540	41	616
2021	61	601	64	1,037	62	342
2022	-	-	58	698	56	241
2023	-	-	-	-	49	264
전체	395	690	445	820	492	422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3>은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의 중위값을 사회적기업 인증유형별로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사회서비스제공형은 299개소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480명으로 전체 중위값 422명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반면 혼합형의 경우 193개소의 기업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수혜 인원 중위값은 347명으로 전체 중위값보다 다소 낮게 나타났다. 2023년 사회서비스제공형의 제공기업 수는 2022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수혜 인원 중위값은 감소 하였으며, 혼합형의 경우 제공기업 수는 소폭 증가하나 수혜 인원 중위값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3-13> 인증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일자리제공형	-	-	-	-	-	-
사회서비스제공형	212	880	258	1,080	299	480
혼합형	183	487	187	476	193	347
기타(창의·혁신)형	-	-	-	-	-	-
지역사회공헌형	-	-	-	-	-	-
전체	395	690	445	820	492	422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4>는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업과 수혜 인원을 정리한 것이다. 2023년 기준 상법상회사가 292개소로 가장 많았고, 일반/사회적협동조합(118개), 민법상법인(61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 인원 중위값은 민법상법인이 804명으로 가장 높았고 영농조합법인(719명), 일반사회적협동조합(419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021~2023년 동안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일반/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회사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그 외 조직형태는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인원 중위값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고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팬데믹 당시 필수로 여겨졌던 방역 및 소득 관련 조치가 종료되고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관련 지원의 필요성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

<표 3-14>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및 수혜 인원 중위값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제공기업	수혜 인원 중위값
민법상법인	63	935	56	1,267	61	804
비영리민간단체	20	740	17	1,140	15	366
사회복지법인	4	1,333	5	363	4	317
상법상회사	228	534	264	578	292	39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	6,902	1	7,563	-	-
영농조합법인	3	650	3	379	2	71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6	976	99	1,204	118	419
기타	-	-	-	-	-	-
전체	395	690	445	820	492	422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마지막으로 <표 3-15>에는 2021~2023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사회적기업 성과 분석의 기초분석은 사업보고서에 포함된 각 연도의 모든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분석 연도별로 분석대상이 달라지며, 사회적기업의 성과가 시계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1~2023년 3개년의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를 결합하여 시계열 데이터로 구성하고,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804개 인증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와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객관적 기준보다는 기업 나름의 임의적 기준으로 성과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 자료의 신뢰성이 다소 낮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3개년 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표 3-1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 및 수혜 인원 증위값 추이: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명)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증위값	기업 수	증위값	기업 수	증위값
인증 연도	2007	14	1,704	14	780	14	2,335
	2008	40	1,672	39	998	42	906
	2009	14	995	14	467	16	382
	2010	14	337	14	677	14	472
	2011	10	1,616	9	1,396	10	769
	2012	14	450	14	717	14	552
	2013	20	985	19	1,540	20	970
	2014	8	465	8	440	8	1,041
	2015	27	1,439	26	1,396	27	288
	2016	34	573	34	994	36	628
	2017	22	1,459	19	412	19	245
	2018	26	720	26	819	26	295
	2019	35	570	34	537	35	354
	2020	40	595	40	559	40	638
	2021	61	602	64	1,037	62	342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206	924	205	1,169	206	518
	혼합형	173	479	169	482	177	36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2	1,130	53	1,440	55	944
	비영리민간단체	15	385	15	580	15	366
	사회복지법인	4	1,333	4	31,737	4	317
	상법상회사	224	560	218	578	226	4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	-	-	-	-
	영농조합법인	3	650	3	379	2	719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1	1,005	81	1,462	81	430
	기타	-	-	-	-	-	-
전체		379	690	374	850	383	463

주: 2021-2023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804개 사회적기업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보고가 의무화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만 포함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반드시 기록하게 되어 있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수는 2021년 379개소에서 2022년 374개소로 감소하였다. 2023년에는 383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수혜 인원 증위값은 2021년 690명에서 2022년 850명, 2023년 463명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인증연도별로는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의 추이가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2021~2023년 동안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이 변동 추세를 보였으나, 2009년, 2011년, 2015년, 2017년 인증기업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제공기업 수는 유지되거나 소폭 증감이 있었으며,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위값은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조직형태에서 2022년에 증가한 후, 2023년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어떤 대상층에 주로 제공되었는지 분석한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인증유형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규정해두고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사회적기업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은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고, 혼합형은 2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need)가 취약계층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 지역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아닌 이들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역시 이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복지 욕구 및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게 되면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대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 방향으로 갈 것이다. 새로운 사회서비스 욕구(need)를 발굴하고 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향후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그림 3-12]은 최근 3년간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로 사회적기업의 수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일반인과 취약계층으로 구분해 살펴본 결과, 2023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479개소였고, 일반인이 수혜대상인 기업은 178개소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약 2.7배 정도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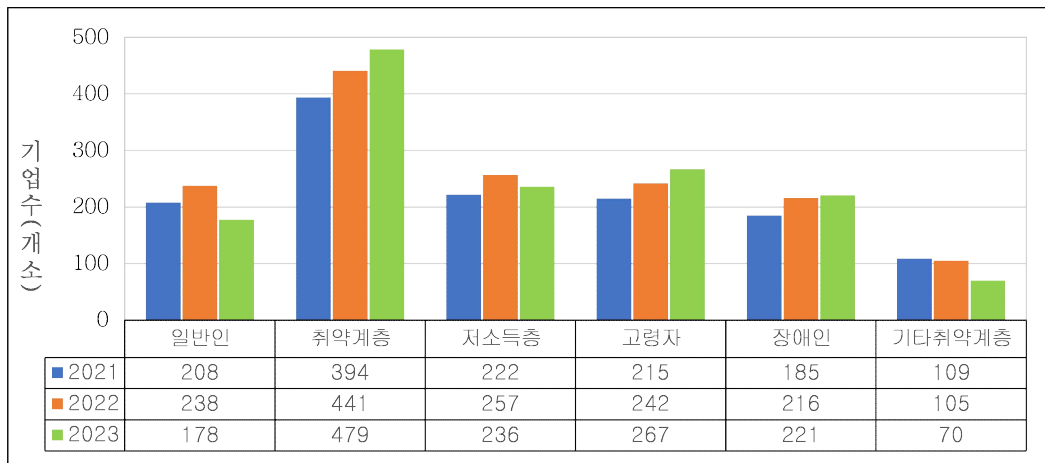
이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는데,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 인증 시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 수혜 비율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반적인 사회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하고,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려는 한국의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우선 대상은 그 수요(need)가 더 큰 취약계층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간 추이를 보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각각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4.4%(30개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5.2%(60개소) 감소하였으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2년에 전년 대비 11.9%(47개소)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8.6%(38개소) 증가하였다.

취약계층은 다시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기타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기타취약계층, 저소득층을 제외한 고령자,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정 취약계층이 아닌 보다 다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점차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으로 고령자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이 267개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저소득층 대상 236개소, 장애인 대상 221개소, 기타 취약계층 대상 70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2]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1: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주2: 기타취약계층 - 성매매피해자, 청년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피해자, 한부모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경쟁보호대상자, 장기실업자, 범죄구조피해기타, 수형자, 소년원생, 보호관찰정소년, 노숙자, 약물중독자, 선천성 혹은 후천성질환자, 여성가장 등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6>은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의 수를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모든 지역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같거나 더 많아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고려가 나타나고 있었다.

2023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는 경기도가 81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지역이 76개소, 전북 지역이 36개소로 그 뒤를 이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역시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경기 지역에 34개소, 서울 지역에 2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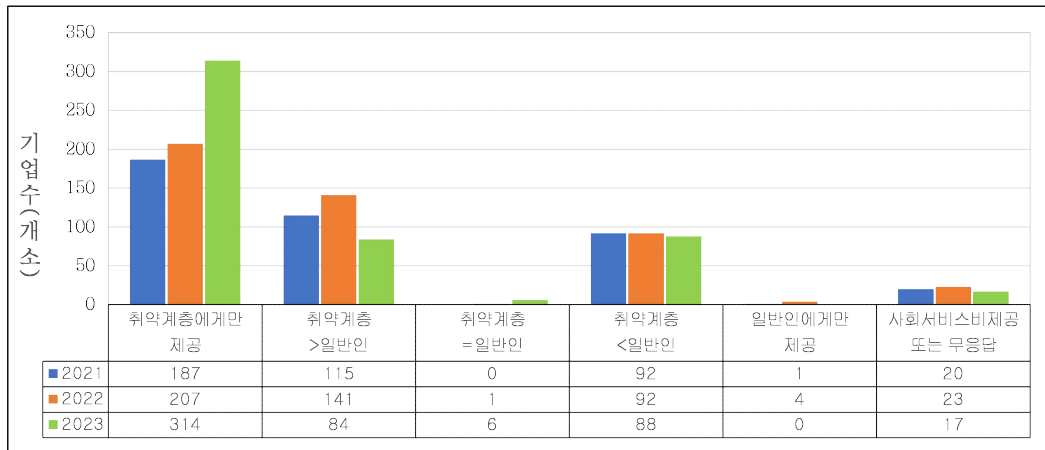
<표 3-16>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유형별 사회적기업의 수: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구분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	일반인 서비스제공 사회적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사회적	
		기업 수	순위	기업 수	순위
서울	80	27	2	76	2
부산	36	17	3	35	4
대구	11	4	16	11	16
인천	22	7	10	21	10
광주	28	7	10	28	6
대전	21	10	5	21	10
울산	23	7	10	23	9
세종	0	0	17	0	17
경기	84	34	1	81	1
강원	29	10	5	29	5
충북	27	10	5	27	7
충남	15	8	9	14	14
전북	37	13	4	36	3
전남	28	5	13	27	7
경북	19	9	8	19	12
경남	20	5	13	19	12
제주	12	5	13	12	15
전체	492	178	-	479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3-13]는 일반인과 취약계층 중 누구를 대상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지를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응답한 대부분 기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취약계층에게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314개소)이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일반인에게 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88개소)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보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추세임이 나타났다.

[그림 3-13] 연도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7>은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과 취약계층에게 중심으로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지역별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결과들과 모든 지역에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7> 지역 및 사회서비스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개소)

구분	취약계층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만 제공 포함)	일반인에 더 많이 사회서비스제공(일반인만 제공 포함)
서울	65	15
부산	25	11
대구	9	2
인천	18	4
광주	25	1
대전	16	5
울산	18	5
세종	0	0
경기	67	16
강원	23	6
충북	23	2
충남	8	7
전북	32	4
전남	25	3
경북	16	3
경남	18	2
제주	10	2
전체	398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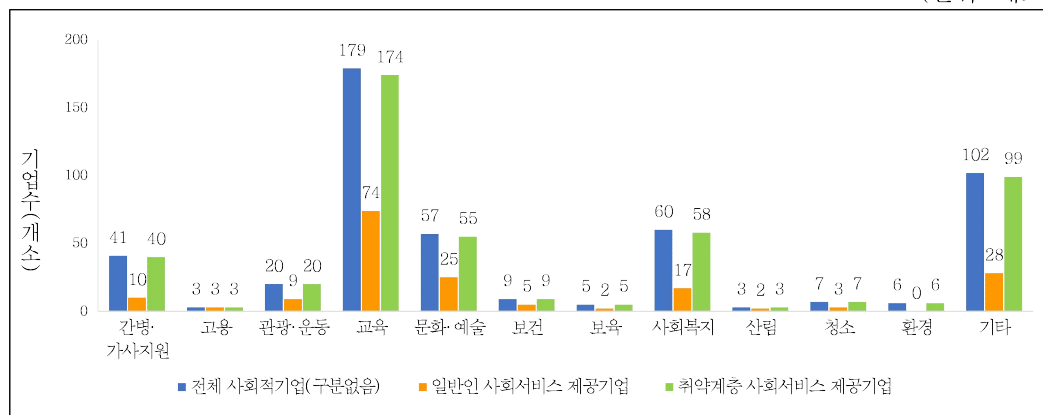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3-14]과 [그림 3-15]는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일반인에게(혹은 위주로), 취약계층에게(혹은 위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수치를 분류·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유형은 교육(179개소)이었으며, 기타(102개소), 사회복지(60개소), 문화·예술(57개소), 간병·가사지원(41개소) 순으로 높았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 역시 전체적 분포와 거의 동일하게 교육(174개소)이었으며, 기타(99개소), 사회복지(58개소), 문화·예술(55개소), 간병·가사지원(40개소) 순으로 높았다. 일반인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는 교육(74개소), 기타(28개소), 문화·예술(25개소), 사회복지(17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4]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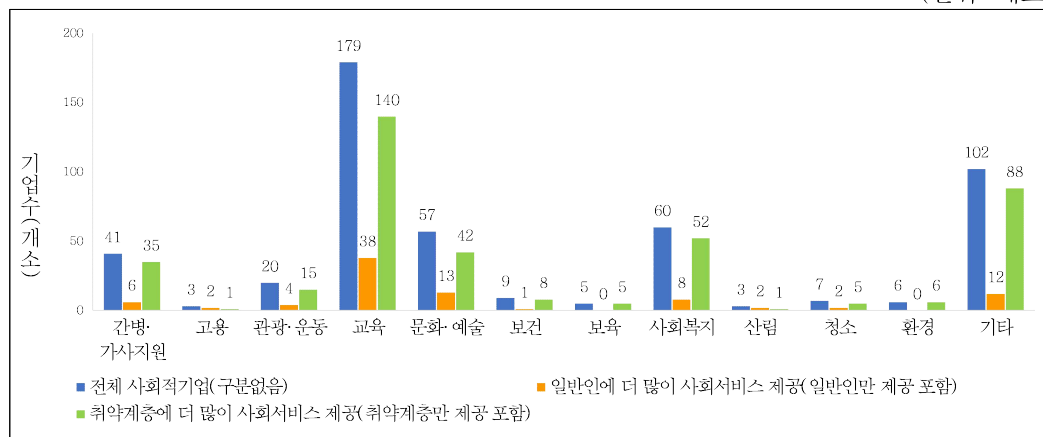


주: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3-15]를 보면,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로는 교육이 140개소로 가장 많았고, 기타 88개소, 사회복지 52개소, 문화·예술 42개소 순으로 높았다. 한편 일반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 또한 교육이 38개소로 가장 많았고, 문화·예술 13개소, 기타 12개소 순으로 높았다.

[그림 3-15] 사회서비스 유형 및 수혜대상 크기별 사회적기업의 수 :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개소)



주: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일반인과 취약계층 수혜자 수가 동일한 경우 제외함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마지막으로 <표 3-18>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사회 서비스 수혜대상별 사회적기업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이다. 각 셀의 값은 ‘일반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수’의 비율(%)이므로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하고, 100%보다 높은 경우에는 일반인 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먼저, 인증연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100%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일반인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비율이 더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혹은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수가 전년도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2023년을 기준으로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이 일반인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인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살펴보면, 제공기업 수가 2개 기업뿐인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하면 조직형태와 상관없이 대체로 모든 유형에서 100% 미만의 비율이 나타나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부가분석 3-1>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 인원을 함께 정리하여 보고한 것이다.

<표 부가분석 3-2>는 지역과 표준산업분류별로 사회서비스 수혜자의 총인원을 살펴본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2,247,251명 중,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분야의 수혜자 비중이 32.3%(726,346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육서비스업 31.4%(704,923명), 제조업 18.9%(424,016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6.8%(152,80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 중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1,764,125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34.7%(612,588명)로 가장 높았고, 제조업 23.9% (421,195명), 교육 서비스업 21.4%(378,348명) 순으로 높았다.

반면 일반인 수혜자 483,126명의 분포 비중은 교육 서비스업 67.6%(326,575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3.5%(113,758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14,643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8>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일반인/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기업 비율 : 사회 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일반인제공/ 취약계층제공	일반인에 더 많이 제공/ 취약계층에 더 많이 제공
인증 연도	2007	42.9	7.7	57.1	16.7	14.3	7.7
	2008	34.1	5.1	33.3	14.3	42.5	20.0
	2009	50.0	7.7	33.3	7.1	20.0	6.7
	2010	60.0	25.0	60.0	15.4	35.7	16.7
	2011	60.0	11.1	44.4	-	20.0	11.1
	2012	57.1	40.0	53.3	7.1	30.8	16.7
	2013	57.1	83.3	52.4	50.0	45.0	25.0
	2014	50.0	60.0	22.2	12.5	33.3	28.6
	2015	53.3	50.0	64.3	55.6	48.1	47.4
	2016	38.2	21.4	40.0	34.6	38.9	34.6
	2017	57.7	52.9	52.6	53.8	26.3	35.7
	2018	65.4	62.5	46.2	30.0	36.0	8.3
	2019	59.5	37.0	60.0	29.6	55.9	33.3
	2020	48.8	26.5	65.0	51.9	40.0	32.3
	2021	60.7	29.8	63.5	25.5	36.7	15.4
	2022	-	-	56.9	21.3	40.0	20.0
	2023	-	-	-	-	27.1	17.1
인증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53.3	30.1	57.6	27.1	42.1	24.1
	혼합형	51.6	31.7	46.8	28.3	29.6	19.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5.1	53.7	55.4	27.3	39.7	22.4
	비영리민간단체	55.0	25.0	58.8	21.4	50.0	50.0
	사회복지법인	-	-	40.0	66.7	25.0	33.3
	상법상회사	49.3	31.0	49.8	28.2	36.1	21.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0.0	-	100.0	-	-	-
	영농조합법인	33.3	50.0	33.3	50.0	50.0	100.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3.9	18.8	60.2	25.6	37.1	20.4
	기타	-	-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3-1>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2,360,723	2,567,653	2,247,251
	인증 연도	2007	177,057	160,761
		2008	678,036	518,647
		2009	80,643	70,258
		2010	18,453	18,890
		2011	84,886	144,063
		2012	224,775	249,505
		2013	113,904	179,316
		2014	66,555	59,819
		2015	114,533	148,494
		2016	117,630	204,005
		2017	256,694	213,894
		2018	149,220	132,009
		2019	43,470	60,675
		2020	96,344	127,981
		2021	138,523	165,893
		2022	-	113,443
		2023	-	286,33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사회서비스제공형	1,359,707	1,472,648
		혼합형	1,001,016	1,095,005
		기타(창의·혁신)형	-	-
		지역사회공헌형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657,786	781,786
		비영리민간단체	66,183	36,737
		사회복지법인	5,610	142,721
		상법상회사	908,671	977,10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902	7,563
		영농조합법인	2,175	13,1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713,396	608,563
		기타	-	-

항목			2021	2022	2023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1,716,054	1,712,811	1,764,125
	인증 연도	2007	137,734	127,212	259,807
		2008	546,282	428,116	572,867
		2009	76,135	66,956	33,783
		2010	14,120	16,565	13,016
		2011	73,909	139,123	65,435
		2012	157,915	173,294	79,285
		2013	45,327	64,806	71,383
		2014	18,350	16,298	8,604
		2015	66,689	65,184	16,797
		2016	105,010	132,389	55,097
		2017	200,270	96,195	18,104
		2018	76,628	48,328	33,714
		2019	31,016	44,809	65,177
		2020	63,424	79,984	114,946
		2021	103,245	135,986	59,568
		2022	-	77,566	49,185
		2023	-	-	-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968,701	959,667	1,024,826
		혼합형	747,353	753,144	739,299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35,595	407,198	278,211
		비영리민간단체	45,846	32,102	117,079
		사회복지법인	5,610	142,363	69,646
		상법상회사	796,987	724,324	601,37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582	3,862	-
		영농조합법인	1,273	1,178	70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27,161	401,784	697,110
		기타	-	-	-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전체인원		644,669	854,842	483,126
	인증 연도	2007	39,323	33,549	2,447
		2008	131,754	90,531	67,792
		2009	4,508	3,302	1,009
		2010	4,333	2,325	1,869
		2011	10,977	4,940	11,959
		2012	66,860	76,211	830
		2013	68,577	114,510	107,544

항목			2021	2022	2023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인증 연도	2014	48,205	43,521	1,888
		2015	47,844	83,310	26,419
		2016	12,620	71,616	11,092
		2017	56,424	117,699	23,899
		2018	72,592	83,681	76,738
		2019	12,454	15,866	11,632
		2020	32,920	47,997	61,896
		2021	35,278	29,907	13,584
		2022	-	35,877	23,546
		2023	-	-	38,982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	-	-
		사회서비스제공형	391,006	512,981	337,729
		혼합형	253,663	341,861	145,397
		기타(창의·혁신)형	-	-	-
		지역사회공헌형	-	-	-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22,191	374,588	223,049
		비영리민간단체	20,337	4,635	4,339
		사회복지법인	-	358	182
		상법상회사	111,684	252,781	131,25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320	3,701	-
		영농조합법인	902	12,000	73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86,235	206,779	123,571
		기타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3)

<표 부가분석 3-2> 사회서비스 수혜자 총 인원(사회서비스 제공형과 혼합형, 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94,564	303,040	67,743	70,240	24,246	27,086	182,151	-	546,322	111,408	116,709	136,661	166,841	62,680	24,601	7,012	5,947
전체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업 및 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78,825	704,923	26,691	8,942	736,346	25,384	530	73887	-	11,014	424,016	152,808	11,369	-	-	120	2,396
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60,296	268,372	67,589	57,358	22,737	17,329	70,389	-	429,818	91,999	104,573	56,363	128,795	58,570	20,727	5,159	4,051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업 및 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77,787	378,348	16,132	8,914	612,588	19,178	530	59244	-	8,575	421,195	149,408	11,136	-	-	120	970
일반인 서비스 수혜자	표준산업 분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4,268	34,668	154	12,882	1,509	9,757	111,762		116,504	19,409	12,136	80,298	38,046	4,110	3,874	1,853	1,896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서비스업(P)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사업시설 관리업 및 원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J)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운수업(H)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E)
		1,038	326,575	10,559	28	113,758	6,206	-	14643	-	2,439	2,821	3,400	233	-	-	-	1,42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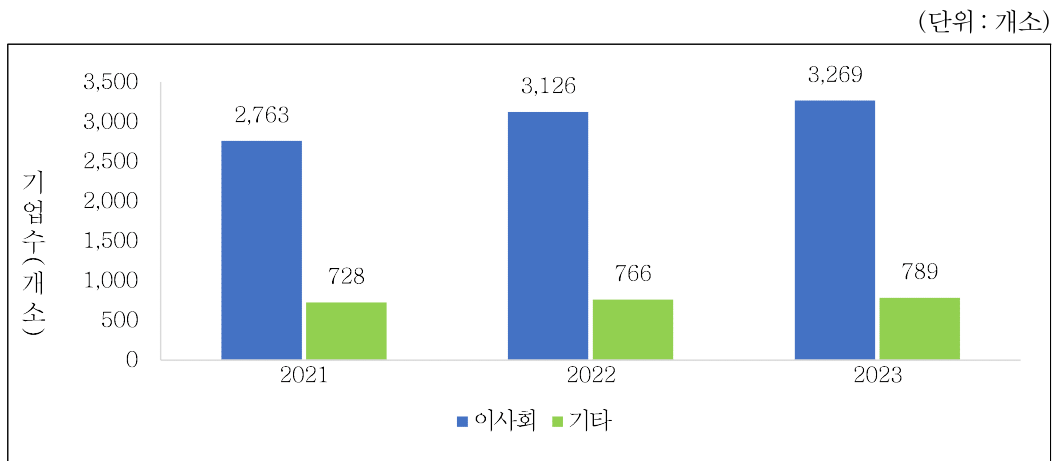
제3절 사회적기업 의사결정 구조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해보았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을 확인해보면, 인증요건 중 하나가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이다. 이에 사업보고서에서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이사회와 추가적인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다.

먼저 [그림 3-16]는 2021~2023년 사회적기업이 활용한 의사결정 구조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의사결정과 관련한 회의체에는 주주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이 있으나, 2021~2023년 공통으로 절반 이상 이사회를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그 이유로는 이사회 운영이 가능한 법인 형태의 경우 이사회만을 인정하는 등의 제도적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사회와 기타(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로 분류하여 최근 3년간 의사결정기구 활용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그림 3-16]과 같다. 이사회를 활용한 기업은 2021년 2,763개소, 2022년 3,126개소, 2023년 3,269개소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 외 기타 회의체는 2021년 728개소, 2022년 766개소, 2023년 789개소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림 3-16] 연도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19> 지역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 수와 평균 개최 건수

(단위: 회, 개소)

지역	구분	이사회	기타
서울	평균	3.0	2.9
	기업 수	526	149
부산	평균	2.6	2.9
	기업 수	140	22
대구	평균	3.1	3.0
	기업 수	115	29
인천	평균	3.0	2.2
	기업 수	189	45
광주	평균	2.9	2.2
	기업 수	142	29
대전	평균	3.3	2.0
	기업 수	108	38
울산	평균	2.6	2.9
	기업 수	99	13
세종	평균	3.1	2.0
	기업 수	28	10
경기	평균	3.4	2.9
	기업 수	598	127
강원	평균	3.1	2.4
	기업 수	170	49
충북	평균	2.6	5.0
	기업 수	132	21
충남	평균	2.9	2.1
	기업 수	143	61
전북	평균	3.1	2.1
	기업 수	197	73
전남	평균	3.0	2.1
	기업 수	190	36
경북	평균	3.1	2.6
	기업 수	237	44
경남	평균	3.1	3.5
	기업 수	182	21
제주	평균	2.9	2.2
	기업 수	73	22
계	평균	3.1	2.6
	기업 수	3,269	789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3-19>는 의사결정기구 활용 평균 개최 건수를 지역별로 구분한 표다. 먼저, 이사회 개최 건수의 전체 평균은 연간 3.1회 정도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 평균 개최 건수도 연간 2.6회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사회 개최는 지역별로는 경기도 평균 3.4회로 가장 많았고, 울산, 충북, 부산이 평균 2.6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는 크지 않았다. 기타 회의체 개최 건수는 충북이 평균 5.0회로 가장 많고 대전, 세종이 평균 2.0회로 가장 적어 지역별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표 3-20>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의사결정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단위: 개소, 회)

구분		이사회		기타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증 연도	2007	23	3.6	18	4.0
	2008	68	3.7	45	3.0
	2009	39	2.9	21	2.2
	2010	94	2.9	46	2.8
	2011	68	3.0	46	3.3
	2012	84	3.7	37	2.3
	2013	131	3.3	46	2.3
	2014	140	3.4	55	2.1
	2015	182	3.2	35	2.3
	2016	190	3.3	43	2.4
	2017	181	3.0	35	2.4
	2018	242	3.2	46	2.2
	2019	307	3.1	48	2.0
	2020	360	3.1	64	3.5
	2021	437	2.9	70	2.4
	2022	382	2.8	83	3.2
	2023	341	2.8	51	2.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188	3.0	474	2.5
	사회서비스제공형	291	3.2	65	3.0
	혼합형	169	3.0	69	2.4
	기타(창의·혁신)형	329	3.0	88	2.4
	지역사회공헌형	292	3.2	93	3.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61	2.9	105	2.5
	비영리민간단체	25	3.1	30	3.0
	사회복지법인	27	4.0	67	3.9
	상법상회사	2,300	2.9	233	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7.3	7	2.3
	영농조합법인	96	3.6	24	1.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51	3.6	323	2.7
	기타	0	-	0	-
계		3,269	3.1	789	2.6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기타 회의체의 평균 개최 건수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위의 <표 3-20>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이사회의 경우 인증연도별로 큰 차이 없이 평균 3.1회 내외에서 개최하고 있으나,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는 2.0회부터 약 4.0회로 편차가 다소 나타났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이사회는 유형 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회의체는 지역사회공헌형에서 평균 3.3회로 상대적으로 많이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기업 수가 적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제외하면 대체로 이사회 평균 개최 건수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회의체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에서 평균 3.9회로 상대적으로 많은 회의를 개최하였지만, 영농조합법인에서는 1.8회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 편차가 나타났다.

<표 3-21>과 <표 3-22>에는 2021~2023년 기간 동안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의 추이가 각각 제시되어 있다.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응답 역시 기업별로 임의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21~2023년 3개년 사업보고서 원자료에 모두 포함된 동일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변화 추이를 추가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표 3-21>에 따르면, 2021~2023년 3개년 자료에 모두 포함된 2,804개 인증사회적기업 중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의 수는 2021년 2,543개, 2022년 2,571개, 2023년 2,505개로 대체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 회의 개최 건수는 3.1회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전체 추이와 일관된 모습을 보인다.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를 제시한 <표 3-22>를 살펴보면, 2021년에는 686개의 기업이 기타 회의체를 활용하였는데 2022년 658개, 2023년 645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평균 개최 건수 역시 2021년 2.7회에서 2022년과 2023년 2.6회로 감소되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대체로 전체 추이와 유사하며, 소폭의 변동은 있으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이사회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추이

(단위: 개소, 회)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 증 연 도	2007	22	3.9	24	3.4	22	3.6
	2008	70	3.6	70	3.5	65	3.7
	2009	35	3.0	37	2.8	38	2.9
	2010	83	2.8	91	3.1	93	2.9
	2011	64	3.0	65	2.9	68	3.0
	2012	84	3.5	85	3.4	81	3.7
	2013	137	3.1	131	3.3	131	3.3
	2014	141	3.2	139	3.4	136	3.3
	2015	183	3.1	183	3.1	179	3.2
	2016	190	3.2	191	3.2	190	3.3
	2017	183	3.2	185	3.0	178	3.0
	2018	241	3.3	243	3.2	237	3.2
	2019	308	3.0	315	3.1	301	3.1
	2020	363	2.8	369	3.0	355	3.1
	2021	439	2.8	443	2.8	431	2.9
인 증 유 형	일자리제공형	1,694	3.0	1,706	3.0	1,671	3.1
	사회서비스제공형	194	3.2	199	3.3	199	3.4
	혼합형	157	3.1	160	2.9	152	3.0
	기타(창의·혁신)형	301	3.0	306	3.1	289	3.1
	지역사회공헌형	197	3.4	200	3.3	194	3.4
조 직 형 태	민법상법인	230	2.9	236	3.0	232	2.9
	비영리민간단체	23	2.3	23	2.9	23	3.2
	사회복지법인	21	3.4	24	3.5	26	4.0
	상법상회사	1,797	2.9	1,803	2.9	1,751	3.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	5.2	9	6.9	9	7.3
	영농조합법인	78	3.8	80	3.6	74	3.5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385	3.6	396	3.6	390	3.8
	기타	-	-	-	-	-	-
전체		2,543	3.0	2,571	3.1	2,505	3.1

주: 평균 개최 건수는 이사회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1, 2022, 2023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80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3-22>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기타 형태 활용 기업 수 및 평균 개최 건수 : 시계열 추이
(단위 : 개소, 회)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기업 수	평균 개최
인 증 연 도	2007	19	4.1	17	4.2	18	4.0
	2008	41	3.2	41	3.2	43	3.0
	2009	22	2.5	20	2.3	21	2.2
	2010	50	2.9	43	3.0	44	2.8
	2011	47	3.1	43	3.1	45	3.3
	2012	37	3.0	34	2.7	36	2.3
	2013	52	2.5	50	2.5	46	2.3
	2014	56	2.2	57	2.4	53	2.2
	2015	42	2.1	39	2.4	34	2.4
	2016	43	2.3	44	2.3	43	2.4
	2017	43	2.5	40	2.6	35	2.4
	2018	38	2.4	40	2.3	45	2.2
	2019	55	2.0	51	2.2	48	2.0
	2020	64	2.8	71	2.7	64	3.5
	2021	77	3.4	68	2.3	70	2.4
인 증 유 형	일자리제공형	411	2.7	395	2.6	381	2.5
	사회서비스제공형	47	3.3	50	2.8	46	3.4
	혼합형	65	2.7	58	2.7	66	2.5
	기타(창의·혁신)형	92	2.2	87	2.4	84	2.2
	지역사회공헌형	71	3.0	68	2.5	68	3.2
조 직 형 태	민법상법인	110	2.5	103	2.4	102	2.5
	비영리민간단체	34	3.0	30	3.5	27	3.1
	사회복지법인	66	3.7	65	3.8	65	3.8
	상법상회사	224	2.3	210	2.3	199	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8	3.8	6	2.8	6	2.3
	영농조합법인	17	1.8	19	1.7	20	1.7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227	2.8	225	2.5	226	2.7
	기타	-	-	-	-	-	-
전체		686	2.7	658	2.6	645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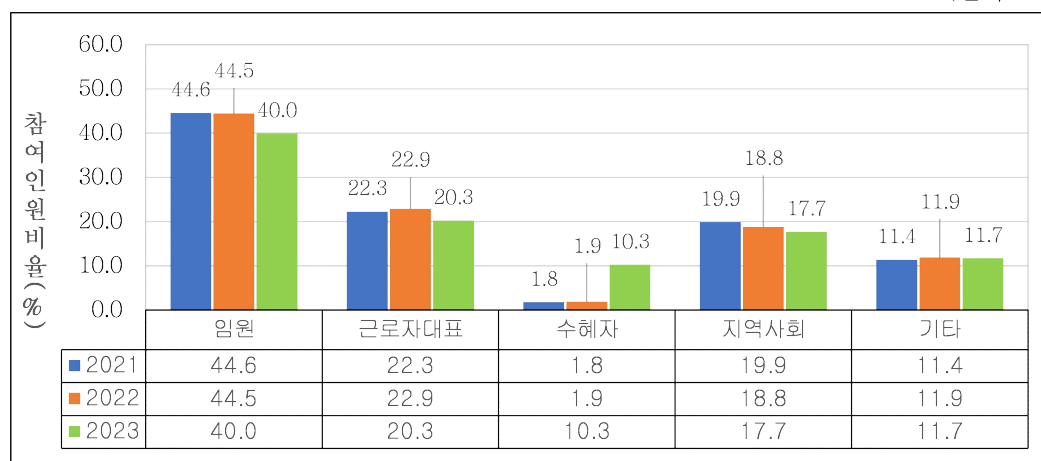
주: 평균 개최 건수는 기타 회의체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계산. 2021, 2022, 2023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80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편, 아래 [그림 3-17]과 [그림 3-18]에서는 각 사회적기업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을 평균하여 전년도와 비교한 것이다. 이사회에 참가하는 구성원은 사내 이해관계자로 임원, 근로자대표가 있고, 사외 이해관계자로는 수혜자, 지역사회참여자, 기타 참여 인원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임원이 이사회의 약 40% 이상을 구성하고 있으며, 임원 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참여자가 각각 약 20% 내외로 이사회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수혜자의 경우, 2022년 1.9%에서 2023년 10.3%로 증가하며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그 외 참여 인원의 비율은 최근 3년 동안 대체로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안정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17] 연도별 이사회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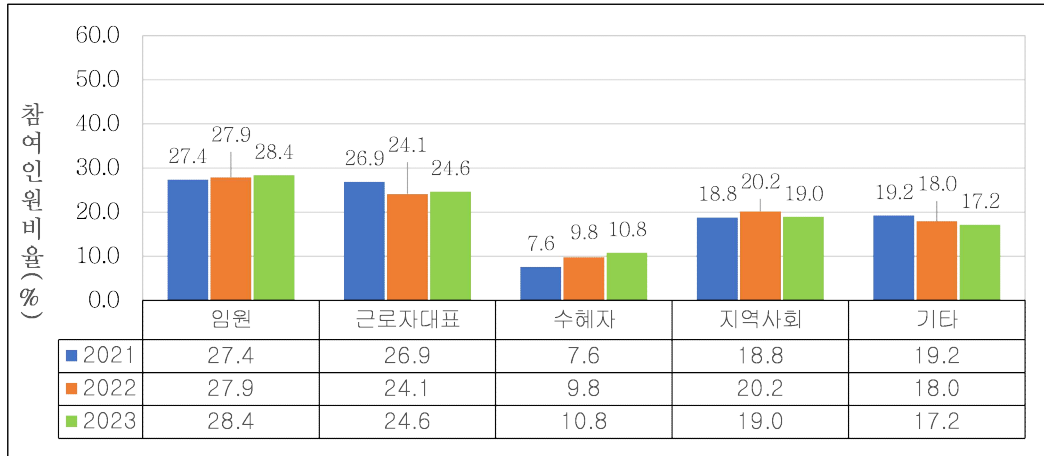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주주총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기타 회의체 참여 인원 비율은 다음 [그림 3-18]과 같다.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임원이 참여하는 비율이 약 28.4%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지역사회 참여자, 기타 참여자, 수혜자가 사회적 기업의 기타 회의체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임원, 근로자대표, 수혜자, 기타 회의체 참여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고, 지역사회 및 기타는 감소하였다.

[그림 3-18] 연도별 기타 의사결정기구 참여 인원 비율

(단위: %)



주: 항목별 의사결정기구 활용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오기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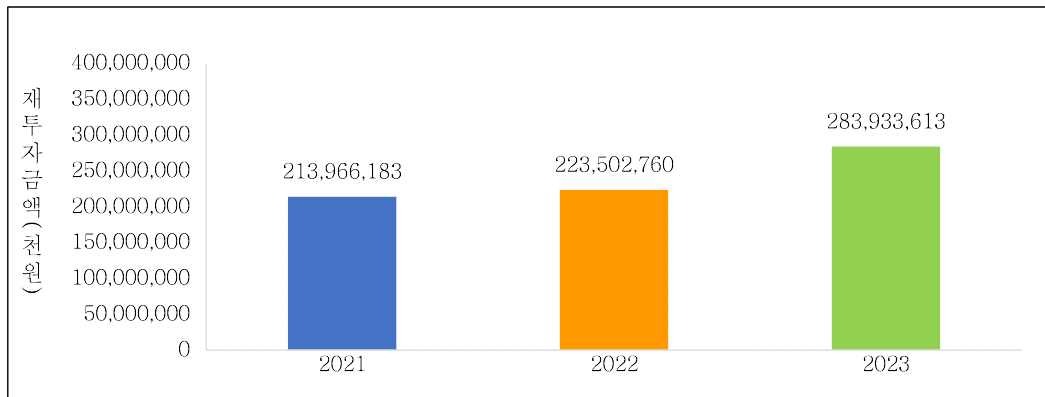
제4절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

제4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투자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사회적기업은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 달리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면서 창출된 이익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 3항에서는 사회적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을 사회적기업의 유지·확대에 재투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같은법 제8조 7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의 변화 추세는 다음 [그림 3-19]와 같다. 2021년 약 2천 139억 7천만 원에서 2022년 약 2천 2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5% 증가했고, 2023년에는 약 2천 839억 3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7.0% 증가하여 지속적으로 상승세로 나타났다.

[그림 3-19]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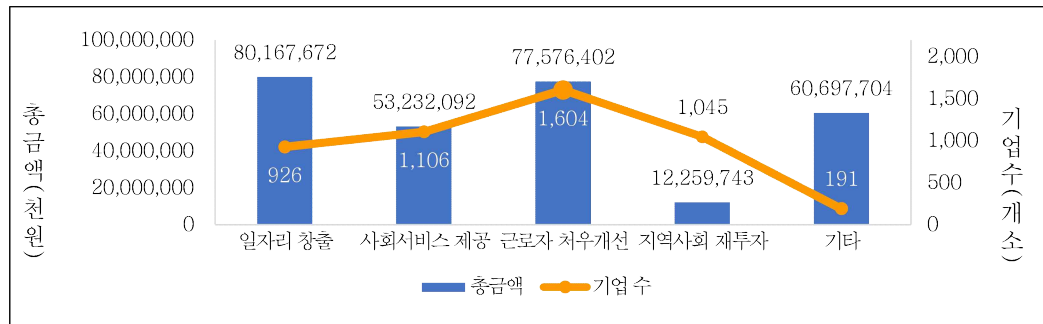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3-20]은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한 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 금액을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재투자유형은 크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의 다섯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3년 재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한 기업은 926개소, 약 80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1,604개 사회적기업이 약 775억 7천만 원을 근로자 처우개선으로 재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1,106개 기업이 약 532억 3천만 원을, 지역사회 재투자의 경우 1,045개 기업이 약 122억 5천만 원을 재투자하여 그 뒤를 이었다.

[그림 3-20]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사회서비스 재투자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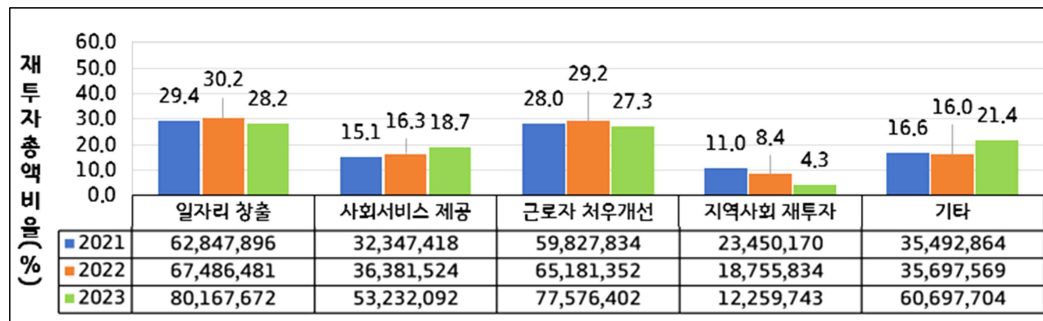
(단위: 개소, 천 원)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3-21] 연도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금액 및 비율

(단위: %, 천 원)



주: 항목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3-23>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한 사회적기업의 수와 재투자 총액을 지역에 따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023년에는 총 2,394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2,839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여, 전년도에 총 2,380개의 인증사회적기업이 약 2,235억 원을 재투자한 것과 비교하면 2023년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금액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의 기업이 많은 금액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하였다. 경기는 490개 사회적기업이 약 72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서울은 297개 사회적기업이 약 585억 원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였다.

<표 3-23> 지역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및 재투자 총액

(단위: 개소, 천 원)

지역	사회적목적 재투자			총 재투자금액		
	기업 수	총수 대비 %	순위	금액	총금액 대비 %	순위
서울	297	12.4	3	58,529,534	20.6	3
부산	101	4.2	11	3,795,442	1.3	14
대구	86	3.6	14	5,644,842	2.0	13
인천	157	6.6	5	19,508,906	6.9	4
광주	136	5.7	9	16,819,436	5.9	7
대전	60	2.5	15	3,609,718	1.3	15
울산	58	2.4	16	3,348,377	1.2	16
세종	17	0.7	18	1,317,937	0.5	18
경기	490	20.5	2	71,970,553	25.3	2
강원	139	5.8	8	18,723,507	6.6	5
충북	94	3.9	13	12,390,957	4.4	10
충남	100	4.2	12	8,952,816	3.2	12
전북	141	5.9	7	10,767,939	3.8	11
전남	123	5.1	10	18,565,928	6.5	6
경북	194	8.1	4	14,346,282	5.1	8
경남	154	6.4	6	13,683,544	4.8	9
제주	47	2.0	17	1,957,895	0.7	17
계	2,394	100.0	-	283,933,613	100.0	-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한편, 아래 <표 3-24>는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 금액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라 구분해 제시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인증기업의 평균 재투자 금액이 약 3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007년 인증기업(약 2억 2천 6백만 원), 2011년 인증기업(약 2억 2천 5백만 원) 순이었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항목별로는 일자리 창출의 경우 2015년 인증기업 28개소가 평균 약 1억 5천 4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고, 사회서비스 제공은 2011년 인증기업 9개소가 평균 약 5억 4천 1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근로자 처우개선은 2007년 인증기업 13개소가 약 1억 1천 6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 재투자와 기타 재투자는 2013년 인증받은 40개소와 7개소가 각각 약 8천 6백만 원, 약 29억 9천 6백만 원을 재투자하여 가장 많았다.

인증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이 1,655개소로 기업 수가 가장 많아서 사회적기업 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평균 재투자 금액은 약 1억 1천 7백만 원으로 인증유형들 중에서는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평균 재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기타(창의·혁신)형이 약 1억 6천 4백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6천 9백만 원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조직형태별로 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1억 4천 2백만 원으로 재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재투자 금액은 약 5천 5백만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3-25>는 2021~2023년 기간 동안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와 평균 금액 추이를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의 경우도 기업이 나름의 기준으로 임의적으로 응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21~2023년 기간 동안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에 모두 포함된 2,804개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적 목적의 재투자를 실시한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1년 1,986개에서 2022년 1,969개로 증가하였다가, 2023년 1,813개로 소폭 감소하였다. 사회적 목적 재투자 평균 금액은 2021년 약 1억 4백만 원에서 2022년 약 1억 2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약 1억 3천 1백만 원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표 3-24> 인증연도, 인증유형 및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재투자 기업 수 평균 금액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전체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근로자 처우개선		지역사회 재투자		기타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 연도	2007	16	226,324	4	102,157	5	325,040	13	116,524	8	9,068	-
	2008	44	110,214	14	57,675	17	92,162	36	59,499	24	5,499	3
	2009	26	106,886	9	119,156	10	29,507	20	42,877	17	16,852	3
	2010	68	122,344	18	124,862	24	41,662	50	91,988	32	9,908	4
	2011	48	225,449	11	109,277	9	541,903	34	112,618	25	16,869	6
	2012	56	95,785	13	58,759	17	83,816	43	60,710	31	8,170	5
	2013	92	350,795	33	75,850	28	17,943	70	68,845	40	86,748	7
	2014	96	122,806	23	130,553	27	16,222	66	94,844	49	10,431	9
	2015	117	126,897	28	154,383	36	28,675	87	74,426	58	15,279	6
	2016	132	135,832	51	85,081	54	109,360	100	56,518	60	13,514	8
	2017	136	58,559	45	65,379	53	28,343	84	30,220	65	7,164	8
	2018	167	129,086	67	149,633	72	16,961	109	57,871	83	9,334	16
	2019	226	106,181	79	102,698	115	45,375	140	40,833	85	8,821	17
	2020	276	127,148	107	104,002	129	59,851	184	43,608	110	8,192	23
	2021	339	115,929	130	73,965	194	34,524	219	38,224	142	9,463	34
	2022	279	83,468	141	57,390	166	50,789	181	26,859	106	3,520	21
	2023	276	72,976	153	62,627	150	25,162	168	17,844	110	4,460	2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655	117,630	663	91,976	664	28,820	1,134	56,632	792	9,469	134
	사회서비스제공형	207	132,858	58	77,732	153	110,685	128	34,056	60	6,853	12
	혼합형	126	115,134	43	64,128	85	107,203	76	30,609	45	4,286	4
	기타(창의·혁신)형	201	164,083	74	88,825	102	45,661	130	31,339	75	50,743	21
	지역사회공헌형	205	69,595	88	60,779	102	33,243	136	19,094	73	4,801	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45	128,463	57	69,975	62	128,422	85	61,094	42	6,619	8
	비영리민간단체	23	54,900	7	72,933	13	26,811	16	24,800	5	1,366	-
	사회복지법인	35	109,719	8	94,173	5	82,181	27	97,598	6	3,290	2
	상법상회사	1,721	125,537	665	88,371	790	37,074	1,174	52,371	812	13,200	15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142,779	3	107,221	2	25,361	3	185,980	6	11,522	-
	영농조합법인	74	68,774	28	75,704	22	18,877	47	23,565	36	8,614	1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89	97,854	158	86,752	212	69,603	252	24,610	138	6,213	13
계		2,394	118,602	926	86,574	1,106	48,130	1,604	48,364	1,045	11,732	191

주: 항목별 지역사회 재투자를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3-25>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사회적 목적 채투자 기업 수 및 평균 금액 추이
(단위: 개소, 천 원)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기업 수	평균금액
인증연도	2007	17	246,366	17	239,469	16	226,324
	2008	50	117,199	49	94,694	43	112,149
	2009	28	158,685	24	240,656	25	110,990
	2010	60	113,733	61	129,030	66	115,263
	2011	53	332,830	45	190,231	47	225,698
	2012	56	102,884	59	74,139	53	100,387
	2013	99	233,344	104	230,810	92	350,795
	2014	109	125,750	105	91,307	94	125,214
	2015	135	151,785	133	103,287	117	126,897
	2016	145	57,334	146	101,347	132	135,832
	2017	136	70,387	139	114,923	135	58,963
	2018	190	85,034	180	98,220	163	130,434
	2019	265	75,792	249	80,854	223	107,230
	2020	291	75,038	292	96,628	272	127,400
	2021	352	83,998	366	60,956	335	117,15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375	97,163	1,367	95,751	1,250	132,704
	사회서비스제공형	132	92,123	144	74,962	138	135,977
	혼합형	112	114,047	110	116,955	112	123,251
	기타(창의·혁신)형	205	173,023	187	204,207	177	170,720
	지역사회공헌형	162	83,605	161	55,845	136	73,08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124	185,324	118	135,921	124	130,139
	비영리민간단체	18	16,896	19	57,208	19	62,597
	사회복지법인	36	115,948	32	80,097	34	92,018
	상법상회사	1,418	100,935	1,416	98,976	1,299	143,19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7	830,931	8	122,384	6	166,426
	영농조합법인	69	78,875	67	73,927	58	63,018
	일반/사회적 협동조합	314	81,856	309	116,371	273	100,693
	기타	-	-	-	-	-	-
전체		1,986	104,505	1,969	102,453	1,813	131,609

주: 평균금액은 사회적 목적 채투자를 한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 2021, 2022, 2023 세 개년도
자료가 모두 이용 가능한 2,804개 사회적기업 대상.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제4장 사회적기업의 경제적성과 분석

본 장에서는 재정성과, 지출 구조, 그리고 노동생산성 및 일반인 고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제1절 재정성과 : 수입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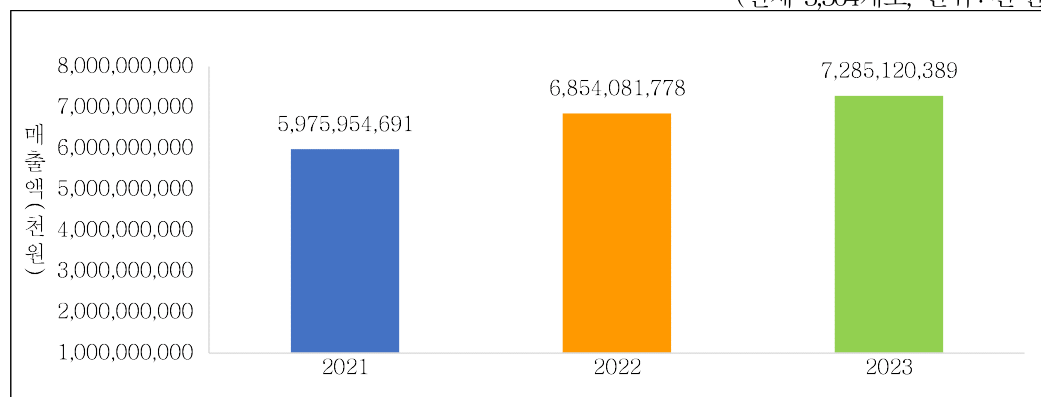
사회적기업의 재정성과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해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1. 매출액

먼저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매출 총액은 다음 [그림 4-1]과 같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난다. 2023년의 사회적기업은 약 7조 2천 8백억 원의 매출 총액을 보고하여, 전년도에 비해 약 4,310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21~2022년 사이의 약 8,780억 원의 증가 폭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그림 4-1] 매출 총액

(전체 3,564개소,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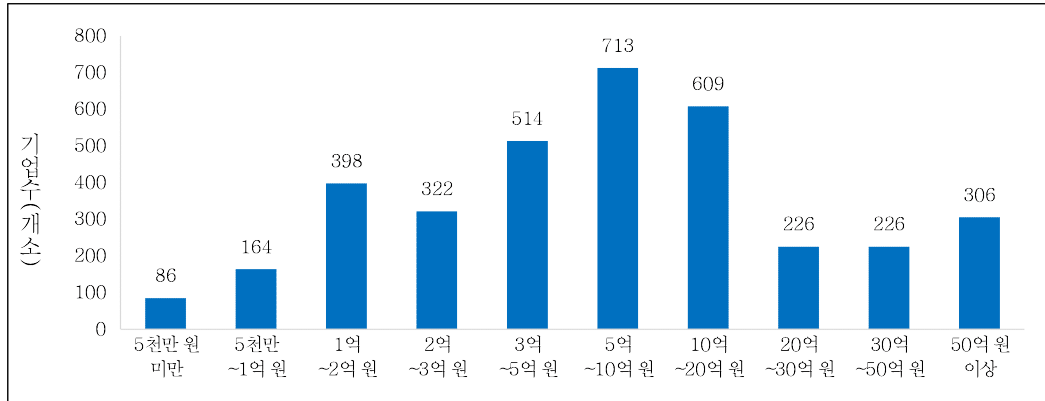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2]는 2022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분포 및 매출액에 따른 기업 수이다. 전체 3,564개의 매출액이 있는 사회적기업 중 5억~10억 원 사이의 매출액을 달성한 곳이 713개소(20.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10억~20억 원 사이가 609개소(17.1%), 3억~5억 원 사이가 514개소(14.4%)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림 4-2]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64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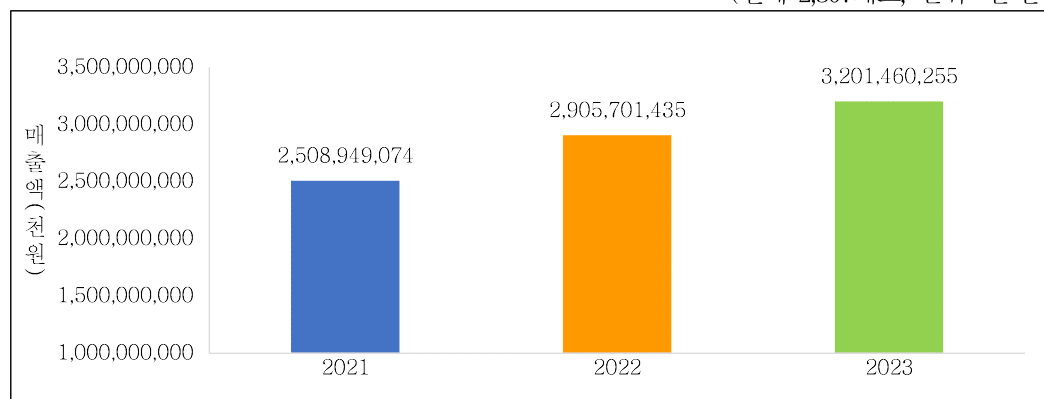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4-3]~[그림 4-6]은 앞서 보고된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 시장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그림 4-3]과 같이, 2023년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2,307개소이며 공공시장을 통한 매출 규모는 약 3조 2천 10억 원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이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4]를 통해 살펴보면,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80개소(16.5%)로 가장 많았고, 1억~2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17개소(13.7%), 10억~20억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288개소(12.5%)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공공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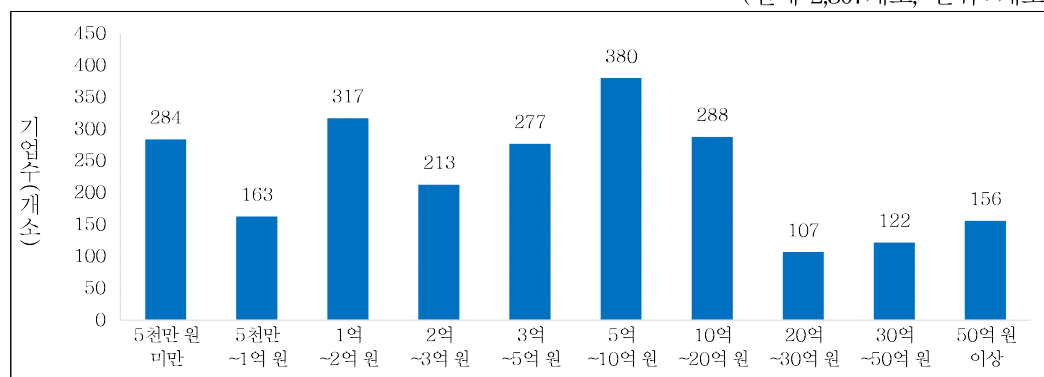
(전체 2,307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4] 공공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2,307개소,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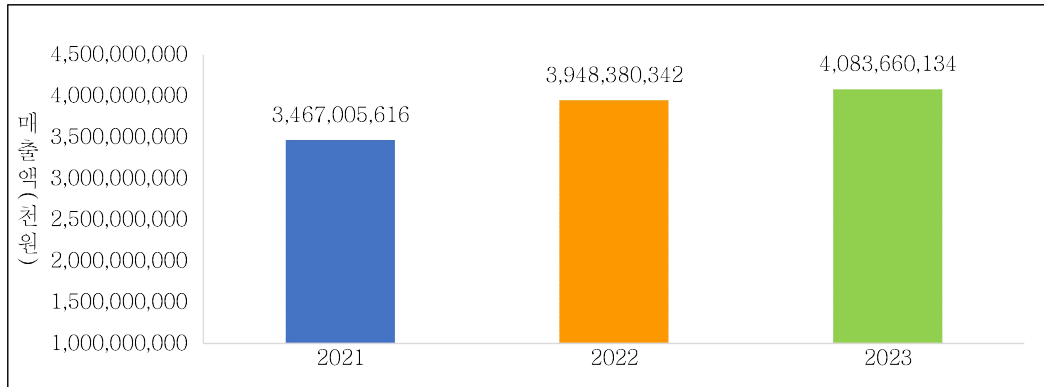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4-5]와 같이, 민간시장을 통한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은 총 3,079개소이며 민간매출 총액의 평균은 약 4조 8백 30억 원으로 공공매출에 비해 매출 규모가 더 컸고, 민간매출 역시 공공매출과 마찬가지로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매출액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민간시장 매출액 분포를 [그림 4-6]을 통해 살펴보면, 매출액 규모는 1억~2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503개소(16.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억~10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44개소(14.4%), 3억~5억 원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412개소(13.4%), 5천만 원 미만의 매출을 올린 기업이 356개소(11.6%) 순으로 많았다.

[그림 4-5] 민간매출 총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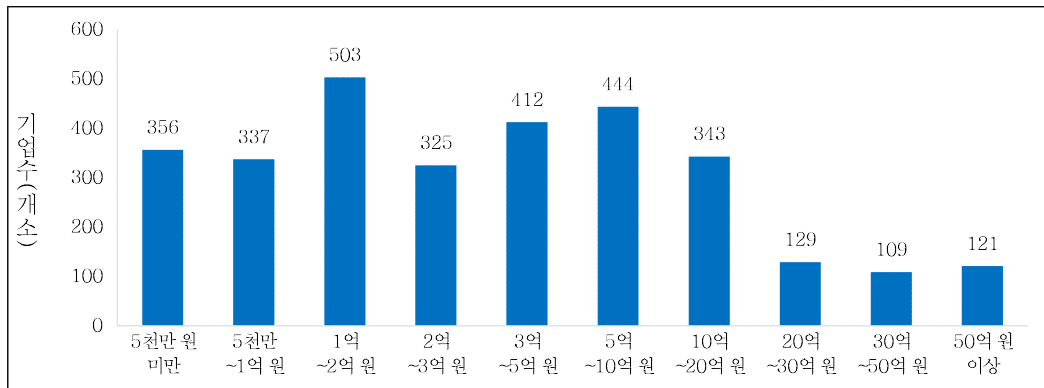
(전체 3,079개소, 단위: 천 원)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6] 민간시장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079개소, 단위: 개소)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한편, 다음의 <표 4-1>과 [그림 4-7]은 2021~2023년도에 걸쳐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분포와 기업의 수가 연도별로 어떠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분석한 내용이다.

먼저 연도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30억~50억 원, 50억 원 이상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소폭 증가하는 반면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사이 매출 규모의 사회적기업 비율은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점차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구축하며 성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4-1> 연도별 매출액 비중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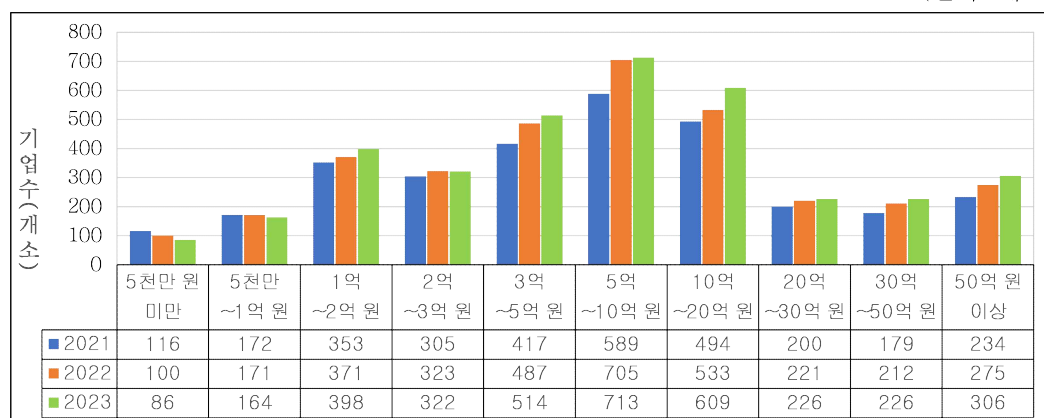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116	3.8	100	2.9	86	2.4
5천만 ~ 1억 원	172	5.6	171	5.0	164	4.6
1억 ~ 2억 원	353	11.5	371	10.9	398	11.2
2억 ~ 3억 원	305	10.1	323	9.5	322	9.0
3억 ~ 5억 원	417	13.6	487	14.3	514	14.4
5억 ~ 10억 원	589	19.3	705	20.7	713	20.0
10억 ~ 20억 원	494	16.1	533	15.7	609	17.1
20억 ~ 30억 원	200	6.5	221	6.5	226	6.3
30억 ~ 50억 원	179	5.9	212	6.2	226	6.3
50억 원 이상	234	7.6	275	8.1	306	8.6
합계	3,059	100.0	3,398	100.0	3,564	100.0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7] 연도 및 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리고 <표 4-2>와 [그림 4-8]의 연도별 공공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큰 변동은 없으나, 1억~2억 원, 5억~10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5천만 원~1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2> 연도별 공공매출액 비중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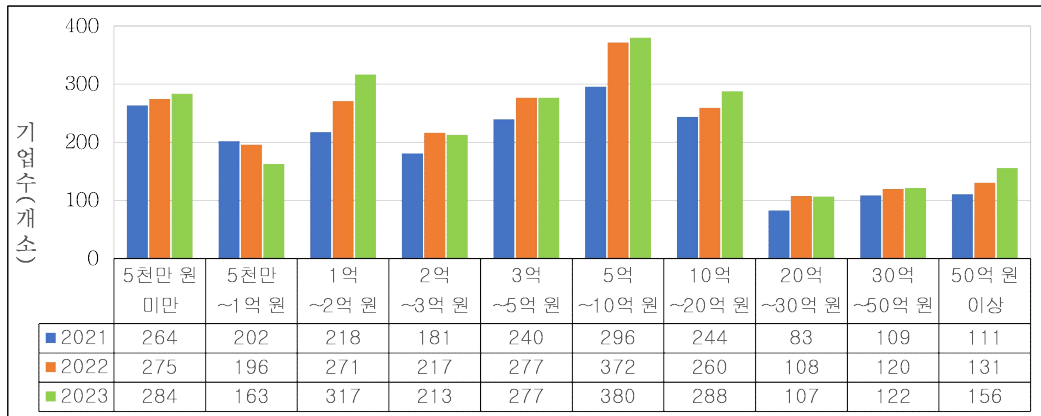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264	13.6	275	12.3	284	12.3
5천만 ~ 1억 원	202	10.4	196	8.8	163	7.1
1억 ~ 2억 원	218	11.2	271	12.2	317	13.7
2억 ~ 3억 원	181	9.3	217	9.7	213	9.2
3억 ~ 5억 원	240	12.3	277	12.4	277	12.0
5억 ~ 10억 원	296	15.2	372	16.7	380	16.5
10억 ~ 20억 원	244	12.5	260	11.7	288	12.5
20억 ~ 30억 원	83	4.3	108	4.8	107	4.6
30억 ~ 50억 원	109	5.6	120	5.4	122	5.3
50억 원 이상	111	5.6	131	5.9	156	6.8
합계	1,948	100.0	2,227	100.0	2,307	100.0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8] 연도 및 공공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편, <표 4-3>과 [그림 4-9]의 연도별 민간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 비해 매출액 구간별로 기업 수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가 있으며, 그 비율은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연도를 기준으로 매출액 비중을 보면, 20억~30억 원, 30억~50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증가하고, 5천만 원 미만, 5천만~1억 원, 5억~10억 원의 매출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표 4-3> 연도별 민간매출액 비중

(단위 :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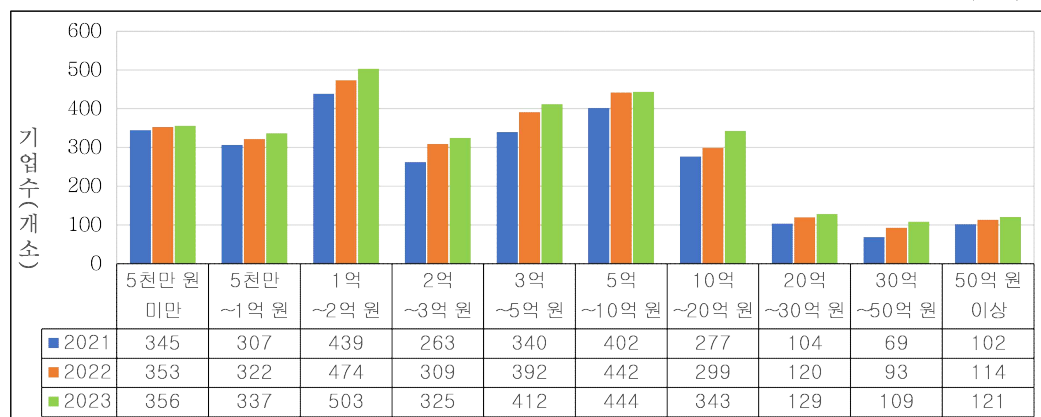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45	13.0	353	12.1	356	11.6
5천만 ~ 1억 원	307	11.6	322	11.0	337	10.9
1억 ~ 2억 원	439	16.6	474	16.2	503	16.3
2억 ~ 3억 원	263	9.9	309	10.6	325	10.6
3억 ~ 5억 원	340	12.8	392	13.4	412	13.4
5억 ~ 10억 원	402	15.2	442	15.1	444	14.4
10억 ~ 20억 원	277	10.5	299	10.2	343	11.1
20억 ~ 30억 원	104	3.9	120	4.1	129	4.2
30억 ~ 50억 원	69	2.6	93	3.2	109	3.5
50억 원 이상	102	3.9	114	3.9	121	3.9
합계	2,648	100.0	2,918	100.0	3,079	100.0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9] 연도 및 민간매출액 분포별 기업 수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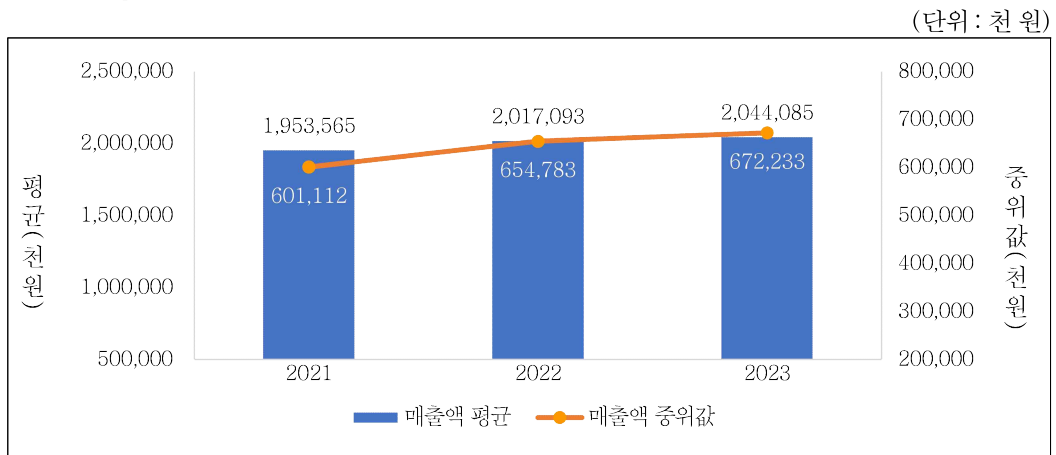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10]은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기업 매출액 평균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21년(약 19억 5천 3백만 원)에 비해 2022년(약 20억 1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3.3%의 증가율을 보였고, 2022년(약 20억 4천 4백만 원)의 매출액 평균은 전년 대비 약 1.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중위값은 2022년에 약 8.9%의 상승률을, 2023년에는 약 2.7%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그림 4-10] 연도별 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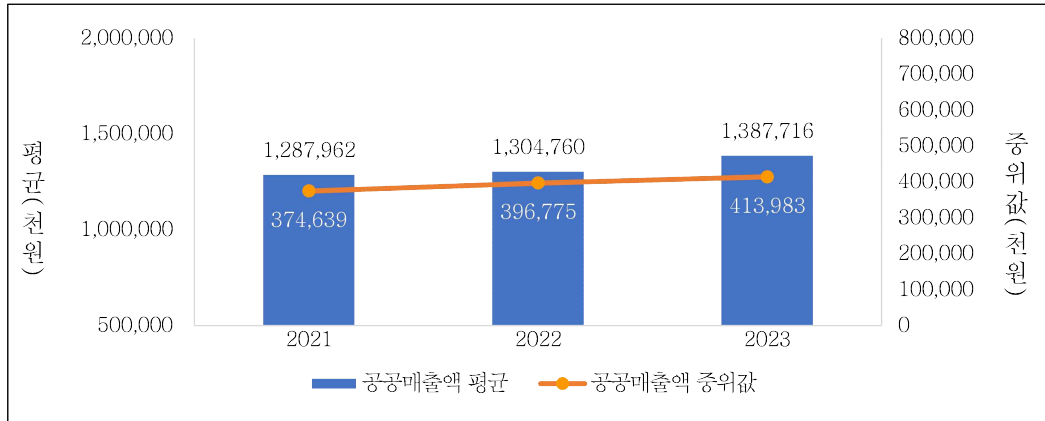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11]과 [그림 4-12]는 연도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을 공공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균값과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공공매출액의 평균은 2021년 약 12억 8천만 원에서 2022년 약 13억 5천만 원(전년 대비 1.3%)으로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13억 8천만 원(전년 대비 6.4%)으로 증가하였다. 중위값은 2021년 약 3억 7천만 원에서 2022년 약 3억 9천만 원(전년 대비 5.9% 증가)으로, 2023년에는 4억 1천만 원(전년 대비 4.3% 증가) 계속 증가하였다. 민간매출액의 평균은 2021년 약 13억 1천만 원에서 2022년 약 13억 5천만 원(전년 대비 3.3% 증가)으로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13억 2천만 원(전년 대비 2.0% 감소)으로 감소하였다. 민간매출액의 중위값은 2021년 약 2억 8천만 원에서 2022년 약 3억 원(전년 대비 5.9% 증가), 2023년에는 3억 5백만 원(전년 대비 1.9% 증가)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4-11] 연도별 공공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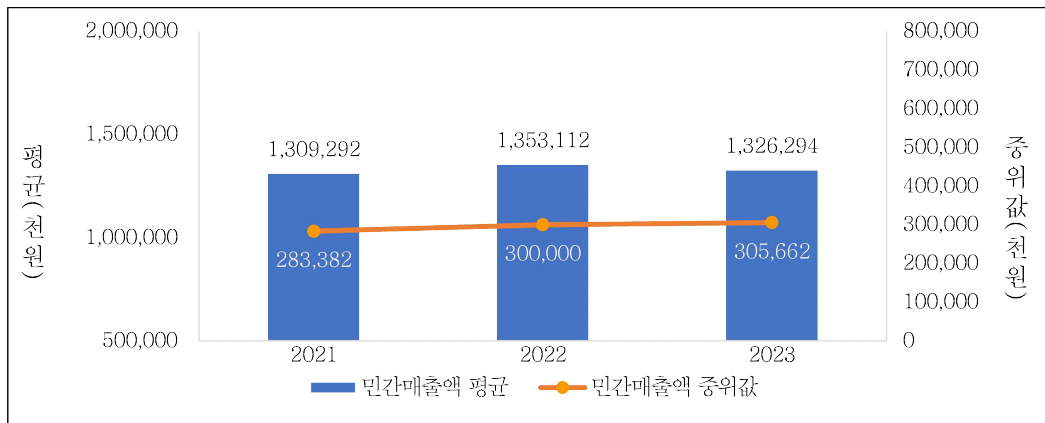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12] 연도별 민간매출액 평균 및 중위값

(단위 : 천 원)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 아래 <표 4-4>에서는 지역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 평균과 중위값을 총매출액과 공공/민간시장매출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고 총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년과 같이 서울(약 39억 1천만 원, 575개소)이었고, 다음으로 경기(약 25억 원, 642개소), 경북(약 20억 4천만 원, 260개소), 대전(약 16억 3천만 원, 116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10억 4천만 원), 충북(약 7억 2천만 원), 울산, 서울(약 7억 1천만 원)

순이었다. 세종을 제외하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20억 원, 396개소)이었고, 경기(약 18억 7천만 원, 475개소), 강원(약 15억 3천만 원, 116개소)과 광주(약 13억 6천만 원, 99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시장 매출액 평균은 서울(약 29억 4천만 원, 491개소)이었고, 경북(약 16억 6천만 원, 237개소), 경기(약 13억 5천만 원, 530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공공시장매출액 평균이 민간시장매출액 평균보다 많은 지역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였으며, 반대로 민간시장매출액 평균이 공공시장매출액 평균보다 더 많은 지역은 서울, 인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차이는 기업의 분포 및 특성, 사회적 기업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공공기관들의 입지 등 여러 요인의 지역 간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4> 지역별 매출액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	3,911,210	575	715,941
	공공시장매출	2,022,498	396	417,931
	민간시장매출	2,949,159	491	336,820
부산	매출	1,098,721	163	508,182
	공공시장매출	1,027,313	96	356,760
	민간시장매출	540,064	149	237,616
대구	매출	996,962	132	611,524
	공공시장매출	725,728	81	334,421
	민간시장매출	606,792	120	304,828
인천	매출	1,617,799	210	617,415
	공공시장매출	1,191,794	125	350,669
	민간시장매출	998,762	191	283,399
광주	매출	1,539,823	152	653,795
	공공시장매출	1,361,848	99	347,358
	민간시장매출	740,523	134	346,498
대전	매출	1,637,188	116	521,382
	공공시장매출	989,913	79	308,078
	민간시장매출	1,201,190	93	267,304
울산	매출	1,122,095	111	718,864
	공공시장매출	666,973	69	348,082
	민간시장매출	777,539	101	422,575

<표 4-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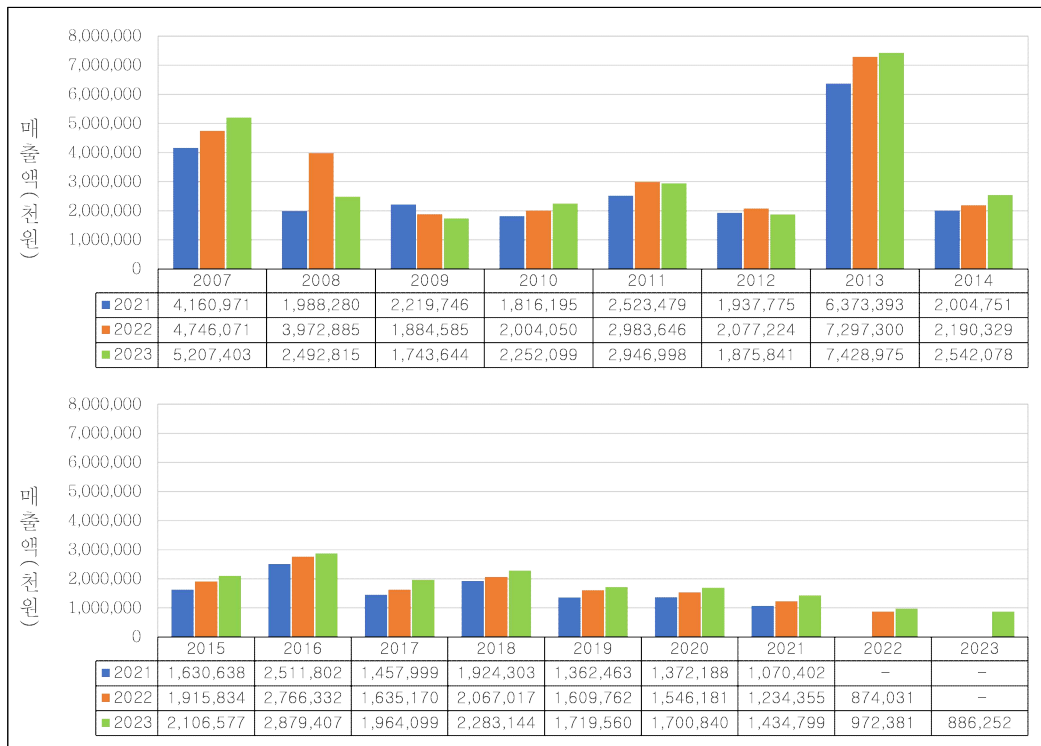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세종	매출	1,592,319	30	609,245
	공공시장매출	795,817	28	276,631
	민간시장매출	1,274,336	20	170,045
경기	매출	2,503,147	642	1,040,328
	공공시장매출	1,874,970	475	653,202
	민간시장매출	1,351,716	530	370,884
강원	매출	1,508,739	191	462,630
	공공시장매출	1,538,102	116	295,947
	민간시장매출	669,203	164	223,291
충북	매출	1,527,480	145	729,448
	공공시장매출	1,191,358	90	652,049
	민간시장매출	944,317	121	282,354
충남	매출	1,330,401	151	569,386
	공공시장매출	1,168,588	108	385,765
	민간시장매출	578,938	129	286,078
전북	매출	1,480,426	211	668,689
	공공시장매출	966,470	152	383,073
	민간시장매출	880,141	188	212,675
전남	매출	1,269,218	199	533,374
	공공시장매출	981,817	98	263,482
	민간시장매출	898,600	174	339,001
경북	매출	2,043,360	260	687,264
	공공시장매출	979,523	139	377,923
	민간시장매출	1,667,172	237	329,284
경남	매출	1,435,031	191	473,925
	공공시장매출	888,340	111	344,632
	민간시장매출	1,076,596	163	252,010
제주	매출	1,195,102	85	683,226
	공공시장매출	722,211	45	351,967
	민간시장매출	933,570	74	434,374
전체	매출	2,044,085	3,564	672,233
	공공시장매출	1,387,716	2,307	413,983
	민간시장매출	1,326,294	3,079	305,662

주: 매출액, 공공매출액,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 [그림 4-13]은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설명하고 있다. 2013년 인증기업이 2021~2023년 동안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평균값은 극단값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즉, 2013년 인증기업이 모두 고르게 높은 매출액을 보고한다기보다는 2013년에 인증받은 특정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다른 사회적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크기 때문에 평균값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2021~2023년에 걸쳐 가장 높은 평균 매출액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23년 평균 매출액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약 74억 원), 2007년(약 52억 원), 2011년(약 29억 원), 2016년(약 28억 원)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이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그림 4-13] 인증연도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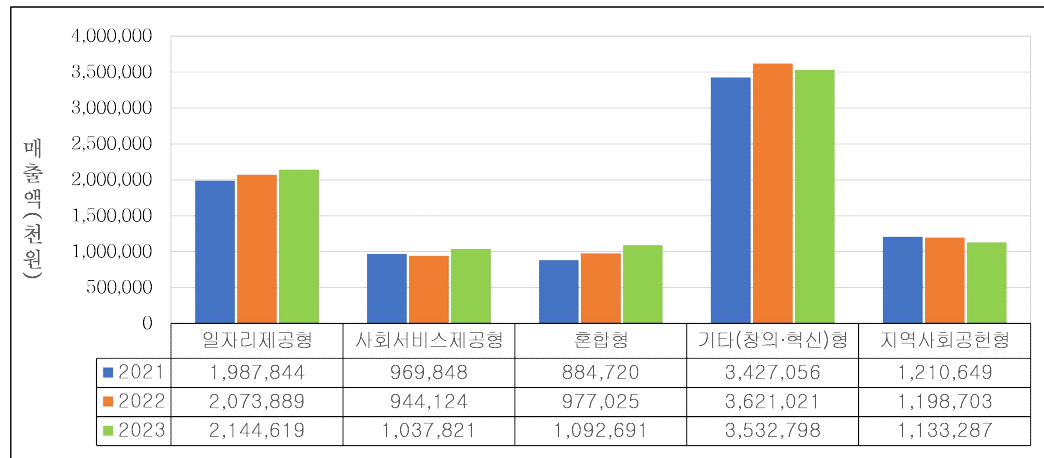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평균 매출액을 인증유형별로 살펴본 분석 내용은 [그림 4-14]와 같다.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의 평균 매출액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 평균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2023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혼합형과 일자리제공형은 지속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2022년에 다소 감소한 뒤, 2023년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14] 인증유형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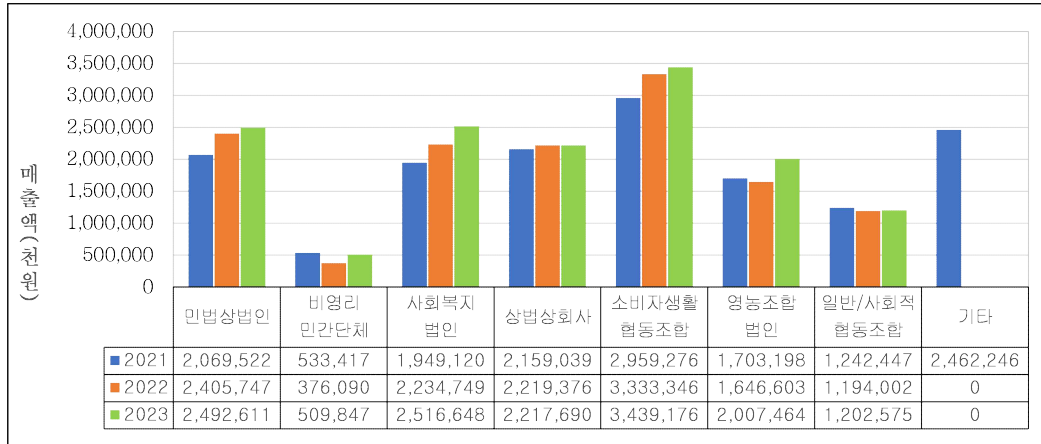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매출액을 연도별로 세분화시켜 분석한 내용을 아래 [그림 4-15]에서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과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연도에 따라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상법상회사는 2022년에 증가하였다가 유지하는 추세를 보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그림 4-15]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리고 [그림 4-16]은 최근 3년간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공공매출액을 나타낸 결과이다. 2021~2023년 기간 중 2007년과 2011년 인증기업이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인다. 2014년 인증기업은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2009년 인증기업은 2022년에 증가한 뒤 2023년에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외 연도의 인증기업들은 지속적으로 공공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2023년 공공매출액 평균을 기준으로, 2007년(약 38억 원)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다른 인증연도의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이었다. 반면, 2021년(약 9억 8천만 원), 2023년(5억 3천만 원), 2022년(약 5억 원) 인증기업의 공공매출액 평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인증받은 기업들은 공공매출액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6] 인증연도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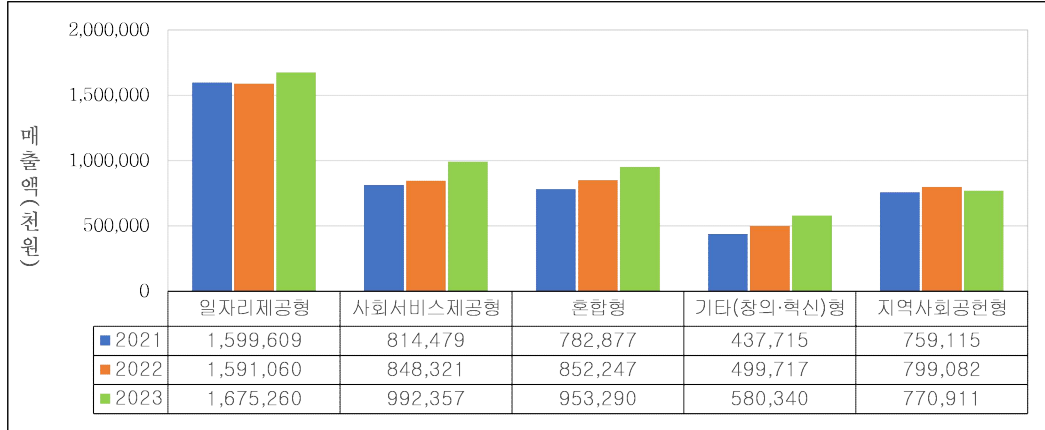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인증유형별로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를 아래 [그림 4-17]을 통해 살펴보면, 일자리 제공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평균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창의·혁신)형은 공공매출액 평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역사회공헌형을 제외한 나머지 인증유형들은 공공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지역사회공헌형은 2022년에 증가한 이후 2023년에 다시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림 4-17] 인증유형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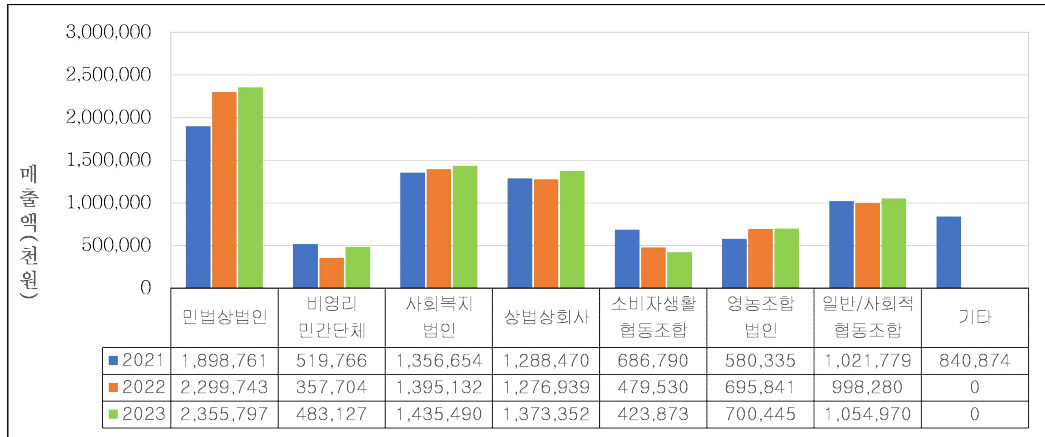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리고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변화는 [그림 4-18]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영농조합법인은 공공매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비영리 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에 공공매출액이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18] 조직형태별 평균 공공매출액

(단위: 천 원)



주: 공공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으로는 민간매출액을 살펴본다. 아래 [그림 4-19]에서는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2013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2007년 인증기업이 대체로 높은 평균 매출액을 보인다. 2013년 인증기업의 민간매출액 평균이 크게 나타나는 이유는 앞서 언급한대로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큰 특정기업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외 인증연도의 사회적기업의 민간매출액은 2009년(약 6억 9천만 원), 2012년(약 6억 6천만 원), 2023년(약 5억 9천만 원)을 제외하고 대체로 10억 원 안팎의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된다.

[그림 4-19] 인증연도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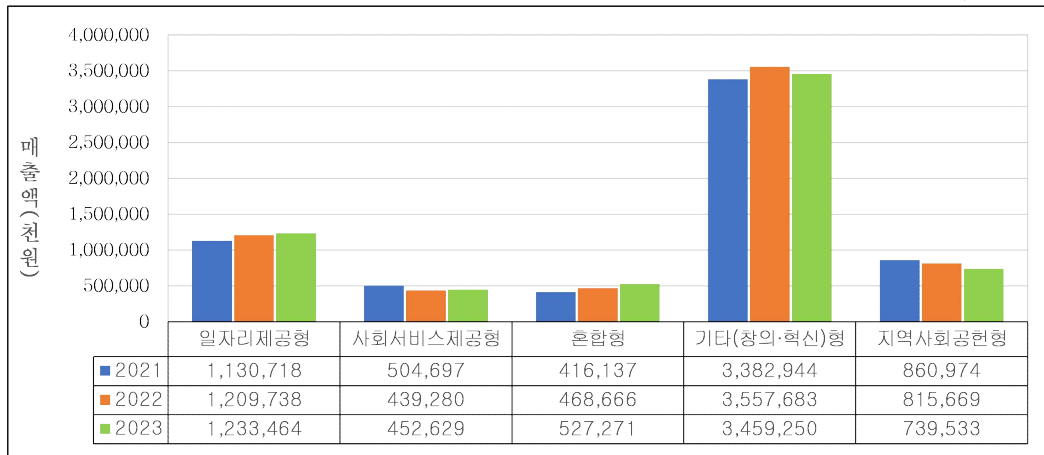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인증유형별로 최근 3년간의 사회적기업의 평균 민간매출액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4-20]과 같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기타(창의·혁신)형이 다른 인증유형에 비해 평균 민간매출액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민간매출액 규모가 월등히 큰 특정 사회적기업이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인증되어 있어 극단값이 유형별 평균값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일자리제공형과 혼합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사회서비스 제공형은 2022년에 감소하였다가 2023년에는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사회 공헌형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20] 인증유형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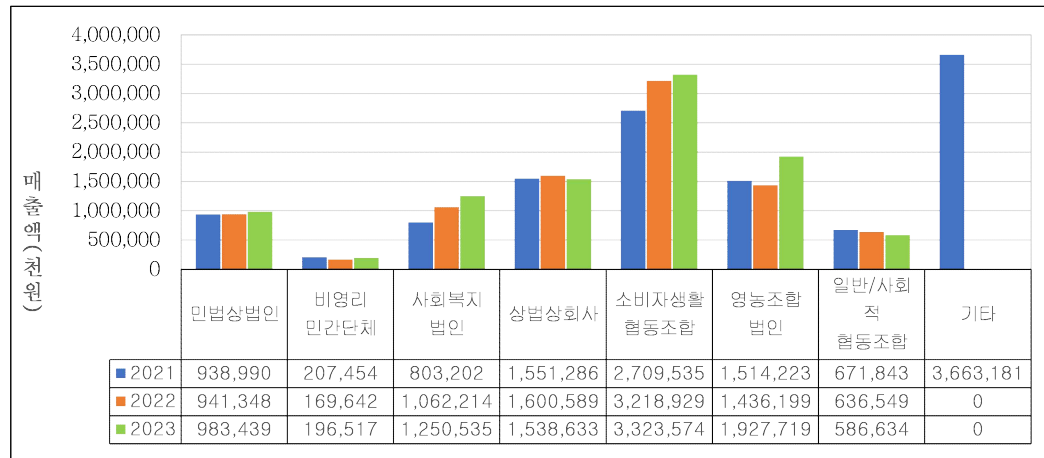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21]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의 민간매출액이 다른 조직형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비영리민간단체와 영농조합법인은 2022년 소폭 감소 이후 2023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반면,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상법상회사는 2022년까지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감소하였다.

[그림 4-21] 조직형태별 평균 민간매출액

(단위: 천 원)



주: 민간매출액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2. 영업이익(손실)

다음으로 2023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은 2016년 회계처리 기준 변화에 따라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즉, 2016년 이전 인증사회적기업의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은 영업외수익에 포함되어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2016년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계 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기준이 변경되었다.

일반기업 회계기준의 제17장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특정의 비용과 상계 처리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증사회적기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핵심 지원 항목인 인건비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해당 비용과 상계 처리하도록 회계처리 방식이 변경되었다.

〈참고〉 일반기업 회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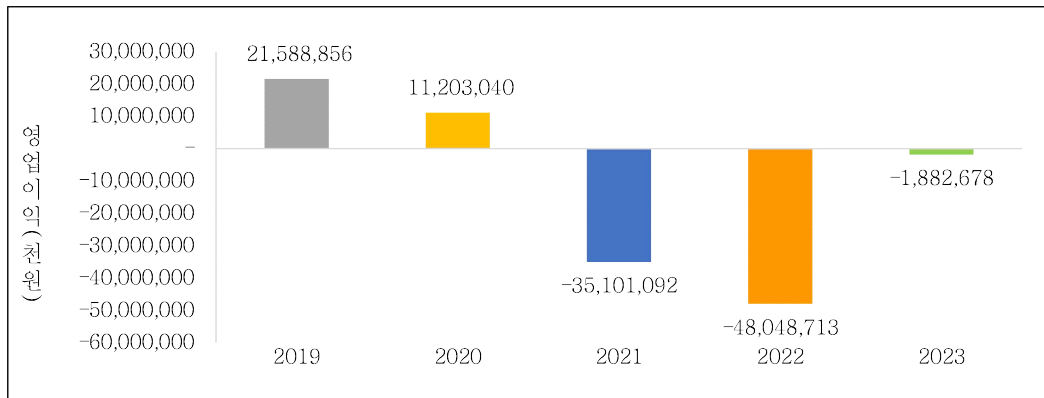
(제17장 정부 보조금의 회계처리) 수익 관련 보조금은 대응되는 비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면 영업수익으로 그렇지 않다면 영업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반면 수익 관련 보조금이 특정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고 특정의 비용과 상계처리 한다.

다음의 [그림 4-22]는 2021~2023년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은 2021년 약 351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2022년에는 약 480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462억 원 증가하여 약 18억 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업이익 손실 및 하락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침체로 가게 경제 악화, 수출 제한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후 코로나19 종료로 방역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방역 및 소득 관련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노무비 절감 등 비용구조 재정비와 운영 효율화가 이루어져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22] 연도별 영업이익 총액

(전체 3,566개소,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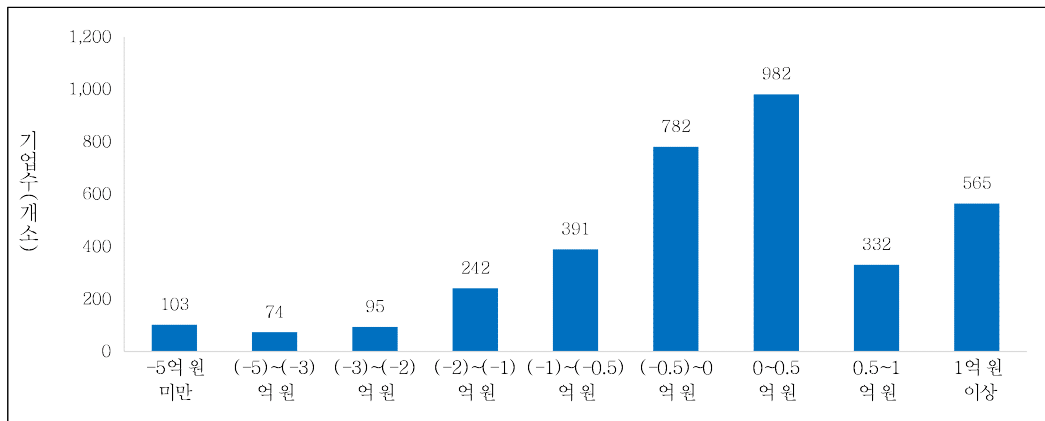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19, 2020, 2021, 2022, 2023)

[그림 4-2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2023년도에는 전체 3,566개의 사회적기업 중 52.7%인 1,879개소가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47.3%인 1,687개소가 영업손실을 보고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23년도 영업이익이 0~5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사회적기업이 27.5%(982개소)로 가장 많았고, -5천만~0원 사이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업이 21.9%(782개소)로 다음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5천만 원~1억 원의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9.3%(332개소), 1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기업이 15.8%(565개소)로 나타났다. 반면에 -1억~-5천만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11.0%(391개소)로 나타났고, -3억 원~-2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7%(95개소), -5억 원~-3억 원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는 2.1%(74개소), -5억 원 미만의 영업손실을 보고한 경우도 2.9%(103개소)에 달했다.

[그림 4-23]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66개소, 단위: 개소)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으로 <표 4-5>와 [그림 4-24]는 사회적기업의 연도별 영업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의 규모는 최근 3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표 4-5>를 보면 2023년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879개소였으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손실을 보고한 기업의 수는 1,656개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억 원~5천만 원, 0원~5천만 원, 1억 원 이상의 구간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5억 원 미만, -5천만 원~0원 구간은 2022년에 증가했다가 2023년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5천만 원~1억 원 구간은 2022년에 감소했다가 2023년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억 원~1억 원 구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5억 원~ -3억원, -3억 원~ -2억 원 구간은 유지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4-5> 연도별 영업이익(손실) 비중 비교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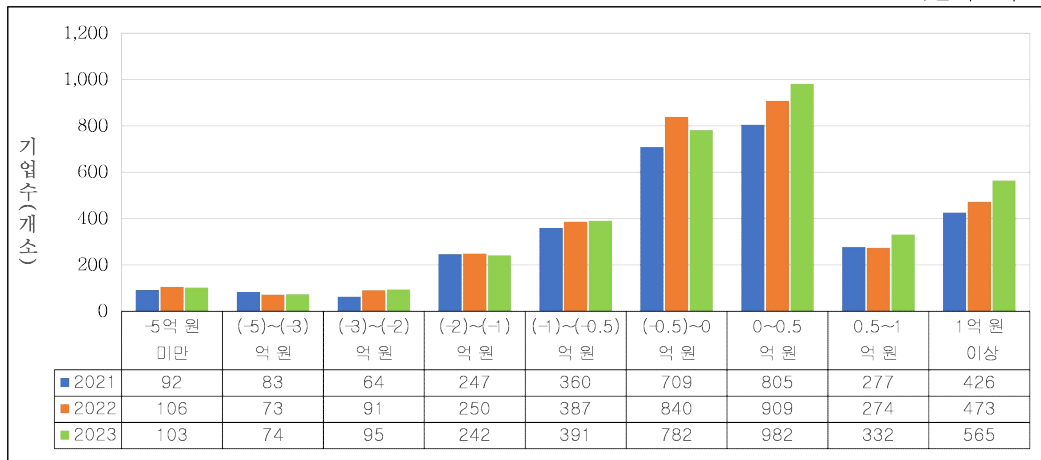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억 원 미만	92	3.0	106	3.1	103	2.9
-5억 원 ~ -3억 원	83	2.7	73	2.1	74	2.1
-3억 원 ~ -2억 원	64	2.1	91	2.7	95	2.7
-2억 원 ~ -1억 원	247	8.1	250	7.3	242	6.8
-1억 원 ~ -5천만 원	360	11.8	387	11.4	391	11.0
-5천만 원 ~ 0원	709	23.1	840	24.7	782	21.9
0원 ~ 5천만 원	805	26.3	909	26.7	982	27.5
5천만 원 ~ 1억 원	277	9.0	274	8.1	332	9.3
1억 원 이상	426	13.9	473	13.9	565	15.8
합계	3,063	100.0	3,403	100.0	3,566	100.0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24] 연도 및 영업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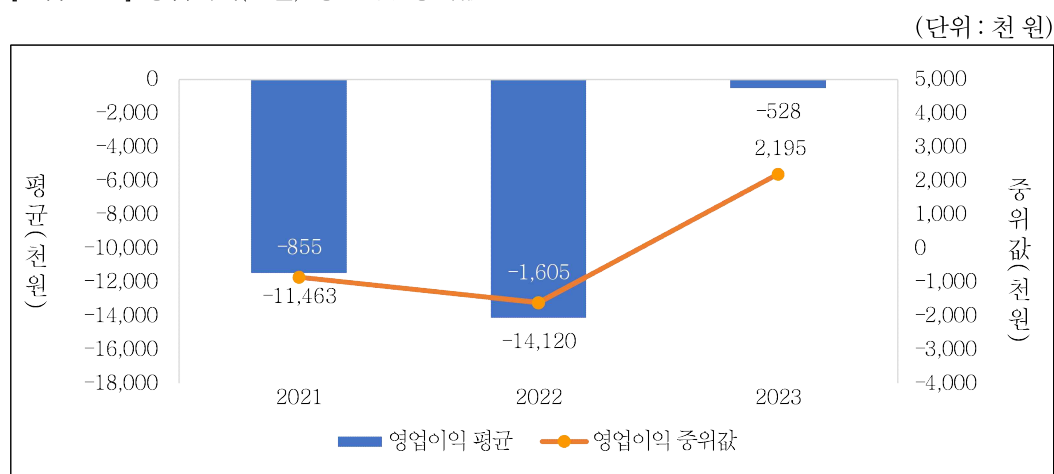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앞서 영업이익 총액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최근 3년 동안 사회적기업의 영업손실이 증가하였다가,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영업이익 평균과 중위값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그림 4-25]와 같이, 평균 영업이익은 2021년 약 -1천 1백 50만 원에서 2022년 약 -1천 4백 10만 원으로 급감한 후, 2023년 약 -50만 원으로 회복되었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 역시 2021년에 약 -90만 원에서, 2022년 약 -1백 6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3년 약 2백 20만 원으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5] 영업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편, <표 4-6>는 영업이익(손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제시했는데, 지역별로 영업이익(손실)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다. 30개소의 사회적기업이 분포된 세종을 제외하면, 평균 영업이익이 0원보다 높게 나타난 지역은 경남이 약 4천 6백만 원(191개소)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 2천 9백만 원(210개소), 충남 2천 3백만 원(151개소), 전남 1천 8백만 원(199개소), 광주 약 1천 만 원(153개소)로 총 5개 지역이 0보다 큰 평균 영업이익을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영업손실이 나타난 지역은 충북이 약 -2천 7백만 원(145개소), 부산 약 -2천 5백만 원(163개소), 전북 약 -2천만 원(211개소), 대구 약 -1천 3백만 원(132개소)의 순으로 총 12개 지역에서 영업손실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영업이익(손실)의 중위값은 광주, 전북, 전남, 충남,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경북, 대구, 충북이 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은 중위값이 0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6> 지역별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2,670	576	-4,131
부산	-25,126	163	-6,044
대구	-13,073	132	668
인천	29,841	210	2,484
광주	10,732	153	16,295
대전	-5,443	115	-11,699
울산	-8,233	111	2,268
세종	-6,090	30	-12,445
경기	-2,597	643	5,411
강원	-6,083	191	-54
충북	-27,023	145	298
충남	23,785	151	6,432
전북	-20,605	211	10,262
전남	18,658	199	8,875
경북	-3,796	260	915
경남	46,823	191	4,122
제주	-57,327	85	-19,047
전체	-528	3,566	2,195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4-26]은 인증연도별 사회적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손실)이다. 2007년을 제외하면 초창기에 인증받은 기업들은 최근 3년간 대체로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다. 반면, 2022년과 2023년처럼 안정되지 않은 시기를 제외하면, 비교적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들은 영업이익을 보고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2013년과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들은 2021~2023년 최근 3년간 꾸준히 영업이익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특정 기업의 영업이익이 미친 영향으로 보인다.

[그림 4-26] 인증연도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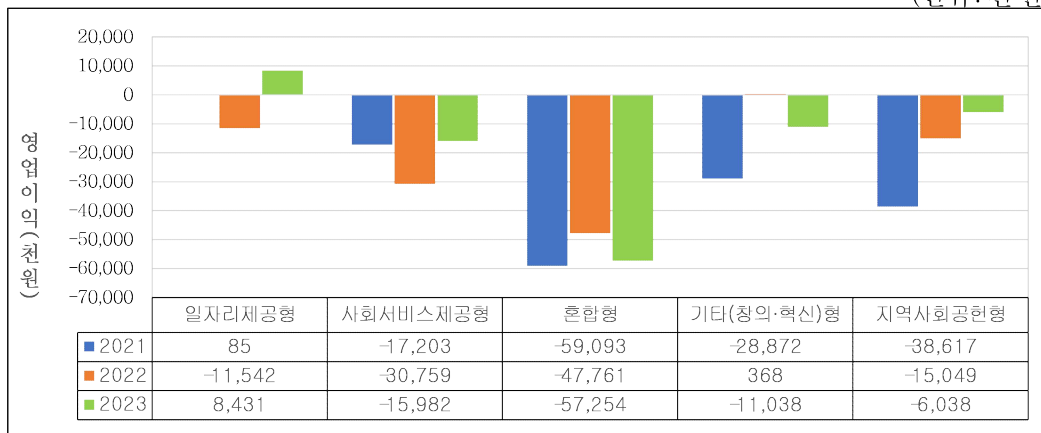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27]은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정리한 것으로, 2023년 기준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은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고,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은 전년 대비 평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2022년도에 평균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증가한 후, 2023년에는 증감 방향이 다시 반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7]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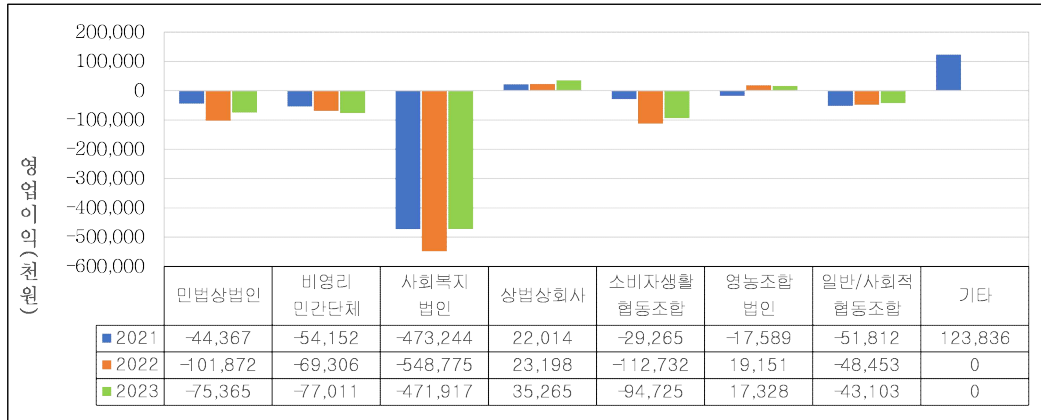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28]은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나타낸 것이다. 상법상회사와 영농조합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적기업은 모두 영업손실을 보고하고 있으며, 대체로 영업손실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상법상회사의 경우, 영업이익이 2021년 약 2천 2백만 원, 2022년 2천 3백만 원, 2023년 3천 5백만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영농조합법인은 2021년 약 -1천 8백만 원, 2022년 1천 9백만 원으로 영업이익을 회복한 뒤, 2023년 약 1천 7백만 원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최근 3년간 영업손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은 같은 기간 동안 영업손실이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2022년에 영업손실이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28]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영업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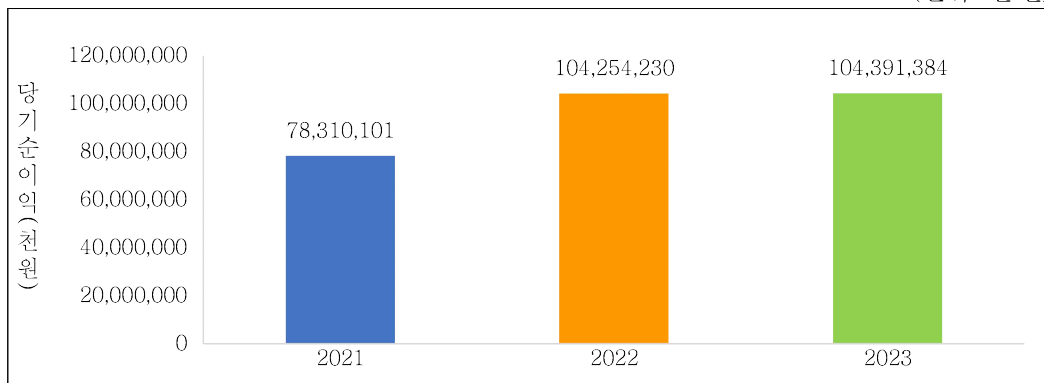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3. 당기순이익(손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당기순이익(손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음의 [그림 4-29]는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을 나타낸 그림이다. 2023년 사회적기업은 전년 대비 약 0.1% 증가한 1천 4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 증가한 이후 2023년에는 이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4-29]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총액

(단위: 천 원)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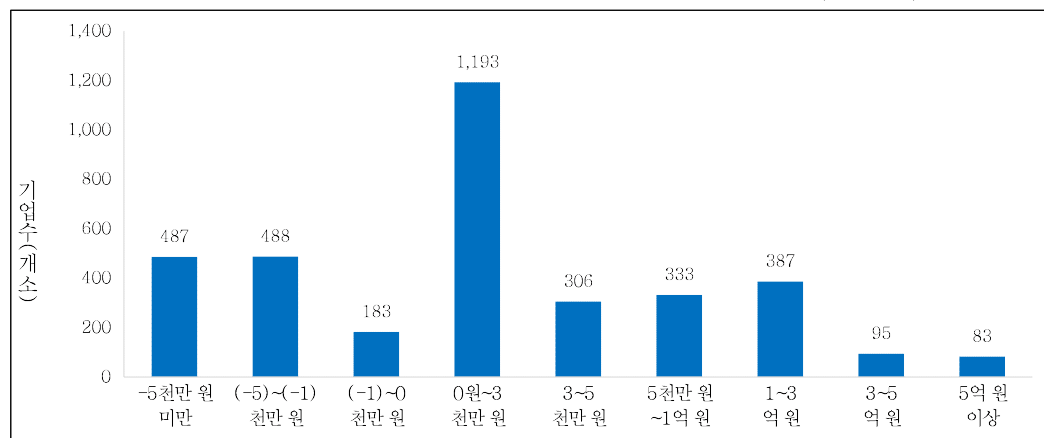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30]은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3,555개소 중 0~3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33.6%(1,193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5천만 원~1천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13.7%(488개소), 5천만 원 미만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이 13.7%(487개소)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7%(95개소), 5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보고한 기업은 2.3%(83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0]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전체 3,555개소, 단위: 개소)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4-7> 연도별 당기순이익(손실) 분포

(단위: 개소, %)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395	12.9	393	11.6	487	13.7
-5천만 원 ~ -1천만 원	407	13.3	438	12.9	488	13.7
-1천만 원 ~ 0원	162	5.3	185	5.5	183	5.1
0원 ~ 3천만 원	979	32.4	1,141	33.6	1,193	33.6
3천만 원 ~ 5천만 원	274	8.9	321	9.5	306	8.6
5천만 원 ~ 1억 원	332	10.8	381	11.2	333	9.4
1억 원 ~ 3억 원	344	11.2	385	11.3	387	10.9
3억 원 ~ 5억 원	85	2.8	72	2.1	95	2.7
5억 원 이상	72	2.4	78	2.3	83	2.3
합계	3,050	100.0	3,394	100.0	3,55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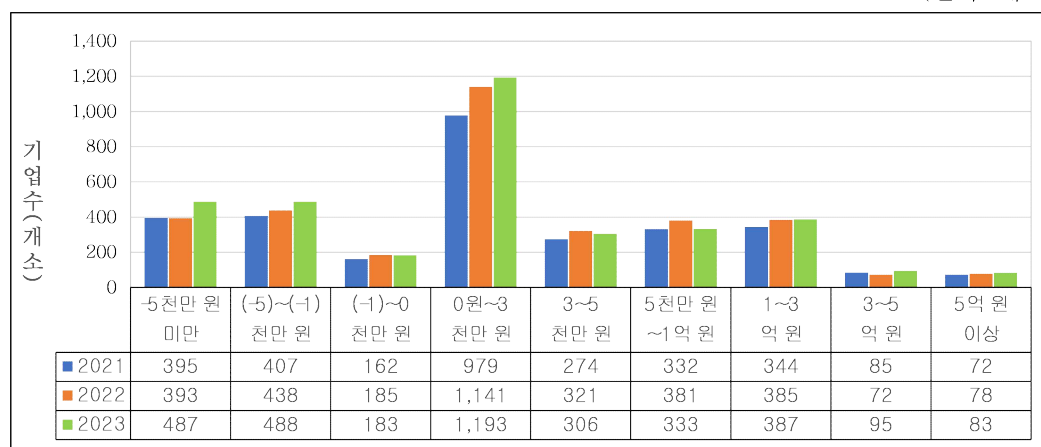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연도별로 당기순이익(손실)의 기업별 분포의 변화를 다음 [그림 4-31]에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의 분포는 구간별 비중에서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0원~3천만 원 구간은 2023년 소폭 증가하며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손실 구간인 -5천만 원 미만과 -5천만 원~-1천만 원 구간은 2021년 대비 다소 증가하였으나, 전체 비중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3천만 원~5천만 원과 5천만 원~1억 원 구간의 비중은 2022년에 증가한 후 2023년에는 감소하였다. 1억 원~3억 원, 3억 원~5억 원, 5억 원 이상 구간의 비중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유지하며 안정된 분포를 보였다.

[그림 4-31] 연도 및 당기순이익(손실)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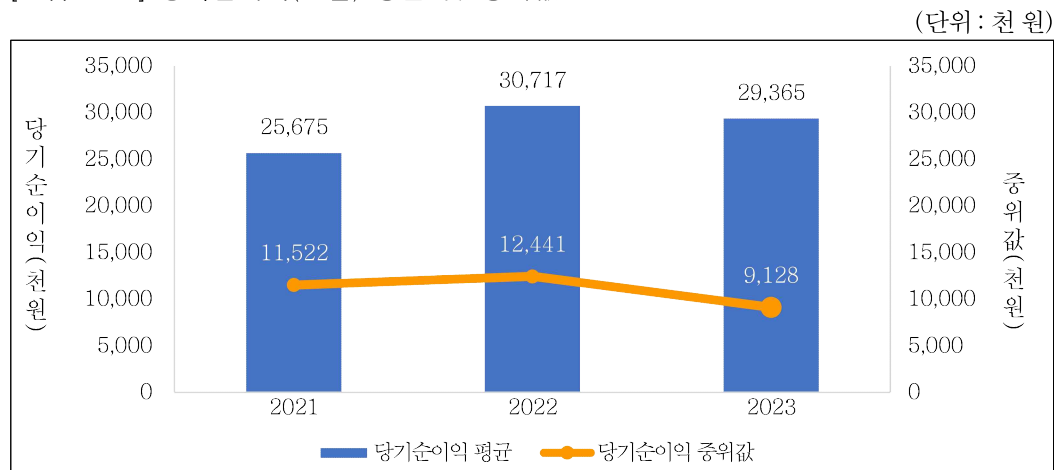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그림 4-32]는 당기순이익(손실)의 평균 및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이다. 사회적기업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은 2021년 약 2천 6백만 원에서 2022년 약 3천 1백만 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는 약 2천 9백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중위값도 2022년에 약 1천 2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23년에는 약 9백만 원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4-32] 당기순이익(손실) 평균 및 중위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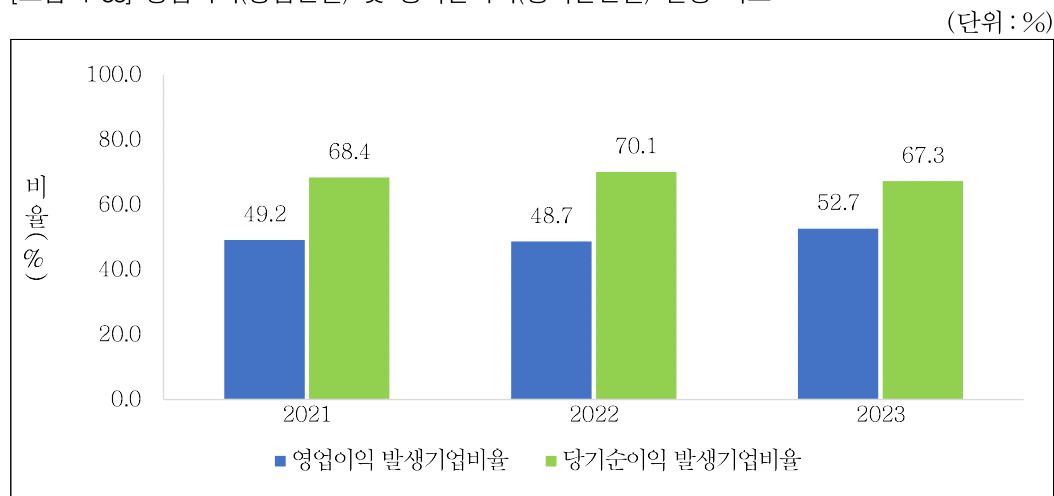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그림 4-33]은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손실)과 당기순이익(손실)의 발생을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영업이익을 보고한 기업의 비율은 2021년 49.2%에서 2022년 48.7%로 소폭 감소한 뒤, 2023년에는 52.7%로 증가하였다. 반면, 당기순이익 발생기업 비율은 2021년 68.4%에서 2022년 70.1%로 증가했으나, 2023년에는 67.3%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기업의 경영환경 및 성과의 변화라고 성급하게 해석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림 4-33] 영업이익(영업손실) 및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발생 비교



주: 영업이익(손실) 및 당기순이익(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표 4-8>은 2023년 사회적기업 당기순이익(순실)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로, 경남(약 5천 6백만 원), 인천(약 5천만 원) 순으로 당기순이익(순실)이 높았으며, 부산(약 -6백만 원), 전북(약 -3백만 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중위값으로 살펴보면, 경기, 전남(약 1천 7백만 원), 광주(약 1천 6백만 원), 전북(약 1천 5백만 원) 순으로 높았으며, 반면에 세종(약 1백만 원)이 중위값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지역별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25,712	576	5,524
부산	-6,519	162	3,288
대구	696	132	3,997
인천	50,146	208	8,270
광주	48,731	152	15,753
대전	25,722	115	4,274
울산	14,906	110	5,617
세종	23,383	30	1,090
경기	36,345	641	17,039
강원	34,349	190	4,954
충북	24,600	145	7,527
충남	44,312	151	9,239
전북	-2,813	210	15,412
전남	46,443	199	17,002
경북	22,309	259	6,079
경남	56,067	190	9,019
제주	26,408	85	1,900
전체	29,365	3,555	9,128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아래 [그림 4-34]는 최근 3년간의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인증연도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인증연도별 추세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2021년에서 2023년으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순이익 흐름을 보였으나 일부 연도에서는 감소세가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 인증기업의 경우 2023년에 평균이 약 -6천 6백만 원으로 감소하였고, 2012년 인증기업의 경우 2023년 평균이 약 -3천 6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는 일부 특정 기업의 대규모 손실이 평균에 영향을 미친 결과일 수 있어 신중한 해석이 필요하다.

[그림 4-34] 인증연도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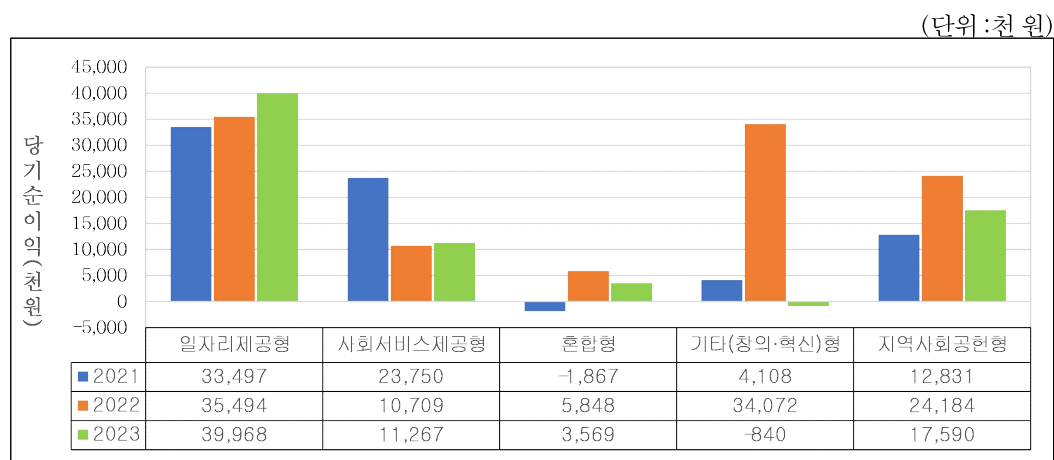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그림 4-35]는 최근 3년간의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기타(창의·혁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사회적기업이 최근 3년간 당기순이익(손실)을 보고하였고, 3개년 모두 일자리제공형의 평균값이 가장 높았다. 최근 3개년 추세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제공형은 전년 대비 2023년 당기순이익(손실)이 증가한 반면,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5] 인증유형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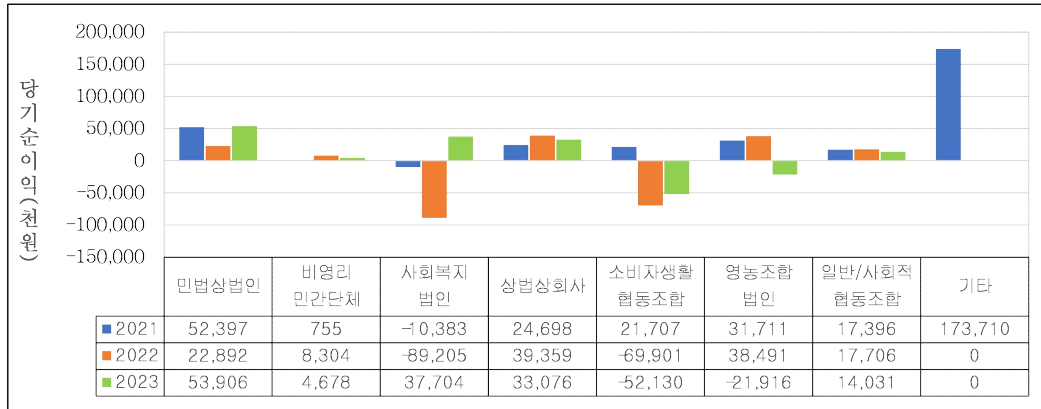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그림 4-36]은 최근 3년간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손실)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민법상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상법상회사,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한 2022년에는 음의 성장을 보였다가 2023년부터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23년 당기순손실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1>과 <표 부가분석 4-2>에서는 앞서 정리한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의 총액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그림 4-36] 조직형태별 평균 당기순이익(손실)

(단위: 천 원)



주: 당기순이익(순손실)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재정성과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4-1> 재정성과 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21	2022	2023
매출액	전체총액	5,975,954,691	6,854,081,778	7,285,120,389
	인증연도	2007	137,312,057	151,874,286
		2008	186,898,295	185,451,232
		2009	99,888,557	84,806,327
		2010	221,575,732	242,490,014
		2011	229,636,549	271,511,754
		2012	203,466,364	216,031,339
		2013	1,185,451,022	1,277,027,585
		2014	378,897,908	400,830,149
		2015	353,848,342	386,998,418
		2016	545,061,022	572,630,697
		2017	322,217,781	351,561,507
		2018	527,259,006	562,228,646
		2019	490,486,785	563,416,813
		2020	569,458,199	624,657,108
		2021	524,497,071	593,724,697
		2022	-	368,841,204
		2023	-	321,709,439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041,287,528	4,695,283,872
		사회서비스제공형	214,336,488	249,248,672
		혼합형	171,635,687	194,428,060
		기타형	1,250,875,303	1,361,503,770
		지역사회공헌형	297,819,684	353,617,403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703,637,605	716,912,751
		비영리민간단체	39,472,838	22,941,489
		사회복지법인	140,336,665	165,371,443
		상법상회사	4,300,806,456	5,046,861,05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552,040	36,666,808
		영농조합법인	170,319,820	194,299,14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78,980,284	671,029,083
		기타	9,848,983	-

항목			2021	2022	2023
공공 매출	전체총액		2,508,949,074	2,905,701,435	3,201,460,255
	인증 연도	2007	62,195,460	80,475,179	84,052,034
		2008	102,099,061	95,320,036	97,427,934
		2009	65,714,467	64,479,636	51,170,597
		2010	95,867,123	93,226,494	104,584,982
		2011	125,737,915	137,068,227	167,945,940
		2012	111,647,770	127,563,609	123,836,315
		2013	123,683,147	137,044,944	129,694,728
		2014	191,801,975	177,833,960	206,486,129
		2015	218,925,936	257,980,861	251,122,356
		2016	221,281,398	232,738,184	262,806,496
		2017	188,507,541	208,569,435	231,369,565
		2018	306,875,758	343,990,297	354,142,036
		2019	208,492,980	256,300,973	256,964,637
		2020	285,518,697	342,089,733	358,215,477
		2021	200,599,847	238,668,224	270,041,129
		2022	-	112,351,641	126,307,570
		2023	-	-	125,292,32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079,491,746	2,378,634,913	2,591,627,363
		사회서비스제공형	122,986,378	155,242,654	203,433,190
		혼합형	102,556,939	113,348,883	123,927,710
		기타형	100,674,409	123,430,204	137,540,688
		지역사회공헌형	103,239,603	135,044,781	144,931,304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59,500,189	501,344,037	532,410,117
		비영리민간단체	25,988,325	13,950,474	17,392,581
		사회복지법인	84,112,550	92,078,701	96,177,848
		상법상회사	1,601,568,236	1,893,700,660	2,094,361,7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747,159	1,258,591	1,271,619
		영농조합법인	24,954,423	32,008,667	29,418,68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07,555,572	371,360,307	430,427,685
		기타	2,522,621	-	-
민간 매출	전체총액		3,467,005,616	3,948,380,342	4,083,660,134
	인증 연도	2007	75,116,598	71,399,107	77,377,460
		2008	84,799,235	90,131,196	124,432,614
		2009	34,174,090	20,326,691	25,549,733
		2010	125,708,609	149,263,520	154,406,354
		2011	103,898,634	134,443,528	97,283,860
		2012	91,818,595	88,467,730	59,996,143
		2013	1,061,767,874	1,139,982,641	1,058,941,258
		2014	187,095,932	222,996,188	220,582,931
		2015	134,922,406	129,017,557	147,020,661

항목			2021	2022	2023
민간 매출	인증 연도	2016	323,779,624	339,892,513	295,798,554
		2017	133,710,240	142,992,072	141,809,239
		2018	220,383,248	218,238,349	223,493,467
		2019	281,993,805	307,115,840	300,172,869
		2020	283,939,503	282,567,375	296,608,013
		2021	323,897,224	355,056,473	391,401,047
		2022	-	256,489,563	272,368,822
		2023	-	-	196,417,110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961,795,782	2,316,648,959	2,512,566,339
		사회서비스제공형	91,350,110	94,006,019	109,988,816
		혼합형	69,078,748	81,079,177	88,054,301
		기타형	1,150,200,894	1,238,073,565	1,151,930,400
		지역사회공헌형	194,580,082	218,572,622	221,120,27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44,137,416	215,568,714	215,373,197
		비영리민간단체	13,484,513	8,991,015	9,629,331
		사회복지법인	56,224,115	73,292,742	87,537,421
		상법상회사	2,699,238,220	3,153,160,397	3,248,054,55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804,881	35,408,218	36,559,317
		영농조합법인	145,365,397	162,290,480	177,350,13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71,424,712	299,668,776	309,156,176
		기타	7,326,362	-	-
영업 이익	전체총액		-35,101,092	-48,048,714	-1,882,678
	인증 연도	2007	-3,656,806	1,468,543	527,725
		2008	-9,845,804	-13,942,147	-8,616,615
		2009	-1,297,855	-3,783,918	-5,691,493
		2010	-5,354,492	-6,653,204	-4,429,421
		2011	-10,876,717	-8,291,970	-12,601,135
		2012	-5,426,890	-7,423,171	-9,595,949
		2013	4,971,460	3,305,798	1,357,915
		2014	-4,781,425	-1,098,851	-379,647
		2015	-101,758	2,803,948	4,700,799
		2016	-1,274,697	-705,570	4,212,696
		2017	-2,911,011	-4,111,456	6,098,359
		2018	13,499,826	4,731,230	875,895
		2019	-6,545,001	-13,927,675	8,212,873
		2020	1,269,396	6,940,170	5,401,037
		2021	-2,769,318	-3,311,160	11,363,556
		2022	-	-4,049,280	-965,992
		2023	-	-	-2,353,28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72,825	-26,188,057	20,081,511
		사회서비스제공형	-3,801,779	-8,151,144	-4,826,530
		혼합형	-11,405,037	-9,408,913	-11,164,497
		기타형	-10,567,223	138,724	-4,028,919
		지역사회공헌형	-9,499,878	-4,439,323	-1,944,243

항목			2021	2022	2023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5,217,931	-30,459,819	-22,609,545
		비영리민간단체	-3,953,065	-4,089,028	-4,081,603
		사회복지법인	-34,073,544	-40,060,606	-34,449,939
		상법상회사	43,873,455	52,868,524	85,023,77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1,911	-1,240,048	-1,041,971
		영농조합법인	-1,758,864	2,259,828	1,784,80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144,576	-27,327,565	-26,508,197
		기타	495,344	-	-
당기 순이익	전체총액		78,310,101	104,254,230	104,391,384
	인증 연도	2007	2,385,319	6,566,839	6,008,861
		2008	5,537,387	2,175,174	8,128,597
		2009	2,350,327	2,316,359	342,168
		2010	4,030,742	2,195,436	4,639,184
		2011	-542,973	529,037	-5,772,835
		2012	3,408,312	2,324,713	-3,541,189
		2013	9,734,538	3,320,095	1,100,319
		2014	2,984,763	5,554,032	5,808,026
		2015	50,763	7,758,511	1,455,843
		2016	-16,490,167	9,194,226	1,941,856
		2017	2,111,594	4,038,344	9,135,210
		2018	23,052,862	11,149,497	5,586,915
		2019	5,653,552	-2,521,600	10,329,287
		2020	17,035,406	20,813,190	13,235,260
		2021	17,007,676	17,259,675	27,089,655
		2022	-	11,580,702	9,355,877
		2023	-	-	9,548,34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68,065,956	80,359,433	95,003,662
		사회서비스제공형	5,989,546	2,805,666	3,368,850
		혼합형	-358,461	1,157,892	695,995
		기타형	1,495,221	12,845,201	-305,842
		지역사회공헌형	3,117,839	7,086,037	5,628,720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762,492	6,775,976	16,063,974
		비영리민간단체	53,600	489,915	238,566
		사회복지법인	-716,418	-6,333,520	2,639,264
		상법상회사	49,172,769	89,580,669	79,679,29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8,782	-768,916	-573,432
		영농조합법인	3,171,129	4,541,895	-2,257,395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106,615	9,968,212	8,601,113
		기타	521,131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3)

<표 부가분석 4-2> 재정성과 총액 분석(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천 원)

매출액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24894600	179091302	131538958	331737802	234053079	189913822	124552557	47769577	160703471	288169138	221484553	200890355	312319903	232574392	531273519	274094855	101583655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34271793	310212697	-	92610655	170269873	557900073	19593643	643757545	95336419	212614950	63078957	12371144	152410005	276448805	139062351	24668727	51463330
공공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0099181	98622007	58783975	148974195	134822976	78338157	46021129	2228286	80610824	178419884	107222182	133207355	146903414	95218059	136153678	9865697	3249473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65984336	193338465	-	16378336	238708274	315116323	2055829	333753923	18189233	101766058	44331177	2233655	70755817	1416802825	51524704	18595587	14470651
민간매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4806589	8048445	72814984	19073035	99231104	111710664	78531458	25486710	71640647	109749254	114232371	74682949	165465489	15335334	355119841	175465198	69084182
	표준산업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3257195	116844230	-	7623209	143398338	22284551	1783384	33993623	78407157	110818883	18818810	10077479	81654189	134765239	87571557	6068289	339289

<표 부가분석 4-2> 계속

(단위 : 천 원)

영업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537,888	-4,055,579	-1,725,634	6,333,037	1,642,009	-625,905	-913,880	-182,694	-1,633,898	-1,161,800	-3,918,275	3,391,530	-4,347,674	3,713,000	-983,999	8,943,185	-4,872,834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317,244	-10,451,243	-	-1,725,694	1,544,034	-9,851,131	730,178	4,233,460	-4,222,413	-13,631,274	709,039	1,166,449	4,012,846	13,543,323	4,112,123	7,285,990	-5,671,579
당기순 이익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4,810,230	-1,031,115	91,886	10,430,333	7,407,000	2,957,977	1,639,635	701,491	23,237,449	6,336,332	3,333,981	6,691,037	-530,821	9,242,226	5,778,105	10,652,732	2,244,676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8,522,697	-24,374	-	2,873,702	-45,936	6,430,051	-1,091,651	10,348,836	-146,475	-1,838,419	1,512,487	1,070,565	4,970,321	5,859,061	5,613,757	7,961,716	-635,146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제2절 지출 : 비용구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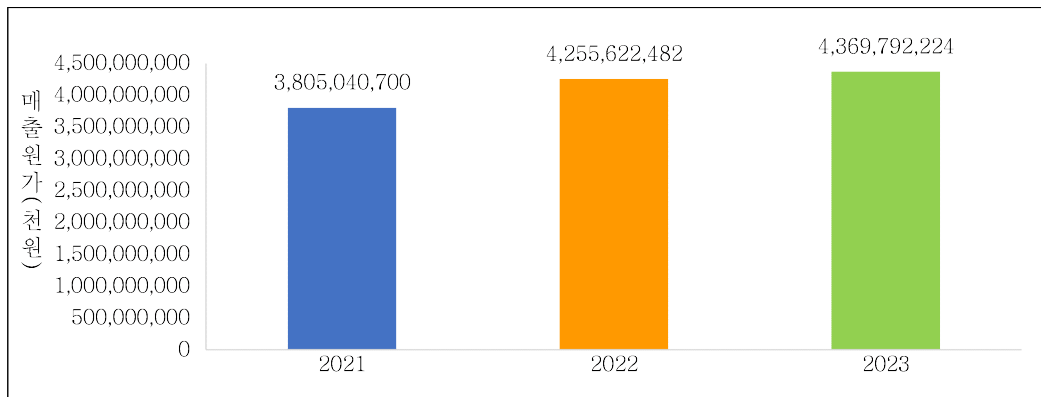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앞서 수입구조에 대한 분석에 이어 사회적기업의 비용구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사업보고서 양식에서 비용구조로 구분하여 분석에서 사용될 수 있는 지표들로는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경비 포함), 영업외비용, 인건비(노무비 포함)가 있다.

1. 매출원가

다음 [그림4-37]에서는 사회적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3년의 매출원가 총액은 약 4조 3천 7백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천억 원이 증가하였다. 이는 2021~2022년 사이의 매출원가 증가액인 약 5천억 원보다 감소하였지만, 최근 3년간 매출원가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4-37] 연도별 매출원가 금액

(단위: 천 원)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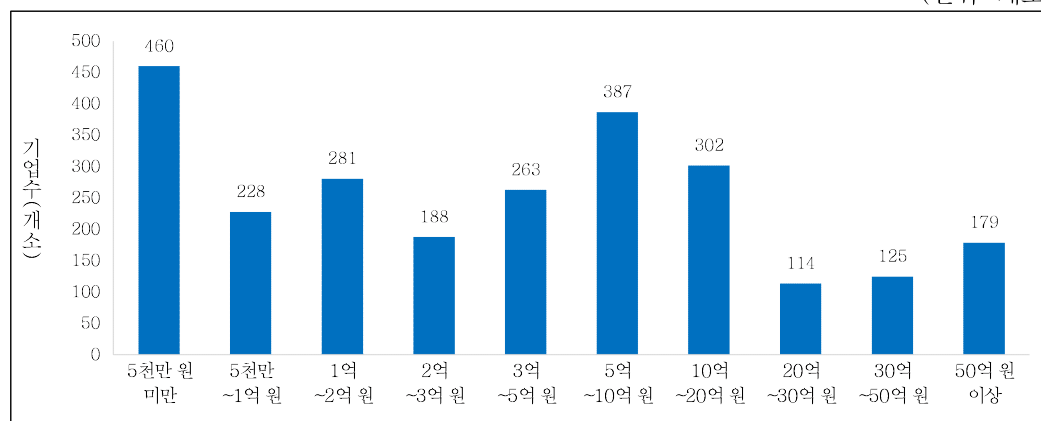
아래의 [그림 4-38]은 매출원가의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제시하였다. 먼저 매출원가를 보고한 전체 2,527개소 중 2023년도 매출원가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보고한 사회적기업이 18.2%(460개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5억~10억

원이 15.3%(387개소), 10억~20억 원이 12.0%(302개소)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 원가가 50억 원 이상인 사회적기업도 7.1(179개소)로 나타났다.

3억 원을 기준으로 전체 사회적기업 중 3억 원 미만의 매출원가를 보고한 경우는 45.7%(1,157개소)이며, 3억 원 이상이 54.2%(1,370개소)로 나타났다.

[그림 4-38] 매출원가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4-9> 연도별 매출원가 비중 비교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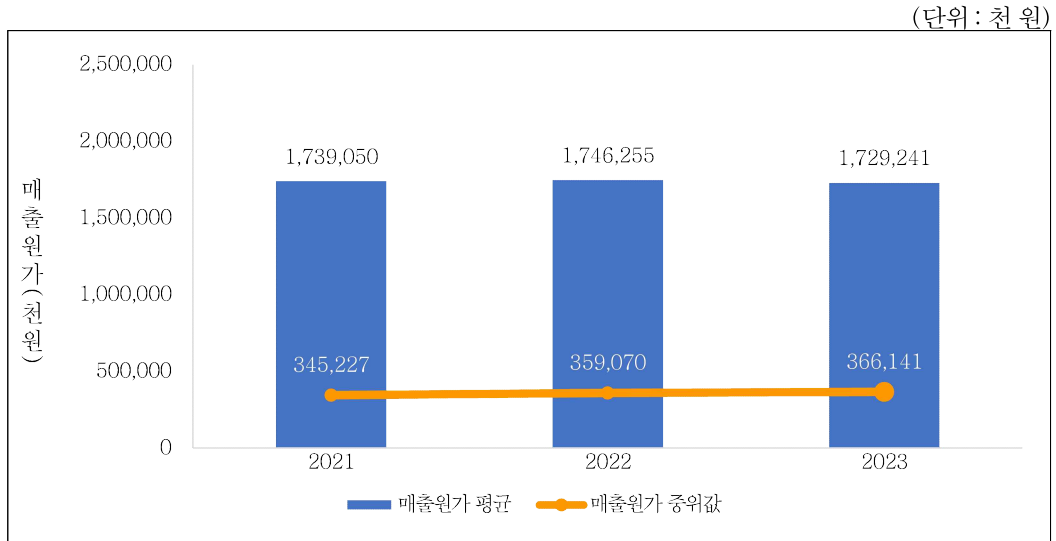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420	19.2	451	18.5	460	18.2
5천만 ~ 1억 원	198	9.0	232	9.5	228	9.0
1억 ~ 2억 원	240	11.0	273	11.2	281	11.1
2억 ~ 3억 원	179	8.2	184	7.6	188	7.4
3억 ~ 5억 원	241	10.9	258	10.6	263	10.4
5억 ~ 10억 원	297	13.6	352	14.4	387	15.3
10억 ~ 20억 원	265	12.1	292	12.0	302	12.0
20억 ~ 30억 원	104	4.8	114	4.7	114	4.5
30억 ~ 50억 원	104	4.8	123	5.0	125	4.9
50억 원 이상	140	6.4	158	6.5	179	7.1
합계	2,188	100.0	2,437	100.0	2,527	100.0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 [그림4-39]는 최근 3년간의 매출원가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제시하였다. 매출원가 평균은 2022년 약 1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3년 다시 17억 3천만 원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2021년부터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약 3억 7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그림 4-39] 연도별 매출원가 평균 및 중위값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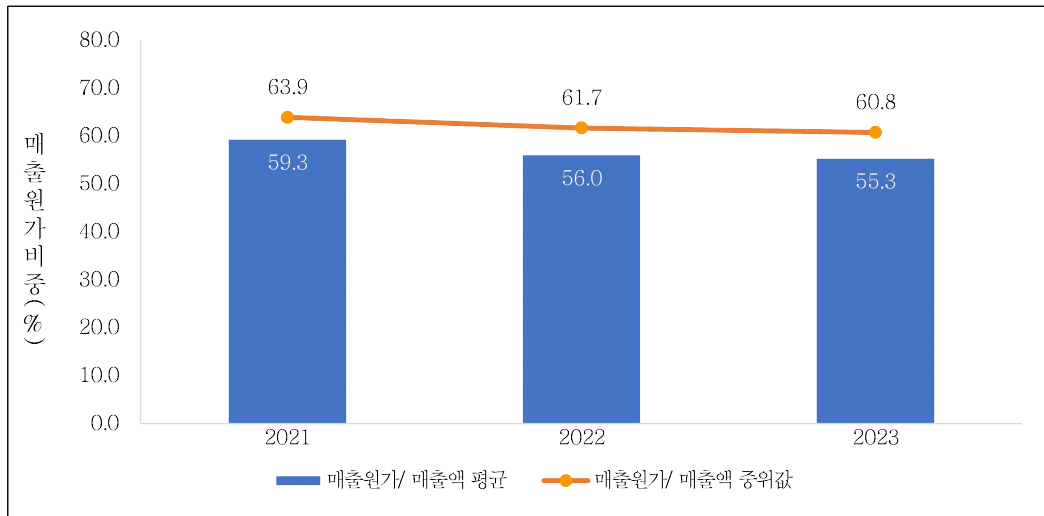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 [그림4-40]은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나타내는 그림이다. 평균 기준일 때,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1년 59.3%, 2022년 56.0%, 2023년 55.3%로 60% 미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21년 63.9%, 2022년 61.7%, 2023년 60.8%로 매년 60%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4-40] 연도별 매출액(평균 및 중위값)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4-10>은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평균/중위값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비교한 결과이다. 서울의 경우 매출원가의 평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약 41억 7천만 원), 평균 매출원가가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약 7억 6천만 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매출액 평균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살펴보면, 경북(61.3%)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세종을 제외하고 대전이 4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매출원가의 중위값은 경기(약 5억 8천만 원), 경북(약 4억 9천만 원), 울산(약 4억 1천만 원), 광주(약 4억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전(약 2억 1천만 원)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

지역	항목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매출원가	4,171,992	369	362,368
	매출원가 비중	54.8	369	56.0
부산	매출원가	772,314	101	251,868
	매출원가 비중	48.6	101	51.1
대구	매출원가	758,073	81	373,016
	매출원가 비중	53.4	81	58.0
인천	매출원가	1,155,320	157	318,759
	매출원가 비중	55.6	157	61.8
광주	매출원가	1,292,746	112	404,446
	매출원가 비중	49.6	112	52.4
대전	매출원가	873,326	75	211,042
	매출원가 비중	47.4	75	48.2
울산	매출원가	889,118	79	414,574
	매출원가 비중	61.1	79	69.5
세종	매출원가	1,052,100	23	300,592
	매출원가 비중	52.7	23	56.5
경기	매출원가	1,820,560	460	581,489
	매출원가 비중	56.9	460	64.3
강원	매출원가	1,363,811	136	232,933
	매출원가 비중	54.4	136	60.1
충북	매출원가	1,127,207	110	351,185
	매출원가 비중	55.7	110	60.4
충남	매출원가	970,498	116	322,407
	매출원가 비중	53.7	116	60.8
전북	매출원가	1,138,751	150	376,908
	매출원가 비중	54.8	150	59.7
전남	매출원가	996,556	166	347,372
	매출원가 비중	58.0	166	65.2
경북	매출원가	1,983,276	198	488,356
	매출원가 비중	61.3	198	67.6
경남	매출원가	1,211,581	137	308,262
	매출원가 비중	53.7	137	62.6
제주	매출원가	883,968	57	339,001
	매출원가 비중	55.8	57	56.5
전체	매출원가	1,729,241	2,527	366,141
	매출원가 비중	55.3	2,527	60.8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을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 4-11>에서 제시하였다. 우선 인증연도가 2013년, 기타(창의·혁신)형의 매출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대로 매출이 큰 특정 기업의 극단값이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이다. 그 외 인증연도별로 살펴보면 2007년, 2008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인증기업의 매출원가 평균이 최근 3년간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은 2007년 인증기업이 2023년 71.5%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7.0%p)하였으나, 2012년 인증기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3.0%p)하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2021년도 약 49억 원, 2022년 약 51억 원, 2023년 약 48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보고하였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중은 일자리제공형이 최근 3년간 59.7~63.6%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으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별 분류를 살펴보자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약 26억 원 내외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안정적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매출원가의 비중은 사회복지법인 최근 3년간 약 84% 내외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중
(단위: 천 원, %)

구분		2021		2022		2023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매출원가	매출원가비중
인증 연도	2007	3,098,328	66.2	3,607,019	64.5	4,481,451	71.5
	2008	1,362,812	74.0	1,475,909	68.4	1,506,433	67.5
	2009	1,123,505	56.9	1,203,761	55.3	928,859	53.6
	2010	1,695,827	64.4	1,910,699	61.3	2,099,715	59.2
	2011	2,225,348	79.7	2,508,269	72.6	2,723,074	73.4
	2012	1,754,130	58.2	1,795,229	58.1	1,452,660	55.1
	2013	7,545,875	63.4	8,857,171	63.7	8,991,013	62.4
	2014	1,628,735	59.6	1,634,022	56.9	1,905,005	57.7
	2015	1,166,155	55.1	1,459,456	54.3	1,569,368	56.6
	2016	2,380,973	69.8	2,531,302	53.9	2,620,745	55.5
	2017	1,264,382	59.2	1,427,434	57.0	1,709,537	56.5
	2018	1,486,517	57.6	1,526,900	57.8	1,665,689	56.0
	2019	1,132,456	56.8	1,347,641	54.9	1,347,008	56.1
	2020	1,033,701	53.9	1,087,698	51.7	1,253,880	53.5
	2021	863,179	54.3	971,501	55.7	1,111,774	53.9
	2022	-	-	634,111	49.6	668,160	48.6
	2023	-	-	-	-	718,572	50.6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616,552	63.6	1,657,557	60.6	1,693,344	59.7
	사회서비스제공형	363,819	39.1	235,208	30.6	252,000	29.8
	혼합형	430,348	56.5	424,961	45.7	417,644	43.3
	기타(창의·혁신)형	4,896,559	41.0	5,056,363	39.4	4,779,926	42.2
	지역사회공헌형	944,110	55.2	906,131	54.8	861,504	53.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2,139,957	68.7	2,391,643	66.4	2,512,510	70.1
	비영리민간단체	737,279	52.1	194,382	48.1	204,983	55.7
	사회복지법인	1,855,233	84.1	1,972,627	84.4	1,915,512	83.6
	상법상회사	1,908,793	58.7	1,934,284	55.6	1,883,435	54.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26,616	71.3	2,638,092	71.8	2,660,967	74.0
	영농조합법인	1,380,024	68.6	1,293,751	68.0	1,596,959	65.1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06,418	48.7	771,176	45.1	750,572	44.7
	기타	2,450,892	60	-	-	-	-

주: 매출원가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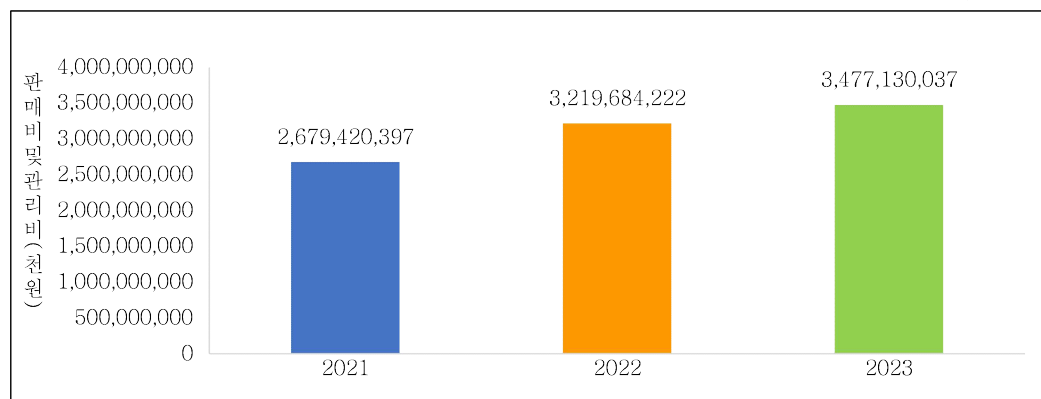
2. 판매비 및 관리비(경비 포함)

다음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증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제조원가명세서의 경비를 포함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아래 [그림 4-41]에는 사회적기업 최근 3년간 판매비 및 관리비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23년 사회적기업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약 3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천 6백억 원이 증가하였고,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림 4-41]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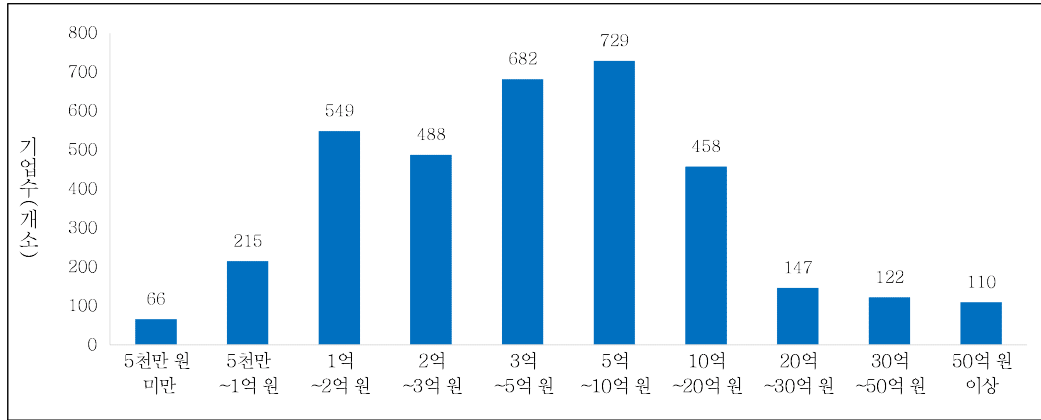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42]는 사회적기업의 2023년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도와 분포별 기업 수를 살펴본 것이다. 전체 3,566개소 중 5억~10억 원 사이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지출한 사회적기업이 20.4%, 729개소로 가장 많았고, 3억~5억 원 19.1%(682개소), 1억~2억 원 15.4%(549개소) 순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 지출을 보고하는 사회적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42] 판매비 및 관리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4-12> 연도별 판매비 및 관리비 비중

(단위: 개소, %)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84	2.7	74	2.2	66	1.9
5천만 ~ 1억 원	224	7.3	224	6.6	215	6.0
1억 ~ 2억 원	552	18.0	566	16.6	549	15.4
2억 ~ 3억 원	410	13.4	441	12.9	488	13.7
3억 ~ 5억 원	535	17.5	641	18.8	682	19.1
5억 ~ 10억 원	599	19.6	688	20.2	729	20.4
10억 ~ 20억 원	377	12.3	442	13.0	458	12.8
20억 ~ 30억 원	103	3.4	115	3.4	147	4.1
30억 ~ 50억 원	101	3.3	117	3.4	122	3.4
50억 원 이상	78	2.5	99	2.9	110	3.1
합계	3,063	100.0	3,407	100.0	3,56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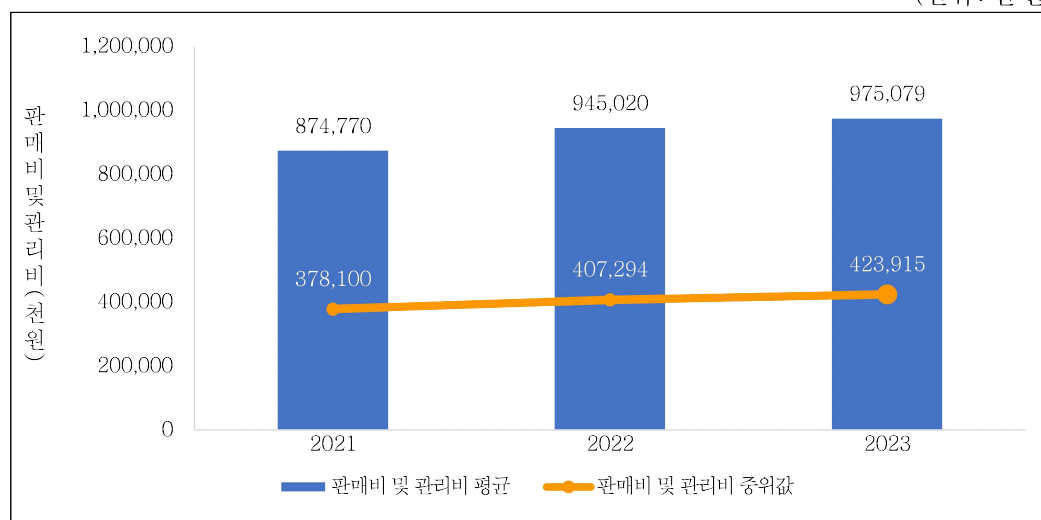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의 [그림 4-43]에는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평균값은 2021년 약 8억 7천만 원, 2022년 약 9억 5천만 원, 2023년 약 9억 8천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중위값은 2021년 약 3억 8천만 원, 2022년 약 4억 1천만 원, 2023년에 약 4억 2천만 원으로 지속 증가추세를 보였다.

[그림 4-43]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표 4-13>은 판매비 및 관리비의 평균과 중위값을 지역에 따라 분류한 내용이다.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약 14억 5천만 원), 경기(약 14억 2천만 원)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전남(약 5억 8천만 원), 울산(약 6억 원), 대구(약 6억 1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경기(약 6억 2천만 원), 서울(약 5억 3천만 원)은 5억 원을 넘어 상대적으로 높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이는 반면, 강원(약 3억 1천만 원)과 경남(약 3억 2천만 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고하여 지역별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지역별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1,450,036	575	528,833
부산	744,952	163	358,520
대구	612,379	132	425,723
인천	837,634	210	385,926
광주	684,521	153	435,627
대전	1,180,125	116	385,599
울산	603,697	111	375,644
세종	886,426	30	417,492
경기	1,429,131	643	617,373
강원	643,076	191	314,643
충북	826,667	145	384,371
충남	674,190	151	341,302
전북	815,885	211	402,293
전남	582,828	199	293,882
경북	730,478	260	356,939
경남	658,711	191	320,554
제주	737,235	85	451,704
전체	975,079	3566	423,915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아래 <표 4-14>는 사회적기업의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연도별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인증연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23년 기준 2007년 인증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고, 2008년~2011년, 2016년 인증기업을 제외한 모든 인증연도의 기업이 판매비 및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인증유형의 경우, 2023년을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약 10억 4천만 원)과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서비스제공형(약 9억 6천만 원), 혼합형(약 9억 3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은 3년간 가장 낮은 수준의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를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의 판매비 및 관리비 평균이 2023년 약 16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5억 3천만 원, 영농조합법인이 약 5억 9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판매비 및 관리비 수준을 보였다.

<표 4-14>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판매비 및 관리비

(단위: 천 원)

구분		2021	2022	2023
인증 연도	2007	2,545,817	2,634,685	3,103,484
	2008	1,269,017	1,238,218	1,719,367
	2009	1,668,891	1,384,071	1,450,708
	2010	948,002	1,198,910	1,133,655
	2011	1,195,712	1,528,427	1,352,865
	2012	912,519	1,060,228	1,102,389
	2013	1,011,759	1,318,054	1,442,355
	2014	1,014,816	1,183,333	1,351,314
	2015	992,067	1,096,192	1,260,042
	2016	1,093,513	1,196,934	1,090,253
	2017	767,945	803,855	962,920
	2018	960,438	1,076,889	1,225,565
	2019	669,087	870,112	904,806
	2020	717,606	846,040	915,709
	2021	556,581	654,368	745,998
	2022	-	492,937	569,815
	2023	-	-	487,218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22,222	1,009,357	1,040,828
	사회서비스제공형	838,726	889,271	961,440
	혼합형	749,500	820,551	937,625
	기타(창의·혁신)형	840,828	901,167	962,501
	지역사회공헌형	663,704	641,434	539,736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091,802	1,441,702	1,430,194
	비영리민간단체	385,970	393,959	533,344
	사회복지법인	1,093,565	1,361,893	1,670,784
	상법상회사	863,115	932,515	965,73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961,274	1,047,812	1,114,840
	영농조합법인	499,127	494,965	586,05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884,989	828,419	807,103
	기타	1,138,373	-	-

주: 판매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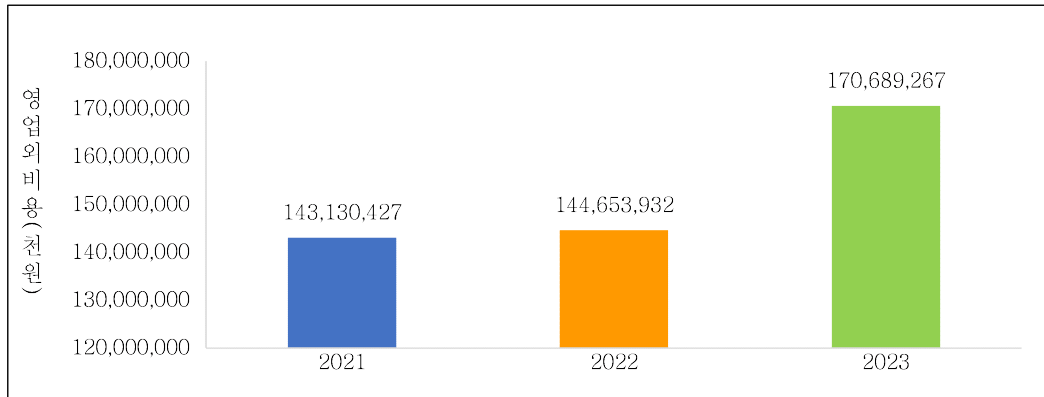
3. 영업외비용

다음으로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경영활동 이외의 경영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이자비용(지급이자와 할인료 및 사채이자 포함), 이연자산상각비, 유가증권처분손실, 유가증권평가손실, 매출할인, 외화환산손실, 기부금, 투자자산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손실, 사채상환손실, 잡손실 등이 모두 포함된다(www.hometax.go.kr).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에 의하면, 영업외비용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그대로 기입하도록 되어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

먼저, 최근 3년간 인증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변화 추이는 다음 [그림 4-44]와 같다. 2023년 영업외비용 총액은 약 1천 7백억 원으로, 2021년, 2022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4-44] 영업외비용 총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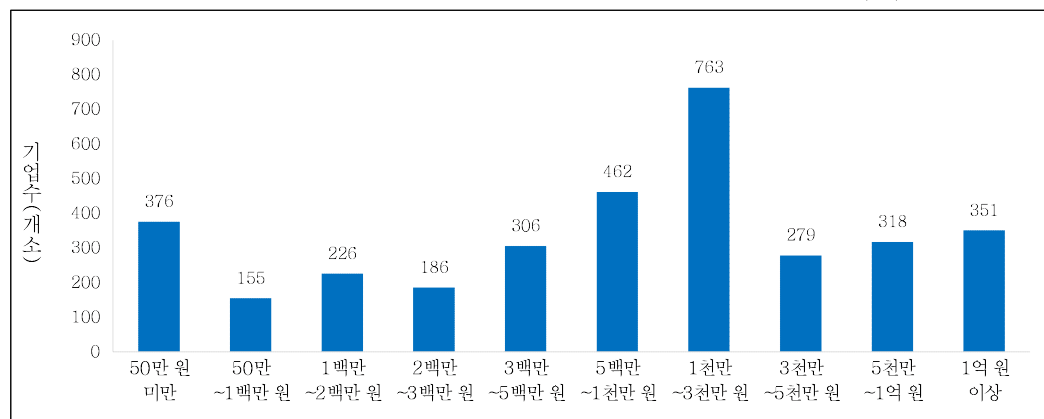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 [그림 4-45]는 영업외비용의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3,422개소의 기업이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그중 2023년도 영업외비용이 1천만~3천만 원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763개소(22.3%)이며, 5백~1천만 원으로 응답한 기업이 462개소(13.5%), 50만 원 미만이 376개소(11.0%)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5] 영업외비용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3,252개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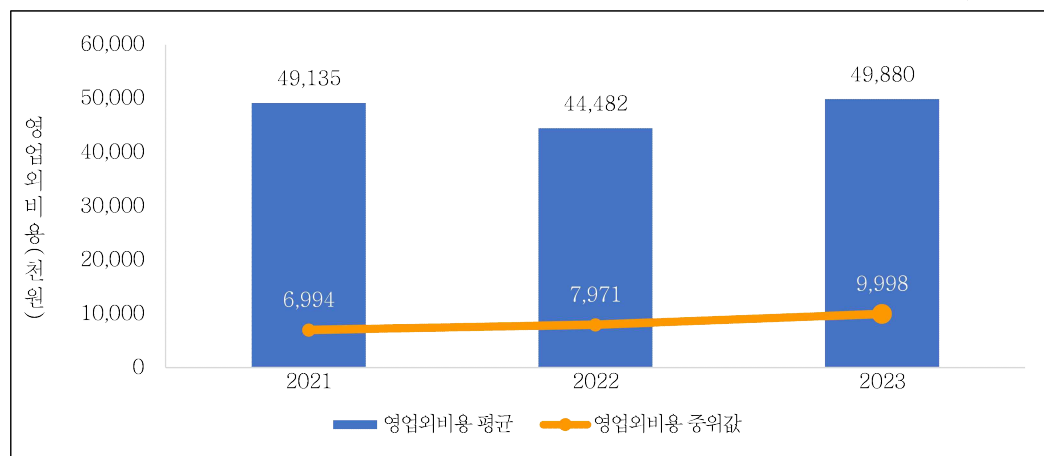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아래 [그림 4-46]은 최근 3년간의 영업외비용의 평균과 중위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2023년 영업외비용 기업별 평균은 약 5천만 원이며, 2022년 약 4천 4백만 원에서 증가하였다. 중위값은 2021년 약 7백만 원에서 2022년 약 8백만 원, 2023년 약 1천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46] 연도별 영업외비용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영업외비용의 지역별 차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 4-15>와 같다. 평균 영업외비용의 경우 서울(약 7천 9백만 원), 전북(약 6천 3백만 원), 경북(약 6천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영업외비용 평균을 보고한 지역은 대구(약 1천 8백만 원), 울산(약 2천 4백만 원), 충남(약 2천 5백만 원) 순서로 나타나 지역별로 영업외비용이 차이가 있었다. 중위값은 경북(약 1천 4백만 원), 경기(약 1천 3백만 원), 전남(약 1천 1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강원(약 7백만 원)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4-15>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영업외비용 비교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78,986	555	9,401
부산	32,119	152	8,524
대구	17,828	126	7,854
인천	49,307	207	10,086
광주	39,367	141	10,740
대전	49,271	112	8,453
울산	23,795	109	7,438
세종	33,848	30	10,718
경기	57,107	625	12,806
강원	29,558	186	6,639
충북	40,463	137	8,601
충남	25,253	140	9,998
전북	63,383	196	9,091
전남	43,589	189	11,131
경북	59,259	249	13,937
경남	32,224	185	7,102
제주	38,467	83	10,523
계	49,880	3422	9,998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마지막으로 <표 4-16>은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외비용을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구분한 것이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3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 2011년, 2008년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22년, 2023년, 2021년에 인증받은 기업 순으로 영업외비용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007년 및 2016년에 인증받은 기업의 경우 영업외비용이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그 외 인증기업은 모두 전년 대비 영업외비용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인증유형을 기준으로 2023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기타(창의·혁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사회서비스제공형, 기타(창의·혁신)형, 지역사회공헌형의 경우 영업외비용의 평균이 3개년 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2023년 영업외비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약 9천만 원의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여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약 1천 5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평균 영업외비용을 보고하였다.

민법상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일반/사회적협동조합의 영업외비용은 3개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그 외 조직형태는 증감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영업외비용

(단위: 천 원)

구분		영업외비용		
		2021	2022	2023
인증연도	2007	48,835	85,932	65,093
	2008	53,996	75,715	86,720
	2009	38,649	31,454	47,067
	2010	29,279	60,981	77,989
	2011	47,096	88,531	102,434
	2012	27,004	27,949	60,684
	2013	65,449	105,122	122,901
	2014	42,684	43,833	46,394
	2015	38,628	45,264	59,458
	2016	243,343	94,692	64,811
	2017	34,916	28,666	39,350
	2018	41,221	57,863	66,351
	2019	34,219	42,998	51,340
	2020	23,948	30,289	42,639
	2021	16,493	24,298	31,672
	2022	-	14,975	23,550
	2023	-	-	28,716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8,232	42,051	54,267
	사회서비스제공형	20,043	21,483	21,905
	혼합형	124,911	71,549	25,476
	기타(창의·혁신)형	53,933	75,896	76,716
	지역사회공헌형	20,098	26,552	26,889
조직형태	민법상법인	33,287	38,336	46,383
	비영리민간단체	11,174	6,751	15,001
	사회복지법인	35,048	92,232	90,041
	상법상회사	59,096	48,325	52,27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9,137	42,965	54,577
	영농조합법인	28,781	32,339	88,478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8,485	32,182	33,686
	기타	53,059	-	-

주: 영업외비용이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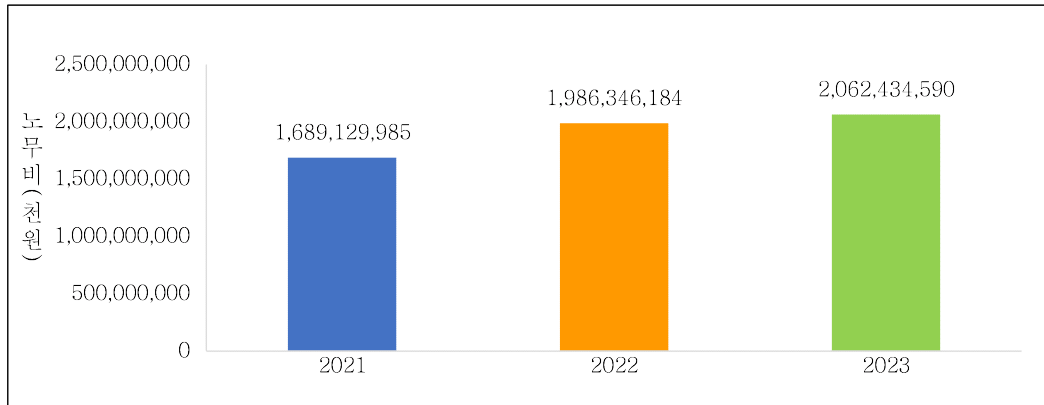
4. 노무비

사회적기업의 지출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 마지막으로 활용된 지표는 노무비이다. 본 분석에 포함된 노무비는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와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참고로 판매비와 관리비에 포함된 인건비는 인력비용, 임원급여, 직원급여, 상여금, 성과급, 잡급(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를 합산한 금액이며, 제조원가명세서의 노무비는 급여(임금), 상여금, 잡급(일용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경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먼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그림 4-47]과 같이 2021년 약 1조 6천 9백억 원, 2022년 약 1조 9천 9백억 원, 2023년 약 2조 6백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4-47] 연도별 노무비 금액

(단위: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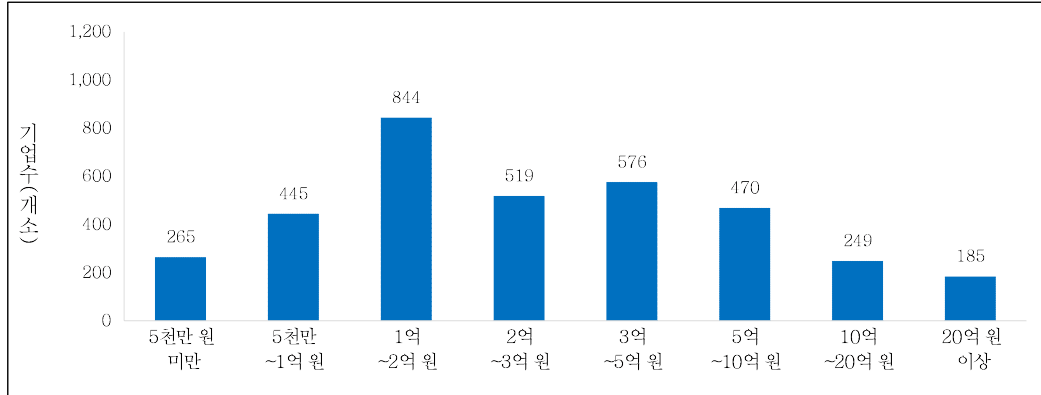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그림 4-48]은 2023년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와 분포별 기업 수를 나타낸 것이다. 노무비가 있다고 응답한 전체 3,553개 사회적기업 중 노무비가 1억~2억 원인 경우가 844개소(23.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억~5억 원(576개소, 16.2%), 2억~3억 원(519개소, 14.6%)의 순서로 많았다. 그리고 노무비가 5천만 원 미만인 경우도 265개소(7.5%)가 있었으며, 20억 원 이상인 기업도 185개소(5.2%)를 차지하였다.

[그림 4-48] 노무비 분포별 기업 수

(단위: 개소)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2023년 3,553개소 기준.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아래의 <표 4-17>은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노무비 분포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지난 3년간 전체적인 분포의 변화는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연도별 노무비 비중 비교

(단위: 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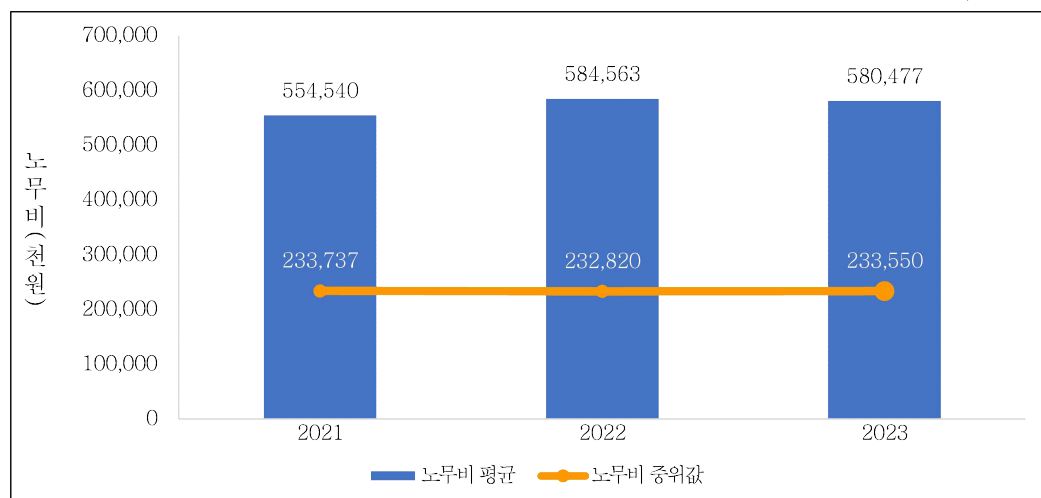
구분	2021		2022		2023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기업 수	비중
5천만 원 미만	191	6.3	240	7.1	265	7.5
5천만 ~ 1억 원	409	13.4	455	13.4	445	12.5
1억 ~ 2억 원	731	24.0	805	23.7	844	23.8
2억 ~ 3억 원	465	15.3	511	15.0	519	14.6
3억 ~ 5억 원	468	15.4	506	14.9	576	16.2
5억 ~ 10억 원	409	13.3	471	13.9	470	13.2
10억 ~ 20억 원	221	7.3	244	7.2	249	7.0
20억 원 이상	152	5.0	166	4.9	185	5.2
합계	3,046	100.0	3,398	100.0	3,553	100.0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그림 4-49]는 최근 3년간 노무비의 평균 및 중위값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노무비 평균은 2021년 약 5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5억 8천만 원으로 증가한 뒤, 2023년에도 약 5억 8천만 원 수준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중위값 또한 3년간 큰 변동 없이 2억 3천만 원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림 4-49] 연도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아래 <표 4-18>은 지역별로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을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업 수가 적은 세종을 제외하면, 노무비 평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억 원)이고, 서울(약 6억 9천만 원), 인천(약 6억 4천만 원)이 상대적으로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였다. 반면, 노무비 평균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3억 6천만 원), 광주, 경북(약 3억 7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중위값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면 경기(약 3억 6천만 원)가 가장 높았고, 제주, 서울(약 2억 6천만 원) 순으로 상대적으로 노무비 수준이 높은 반면, 노무비 중위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은 전남(약 1억 6천만 원), 강원(약 1억 9천만 원), 경남(약 2억 원)으로 나타났다.

<표 4-18> 지역별 노무비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개소)

지역	평균	기업 수	중위값
서울	688,738	572	257,403
부산	432,729	161	219,842
대구	316,500	132	234,403
인천	644,552	210	215,823
광주	367,730	153	212,340
대전	572,352	115	229,175
울산	444,905	111	249,019
세종	992,871	30	241,474
경기	903,052	642	356,508
강원	635,970	191	194,935
충북	514,557	144	247,297
충남	404,838	149	211,787
전북	465,444	211	246,853
전남	359,864	199	161,328
경북	368,494	258	218,306
경남	439,059	190	198,708
제주	428,924	85	260,742
전체	580,477	3,553	233,550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4-19>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무비

(단위: 천 원)

구분		2021	2022	2023
인증 연도	2007	1,144,874	1,792,139	1,106,990
	2008	888,917	923,528	1,125,105
	2009	845,730	961,263	760,539
	2010	665,042	937,567	1,009,833
	2011	796,865	976,396	822,353
	2012	593,395	608,968	616,545
	2013	669,843	781,082	847,339
	2014	652,029	700,284	782,399
	2015	837,978	845,963	934,649
	2016	557,853	607,705	566,190
	2017	407,972	421,689	476,444
	2018	603,196	715,673	740,705
	2019	396,132	467,981	509,367
	2020	489,582	561,041	602,131
	2021	347,680	399,090	445,244
	2022	-	244,066	285,453
	2023	-	-	274,456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628,694	666,580	663,573
	사회서비스제공형	553,381	507,854	560,546
	혼합형	531,662	553,568	531,713
	기타(창의·혁신)형	334,869	407,507	359,506
	지역사회공헌형	286,783	270,883	266,161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506,546	701,537	575,392
	비영리민간단체	200,077	180,140	221,746
	사회복지법인	987,474	1,127,770	1,170,057
	상법상회사	579,158	594,803	590,64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95,179	666,930	2,276,766
	영농조합법인	275,932	257,347	292,086
	일반/사회적협동조합	530,756	518,987	521,547
	기타	675,206	-	-

주: 노무비가 있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무응답, 0응답 기업 제외).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위의 <표 4-19>는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에 따른 평균 노무비의 연도별 변화를 제시하였다. 먼저 인증연도를 기준으로 2023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2008년도 인증기업이 약 1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으며, 다음으로 2007년 인증기업이 약 11억 원, 2010년 인증기업이 약 10억 원의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반면 2023년 인증기업은 약 2억 7천만 원, 2022년 인증기업은 약 2억 8천만 원으로 대체로 최근에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노무비를 보고하였다.

인증유형을 기준 2023년 평균 노무비를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의 노무비 평균이 약 6억 6천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다. 반대로 지역사회공헌형은 약 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평균 노무비 수준을 보였으며, 최근 3개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를 나타냈다.

조직형태별 기준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최근 3년간 가장 높은 노무비 수준을 보고하고 있는데, 2021년 약 9억 9천만 원에서 2023년 약 11억 7천만 원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3개년 간 가장 낮은 수준의 노무비 평균을 보고 하였으며, 2023년에는 약 2억 2천만 원을 보고하였다.

한편, 앞서 언급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노무비의 총액을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내용을 다음의 <표 부가분석 4-3>과 <표 부가분석 4-4>를 통해 제시하였다.

지출총액분석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4-3> 지출총액(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천 원)

항목		2021	2022	2023
매출 원가	전체총액	3,805,040,700	4,255,622,482	4,369,792,224
	인증 연도	2007	65,064,878	72,140,380
		2008	89,945,608	95,934,055
		2009	29,211,131	31,297,779
		2010	125,491,185	141,391,725
		2011	155,774,354	165,545,755
		2012	122,789,078	122,075,588
		2013	1,018,693,138	1,071,717,662
		2014	223,136,758	217,324,947
		2015	164,427,825	189,729,266
		2016	388,098,600	397,414,355
		2017	203,565,532	228,389,435
		2018	304,736,076	322,175,922
		2019	288,776,250	338,257,911
		2020	316,312,377	330,660,251
		2021	309,017,912	341,968,218
		2022	-	189,599,232
		2023	-	179,643,024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2,557,385,707	2,912,328,433
		사회서비스제공형	36,745,759	29,165,748
		혼합형	43,895,519	46,745,704
		기타형	974,415,308	1,051,723,518
		지역사회공헌형	192,598,407	215,659,079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427,991,301	404,187,724
		비영리민간단체	18,431,973	3,693,253
		사회복지법인	113,169,239	124,275,523
		상법상회사	2,838,374,739	3,261,203,05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23,266,164	26,380,923
		영농조합법인	129,722,272	143,606,40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9,183,227	292,275,598
		기타	4,901,784	-

항목		2021	2022	2023
관관비	전체총액	2,679,420,397	3,219,684,222	3,477,130,037
	인증 연도	2007	84,011,962	86,944,617
		2008	119,287,611	118,868,917
		2009	75,100,083	62,283,208
		2010	116,604,281	145,068,166
		2011	110,005,485	139,086,842
		2012	95,814,479	110,263,660
		2013	188,187,231	230,659,458
		2014	191,800,239	217,733,325
		2015	216,270,565	223,623,093
		2016	237,292,218	247,765,340
		2017	170,483,872	173,632,784
		2018	263,159,934	293,990,732
		2019	240,871,235	304,539,033
		2020	297,806,550	341,800,017
		2021	272,724,651	315,405,574
		2022	-	208,019,456
		2023	-	176,859,965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877,644,679	2,290,232,062
		사회서비스제공형	185,358,499	235,656,765
		혼합형	145,403,027	163,289,711
		기타형	307,742,951	340,641,307
		지역사회공헌형	163,271,240	189,864,37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374,487,997	432,510,477
		비영리민간단체	28,561,794	24,031,500
		사회복지법인	78,736,688	100,780,111
		상법상회사	1,720,188,696	2,125,202,12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0,574,016	11,525,933
		영농조합법인	49,912,687	58,405,92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12,405,026	467,228,153
		기타	4,553,491	-
		-	-	-
노무비	전체총액	1,689,129,985	1,986,346,184	2,062,434,590
	인증 연도	2007	37,780,857	59,140,586
		2008	81,780,385	87,735,192
		2009	38,057,871	43,256,840
		2010	81,135,127	112,508,091
		2011	72,514,718	88,852,014
		2012	61,713,055	63,332,630
		2013	123,251,082	136,689,297
		2014	121,929,468	128,152,059
		2015	181,003,319	170,884,617
		2016	121,054,142	125,794,909
		2017	90,161,917	90,241,357
		2018	164,069,355	193,947,432
		2019	142,607,638	163,793,432
		2020	201,707,691	226,660,369
		2021	170,363,362	192,361,600
		2022	-	102,995,759
		2023	-	99,627,695
		-	-	-

항목			2021	2022	2023
노무비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73,105,221	1,510,469,831	1,573,994,245
		사회서비스제공형	121,743,725	133,565,573	168,724,331
		혼합형	102,079,013	108,499,378	103,152,274
		기타형	122,227,084	153,630,173	130,860,024
		지역사회공헌형	69,974,943	80,181,229	85,703,717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72,225,567	210,461,152	170,891,287
		비영리민간단체	14,605,649	10,988,520	11,752,548
		사회복지법인	70,110,679	83,454,945	85,414,159
		상법상회사	1,149,628,383	1,352,582,614	1,419,309,2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546,969	7,336,231	25,044,431
		영농조합법인	27,041,318	29,852,261	29,792,7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46,270,596	291,670,462	320,230,075
		기타	2,700,824	-	-
영업외 비용	전체총액		143,130,427	144,653,932	170,689,267
	인증 연도	2007	1,367,373	2,749,811	1,822,604
		2008	4,481,697	6,435,773	7,024,285
		2009	1,430,017	1,321,064	1,929,761
		2010	3,220,651	6,646,906	8,188,885
		2011	3,720,606	6,993,980	7,784,996
		2012	2,592,400	2,655,132	5,522,245
		2013	11,584,415	17,345,081	18,435,166
		2014	7,725,802	7,626,886	7,515,764
		2015	7,995,955	8,645,473	10,643,004
		2016	51,101,982	18,938,498	12,378,818
		2017	7,541,862	5,962,463	7,240,414
		2018	11,129,781	15,565,201	16,654,055
		2019	11,873,838	14,318,369	15,864,163
		2020	9,579,374	11,964,243	15,946,951
		2021	7,784,672	11,420,082	14,252,189
		2022	-	6,064,969	9,349,376
		2023	-	-	10,136,589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94,342,738	92,048,550	125,356,397
		사회서비스제공형	4,168,894	5,220,471	6,177,150
		혼합형	21,484,649	12,950,439	4,560,146
		기타형	18,391,014	26,867,219	26,313,706
		지역사회공헌형	4,743,132	7,567,254	8,281,868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0,452,087	10,389,029	12,291,433
		비영리민간단체	603,400	297,024	600,022
		사회복지법인	1,927,638	5,533,948	5,042,282
		상법상회사	114,114,092	106,895,899	123,689,591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0,512	472,610	600,347
		영농조합법인	2,820,538	3,751,322	8,759,317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2,732,984	17,314,100	19,706,275
		기타	159,176	-	-

자료 :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 지역 및 표준산업분류별 분석(2023)

<표 부가분석 4-4> 지출총액(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천 원)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매출 원가	지역	1,539,455,189	78,003,707	61,408,940	181,385,180	144,787,510	65,499,457	70,240,304	24,198,301	837,457,477	185,478,247	123,982,821	112,577,715	170,812,603	165,428,356	302,688,533	165,966,652	51,386,204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71,866,810	63,991,977	-	68,714,181	1,381,547,111	25,800,033	246,630	218,586,317	53,020,436	31,536,733	44,654,831	6,730,407	34,291,845	21,646,733,241	57,499,917	56,539,644	13,538,538
판매비	지역	833,770,484	121,427,153	80,834,005	175,933,094	104,731,743	136,894,476	67,010,363	26,592,773	918,931,221	122,827,602	119,866,740	101,802,717	172,151,721	115,982,815	189,924,315	125,813,745	62,665,009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07,557,786	276,577,171	-	33,173,338	361,420,255	523,119,728	18,992,103	442,652,835	51,448,279	206,018,990	22,706,611	8,196,220	121,451,391	964,082,588	96,230,643	198,033,182	45,418,687
노무비	지역	388,938,421	69,693,319	41,777,959	135,355,832	56,342,707	65,820,476	49,384,410	23,786,142	573,753,158	121,470,348	74,066,258	60,320,813	98,338,722	71,612,832	95,071,404	83,421,184	36,438,577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63,963,411	114,230,704	-	20,288,142	161,388,112	388,511,400	6,366,039	365,348,527	35,943,531	77,788,714	11,972,904	1,863,615	53,128,614	53,201,843	33,108,639	147,432,203	24,851,174
영업외 비용	지역	438,970,241	4,882,022	224,635	10,206,523	5,550,750	5,518,372	2,538,625	1,015,436	35,691,492	5,497,066	5,543,443	3,355,448	12,423,048	8,238,357	14,755,443	5,961,330	3,192,734
	표준 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42,883,300	6,888,600	-	4,117,935	28,034,021	13,005,788	3,449,233	8,477,613	1,639,959	482,344	797,739	484,041	4,761,388	77,951,861	6,188,535	4,663,213	1,164,728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제3절 기타 성과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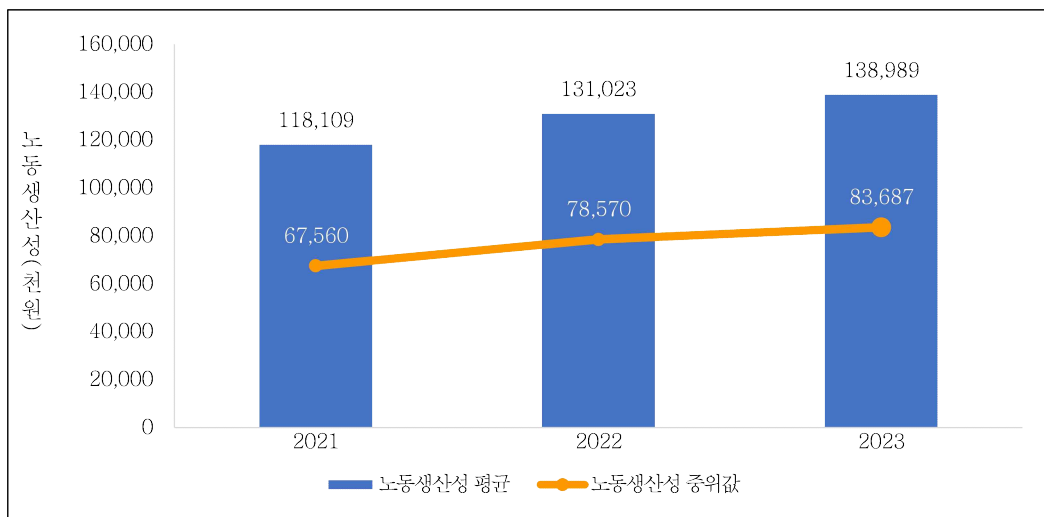
앞서 제1절과 제2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지표로서 재정성과와 비용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또 다른 차원에서의 경제적 성과로 분류 가능한 노동생산성과 일반인 고용지표를 추가적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1. 노동생산성

먼저 노동생산성은 근로자 1인당 매출액으로 측정되는데, 다음 [그림 4-50]에 평균 노동생산성과 중위값을 연도별로 분석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2021~2023년 동안 노동생산성의 평균값 및 중위값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23년 노동생산성의 평균은 약 1억 4천만 원, 중위값은 약 8천 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4-50] 연도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표 4-20>은 지역별 노동생산성의 평균 및 중위값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 노동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경북(약 1억 8천만 원), 경기, 전남(약 1억 5천만 원)이고, 상대적으로 낮은 곳은 세종을 제외하면 대전(약 1억 원), 강원(약 1억 1천만 원)이었다. 노동생산성의 중위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약 9천 4백만 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약 6천 7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표 4-20> 지역별 노동생산성 평균 및 중위값

(단위: 천 원)

지역	노동생산성 평균	노동생산성 중위값
서울	150,001	84,107
부산	113,555	66,628
대구	114,841	81,991
인천	117,549	90,220
광주	136,845	91,088
대전	101,266	68,541
울산	113,609	68,784
세종	94,478	62,144
경기	152,067	93,794
강원	107,904	70,107
충북	131,237	89,112
충남	139,204	81,058
전북	143,839	85,838
전남	151,122	93,182
경북	182,296	87,103
경남	136,350	78,775
제주	123,460	77,618
전체	138,989	83,687

주: 노동생산성=기업 매출액/근로자 수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표 4-21>은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로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다 세분화시켜,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여 제시한 것이다.

<표 4-21>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평균 노동생산성

(단위: 천 원)

		2021	2022	2023
인증 연도	2007	92,766	103,822	109,119
	2008	82,389	85,217	98,367
	2009	87,534	89,109	77,264
	2010	84,189	87,649	101,578
	2011	103,069	114,846	128,141
	2012	120,738	126,210	139,280
	2013	134,953	156,659	165,769
	2014	143,835	156,921	165,201
	2015	115,614	134,528	146,901
	2016	181,022	211,567	226,641
	2017	120,563	148,458	161,399
	2018	132,277	150,303	164,565
	2019	110,190	129,229	152,767
	2020	109,856	127,020	142,162
	2021	100,919	109,785	121,624
	2022	-	110,482	116,020
	2023	-	-	101,831
인증 유형	일자리제공형	125,398	137,629	146,488
	사회서비스제공형	82,789	89,088	99,585
	혼합형	82,503	86,197	88,465
	기타(창의·혁신)형	109,348	127,459	132,713
	지역사회공헌형	130,423	151,848	157,098
조직 형태	민법상법인	106,759	108,116	110,708
	비영리민간단체	64,209	66,244	77,124
	사회복지법인	43,998	52,485	74,298
	상법상회사	125,952	141,649	150,20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23,641	145,149	244,412
	영농조합법인	203,682	204,795	245,20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94,299	101,360	102,821
	기타	158,969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인증연도별로 2023년 평균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16년 인증기업(약 2억 3천만 원)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을 보였고, 다음으로 2013년 인증기업과 2014년 인증기업이 각각 약 1억 7천만 원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2009년 인증기업이 약 7천 7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2008년 인증기업이 약 9천 8백만 원, 2010년, 2023년 인증기업이 약 1억 원 수준을 보였다.

인증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유형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이 평균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공헌형이 약 1억 6천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혼합형이 약 8천 8백만 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조직형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모든 조직형태에서 최근 3년간 노동생산성 평균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3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농조합법인이 약 24억 5천만 원으로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약 7천 4백만 원으로 가장 낮은 노동생산성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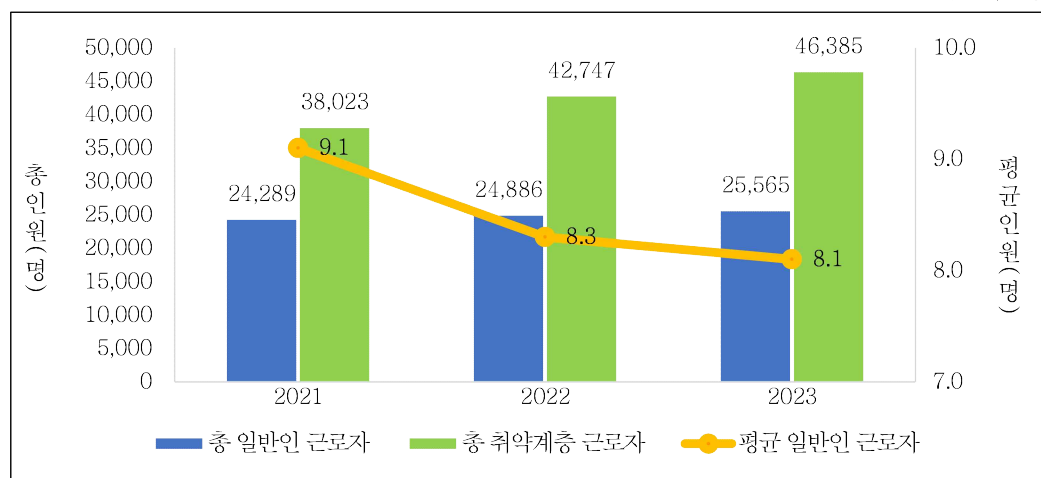
2. 일반인 근로자 고용효과

사회적기업 경제적 성과의 마지막 측정으로, 이하에서는 일반인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4-51]은 사회적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총 일반인 근로자 수, 취약계층 근로자 수,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최근 3년간 총 일반인 근로자와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1년 24,289명, 2022년 24,886명, 2023년 25,565명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총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1년 38,023명, 2022년 42,747명, 2023년 46,385명으로 매년 증가하였다. 반면, 평균 일반인 근로자의 수는 2021년 9.1명에서 2022년도에 8.3명, 2023년 8.1명으로 매년 감소하였다.

[그림 4-51] 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에 제시된 <표 4-22>는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설명하고 있다.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에서 세종 지역을 제외하고 10명 이상을 나타낸 곳은 경기(11.3명), 서울(10.9명)이었다. 반면, 전남(4.6명), 대구(4.5명), 울산(5.2명), 충남(5.5명), 광주(5.8명)은 평균 6명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를 보고하였다.

<표 4-22> 지역별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단위: 명)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지역	평균 일반인 근로자 수
전체	8.1	경기	11.3
서울	10.9	강원	9.3
부산	7.3	충북	7.3
대구	4.5	충남	5.5
인천	6.4	전북	6.1
광주	5.8	전남	4.6
대전	7.1	경북	7.3
울산	5.2	경남	6.4
세종	10.0	제주	6.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의 <표 4-23>에서는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수와 평균을 살펴보고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인증연도가 오래된 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많고, 최근 인증기업일수록 평균 근로자 수가 적은 경향을 보였다. 2023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인증연도는 2007년 인증기업으로 평균 근로자 수 30.7명이었으며, 2023년 인증기업은 평균 근로자 수가 4.1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3>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2007	965	31.1	898	28.1	891	30.7
2008	1,274	15.0	1,164	13.5	1,130	14.5
2009	626	15.7	661	15.7	719	17.5
2010	1,425	13.2	1,318	13.0	1247	12.3
2011	941	11.3	911	11.2	823	10.6
2012	857	9.4	836	9.5	699	8.6
2013	1,719	10.9	1,656	10.8	1,664	12.1
2014	1,608	9.9	1,570	9.8	1,413	9.6
2015	1,978	10.6	2,003	11.1	1,950	11.7
2016	1,620	8.5	1,543	8.5	1,415	8.1
2017	1,248	6.3	1,137	6.0	1,076	6.4
2018	2,138	8.7	1,884	8.1	1,787	7.9
2019	2,349	7	2,125	7.0	2,054	7.3
2020	2,980	8	2,932	8.0	2,917	8.6
2021	2,561	6	2,681	6.2	2,808	6.7
2022	-	-	1,567	4.1	1,621	4.4
2023	-	-	-	-	1,351	4.1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다음의 <표 4-24>는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연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최근 3년간 총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이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자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이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역사회공헌형이 3개년 모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을 기준으로 총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유형은 일자리제공형(16,734명), 사회서비스제공형(2,964명), 기타(창의·혁신)형(2,879명)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 근로자 수는 사회서비스제공형(10.9명), 혼합형(10.7명), 기타(창의·혁신)형(8.6명) 순으로 많았다.

<표 4-24>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21		2022		2023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일자리제공형	15,857	7.8	16,154	8.0	16,734	7.8
사회서비스제공형	2,452	11.1	2,575	10.7	2,964	10.9
혼합형	1,617	8.3	1,761	11.1	1,666	10.7
기타(창의·혁신)형	3,108	8.5	2,993	8.5	2,879	8.6
지역사회공헌형	1,255	5.1	1,403	5.8	1,322	4.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조직형태에 따라 일반인 근로자 수와 평균을 구분한 내용은 다음의 <표 4-25>에서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상법상회사에서 고용한 총 일반인 근로자 수가 2021년 14,938명, 2022년 15,492명, 2023년 15,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23년 기준 일반/사회적협동조합과 민법상법인도 각각 5,215명과 3,040명으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총 일반인 근로자 수는 3년간 각각 131명, 144명, 143명으로 가장 적었다. 평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확인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23년 평균 14.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영농조합법인이 평균 4.2명으로 가장 적었다.

<표 4-25>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수 및 평균

(단위: 명)

	2021		2022		2023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총근로자 수	평균 근로자 수
민법상법인	3,251	9.5	3,110	11.5	3,040	11.1
비영리민간단체	294	4.0	207	4.1	204	4.4
사회복지법인	791	11.0	712	10.0	705	10.2
상법상회사	14,938	7.5	15,492	7.6	15,908	7.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1	11.9	144	13.1	143	14.3
영농조합법인	394	3.9	393	4.3	350	4.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461	9.6	4,828	9.8	5,215	9.6
기타	29	7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4-26>은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는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약 270만 원, 평균 근로시간은 35.5시간으로 나타났다. 세종을 제외하고 지역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강원이 약 314만 원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가 약 220만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평균 근로시간은 경남 34.5시간, 충남, 서울 35.0시간, 경기 35.1시간 순으로 적었으며, 제주 38.1시간, 전남 37.8시간, 강원 37.4시간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6> 지역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지역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서울	2,665	35.0
부산	2,055	31.8
대구	2,202	35.4
인천	2,361	35.3
광주	2,751	36.7
대전	2,740	37.1
울산	2,314	35.4
세종	2,324	34.1
경기	2,891	35.1
강원	3,138	37.4
충북	2,739	37.0
충남	2,514	35.0
전북	2,666	36.8
전남	2,517	37.8
경북	2,891	36.2
경남	2,414	34.5
제주	2,774	38.1
전체	2,696	35.5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다음 <표 4-27>은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을 나타낸다. 2023년을 기준으로 2015년 인증기업이 일반인 근로자의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19만 원)을 보고하였고, 2016년 인증기업이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37.3시간)을 보고하였다. 최근 3년 동안 평균임금은 2010년, 2017년, 2019년 인증기업을 제외하면, 대체로 매년 증가추세로 나타났다. 평균 근로시간은 대체로 최근 3년 동안 38시간 미만으로 큰 폭의 변화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표 4-27> 인증연도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연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2007	2,337	34.2	2,584	34.0	2,720	35.5
2008	2,520	35.1	2,597	34.1	2,814	34.5
2009	2,129	34.0	2,213	32.8	2,325	31.2
2010	2,999	37.9	3,047	35.6	2,999	35.6
2011	2,648	37.3	2,826	37.0	2,908	37.0
2012	2,525	35.8	2,753	37.1	3,024	36.5
2013	2,363	35.1	2,491	35.1	2,625	35.4
2014	2,299	35.4	2,442	34.6	2,566	34.4
2015	2,883	36.5	3,026	35.4	3,194	34.7
2016	2,549	37.9	2,657	37.6	2,687	37.3
2017	2,560	37.8	2,558	37.3	2,679	36.6
2018	2,446	36.1	2,604	35.4	2,782	36.5
2019	2,474	37.0	2,569	36.0	2,558	34.8
2020	2,543	37.0	2,770	36.5	2,866	35.9
2021	2,270	37.0	2,299	34.9	2,366	35.2
2022	-	-	2,341	36.1	2,401	36.0
2023	-	-	-	-	2,493	36.2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4-28>은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일자리제공형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282만 원)을 보고한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지역사회공헌형이 36.9시간으로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8> 인증유형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근로시간
일자리제공형	2,646	37.1	2,764	36.5	2,821	36.2
사회서비스제공형	1,980	32.9	2,097	32.4	2,149	32.3
혼합형	2,006	32.9	2,035	31.8	2,360	32.4
기타(창의·혁신)형	2,525	36.2	2,652	35.9	2,813	36.0
지역사회공헌형	2,420	38.2	2,470	36.7	2,514	36.9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아래 <표 4-29>는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이다. 2023년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인이 가장 높은 평균임금(약 364만 원)과 가장 긴 평균 근로시간(약 38.6시간)을 보고한 반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낮은 평균 임금(약 189만 원)과 가장 낮은 평균 근로시간(약 31.0시간)을 보고하였다.

<표 4-29> 조직형태별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및 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시간)

	2021		2022		2023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민법상법인	2,361	35.5	2,399	34.1	2,595	35.0
비영리민간단체	1,995	34.5	1,958	32.8	2,198	33.3
사회복지법인	3,341	39.1	3,464	39.1	3,639	38.6
상법상회사	2,646	37.0	2,779	36.6	2,840	3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89	31.6	1,942	32.1	1,887	31.0
영농조합법인	2,330	38.6	2,491	38.7	2,644	38.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85	34.2	2,155	33.3	2,233	33.3
기타	2,018	28.1	-	-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마지막으로 <표 부가분석 4-5>와 <표 부가분석 4-6>에는 앞서 정리한 유급 근로자의 임금수준, 근로시간에 관한 내용을 일반근로자와 취약근로자로 나누어 다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유급근로자

■ 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분석(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4-5> 전체 유급근로자(인증연도, 인증유형, 조직형태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유급 근로자 수	전체 유급근로자 수	62,312	67,633	71,950
	인증연도	2007	1,940	1,927
		2008	3,461	3,493
		2009	2,122	2,307
		2010	3,682	3,739
		2011	2,548	2,621
		2012	2,187	2,197
		2013	4,535	4,825
		2014	4,455	4,700
		2015	5,161	5,414
		2016	3,968	4,047
		2017	2,926	2,845
		2018	5,975	5,793
		2019	5,741	5,486
		2020	7,366	7,519
		2021	6,245	7,064
		2022	-	3,656
		2023	-	3,364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46,890	50,854
		사회서비스제공형	4,874	5,362
		혼합형	4,448	4,866
		기타(창의·혁신)형	4,056	4,162
		지역사회공헌형	2,044	2,38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7,866	8,134
		비영리민간단체	649	429
		사회복지법인	3,021	3,055
		상법상회사	38,511	42,6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3	313
		영농조합법인	810	89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1,018	12,196
		기타	124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평균임금	2,057	2,156	2,213
	인증연도	2007	2,017	2,250
		2008	1,876	1,936
		2009	1,759	1,826
		2010	2,403	2,546
		2011	2,003	2,143
		2012	2,039	2,222
		2013	1,825	1,887
		2014	1,838	1,982
		2015	2,521	2,623
		2016	2,062	2,146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인증연도	2017	2,180	2,199	2,294
		2018	1,975	2,081	2,158
		2019	2,000	2,115	2,142
		2020	2,194	2,363	2,470
		2021	1,950	1,976	2,023
		2022	-	2,062	2,116
		2023	-	-	2,115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086	2,191	2,239
		사회서비스제공형	1,754	1,858	1,919
		혼합형	1,683	1,732	1,882
		기타(창의·혁신)형	2,387	2,518	2,659
		지역사회공헌형	2,285	2,315	2,347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839	1,894	1,977
		비영리민간단체	1,652	1,695	1,881
		사회복지법인	1,885	1,870	1,964
		상법상회사	2,207	2,322	2,38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672	1,791	1,802
영농조합법인		2,212	2,313	2,42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769	1,835	1,863	
기타	1,392	-	-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전체	평균 시간	33.3	32.9	32.5
	인증연도	2007	32.8	32.2	33.5
		2008	31.1	30.3	29.5
		2009	30.6	29.5	28.5
		2010	35.3	33.2	33.1
		2011	34.2	33.7	34.0
		2012	32.7	33.7	31.7
		2013	31.2	30.6	30.2
		2014	31.1	31.6	30.3
		2015	35.5	34.8	34.5
		2016	34.4	34.0	33.9
		2017	34.7	34.0	33.2
		2018	32.5	32.3	33.1
		2019	32.7	32.8	31.8
		2020	34.5	34.3	33.6
		2021	34.0	33.0	32.4
		2022	-	34.1	34.3
		2023	-	-	33.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3.6	33.4	32.9
		사회서비스제공형	30.2	29.7	30.1
		혼합형	29.2	28.3	27.8
		기타(창의·혁신)형	35.4	34.8	34.3
		지역사회공헌형	37.4	35.8	35.8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1.7	30.6	30.2
		비영리민간단체	29.6	29.4	29.2
		사회복지법인	32.7	32.3	31.8
		상법상회사	34.3	34.0	33.7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7	31.6	31.1	
영농조합법인		38.0	37.7	37.2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1.2	30.4	30.1	
기타	22.6	-	-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취약 근로자 수	전체		38,023	42,747	46,385
	인증연도	2007	975	1,029	1,052
		2008	2,187	2,329	2,498
		2009	1,496	1,646	1,873
		2010	2,257	2,421	2,495
		2011	1,607	1,710	1,715
		2012	1,330	1,361	1,556
		2013	2,816	3,170	3,066
		2014	2,847	3,130	3,172
		2015	3,183	3,411	3,422
		2016	2,348	2,504	2,581
		2017	1,678	1,708	1,662
		2018	3,837	3,909	4,261
		2019	3,392	3,361	3,327
		2020	4,386	4,586	4,770
		2021	3,684	4,383	4,593
		2022	-	2,089	2,329
		2023	-	-	2,01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1,033	34,700	37,394
		사회서비스제공형	2,422	2,787	3,315
		혼합형	2,831	3,105	3,395
		기타(창의·혁신)형	948	1,169	1,189
		지역사회공헌형	789	986	1,09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4,615	5,024	5,274
		비영리민간단체	355	222	239
		사회복지법인	2,230	2,343	2,242
		상법상회사	23,573	27,122	28,88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82	169	177
		영농조합법인	416	499	523
		일반/사회적협동조합	6,557	7,368	9,042
		기타	95	-	-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1,769	1,890	1,947
	인증연도	2007	1,701	1,958	2,010
		2008	1,500	1,606	1,670
		2009	1,604	1,670	1,757
		2010	2,027	2,273	2,207
		2011	1,626	1,779	1,840
		2012	1,726	1,896	1,843
		2013	1,496	1,571	1,642
		2014	1,577	1,751	1,811
		2015	2,297	2,386	2,495
		2016	1,726	1,831	1,933
		2017	1,897	1,960	2,045
		2018	1,712	1,829	1,896
		2019	1,673	1,829	1,885
		2020	1,956	2,103	2,228
		2021	1,728	1,779	1,813
		2022	-	1,853	1,918
		2023	-	-	1,860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800	1,924	1,979
		사회서비스제공형	1,525	1,637	1,713
		혼합형	1,499	1,560	1,647
		기타(창의·혁신)형	1,937	2,177	2,284
		지역사회공헌형	2,070	2,095	2,145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1,472	1,582	1,620
		비영리민간단체	1,367	1,450	1,611
		사회복지법인	1,369	1,385	1,437
		상법상회사	1,929	2,062	2,13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587	1,662	1,734
		영농조합법인	2,100	2,172	2,27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1,553	1,626	1,650
		기타	1,202	-	-
		전체	31.3	31.3	30.8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인증연도	2007	31.3	30.7	31.8
		2008	28.7	28.4	27.3
		2009	29.2	28.2	27.5
		2010	33.6	31.9	31.8
		2011	32.3	32.0	32.6
		2012	30.8	31.7	29.5
		2013	28.8	28.3	27.4
		2014	28.7	30.0	28.5
		2015	34.9	34.4	34.4
		2016	32.0	31.8	32.0
		2017	32.5	31.8	31.0
		2018	30.5	30.9	31.6
		2019	29.9	30.7	30.0
		2020	33.1	32.9	32.2
		2021	32.3	31.9	30.7
		2022	-	32.5	33.1
		2023	-	-	31.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1.9	31.9	31.5
		사회서비스제공형	27.6	27.1	28.2
		혼합형	27.0	26.3	25.6
		기타(창의·혁신)형	32.7	31.9	30.1
		지역사회공헌형	36.2	34.4	34.4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9.0	28.5	27.4
		비영리민간단체	25.6	26.3	25.7
		사회복지법인	30.4	30.2	29.7
		상법상회사	32.5	32.6	32.3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8	31.2	31.3
		영농조합법인	37.3	36.9	36.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9.2	28.4	28.2
		기타	20.9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전체	24,289	24,886	25,565
		2007	965	898	891
		2008	1,274	1,164	1,130
		2009	626	661	719
		2010	1,425	1,318	1,247
		2011	941	911	823
		2012	857	836	699

항목			2021	2022	2023
일반인 근로자 수	인증연도	2013	1,719	1,655	1,664
		2014	1,608	1,570	1,413
		2015	1,978	2,003	1,950
		2016	1,620	1,543	1,415
		2017	1,248	1,137	1,076
		2018	2,138	1,884	1,787
		2019	2,349	2,125	2,054
		2020	2,980	2,933	2,917
		2021	2,561	2,681	2,808
		2022	-	1,567	1,621
		2023	-	-	1,351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15,857	16,154	16,734
		사회서비스제공형	2,452	2,575	2,964
		혼합형	1,617	1,761	1,666
		기타(창의·혁신)형	3,108	2,993	2,879
		지역사회공헌형	1,255	1,403	1,322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251	3,110	3,040
		비영리민간단체	294	207	204
		사회복지법인	791	712	705
		상법상회사	14,938	15,492	15,908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31	144	143
		영농조합법인	394	393	350
		일반/사회적협동조합	4,461	4,828	5,215
		기타	29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전체		2,509	2,614	2,696
	인증연도	2007	2,337	2,584	2,720
		2008	2,520	2,597	2,814
		2009	2,129	2,213	2,325
		2010	2,999	3,047	2,999
		2011	2,648	2,826	2,908
		2012	2,525	2,753	3,024
		2013	2,363	2,491	2,625
		2014	2,299	2,442	2,566
		2015	2,883	3,026	3,194
		2016	2,549	2,657	2,687
		2017	2,560	2,558	2,679
		2018	2,446	2,604	2,782
		2019	2,474	2,569	2,558
		2020	2,543	2,770	2,866
		2021	2,270	2,299	2,366
		2022	-	2,341	2,401
		2023	-	-	2,493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2,646	2,764	2,821
		사회서비스제공형	1,980	2,097	2,149
		혼합형	2,006	2,035	2,360
		기타(창의·혁신)형	2,525	2,652	2,813
		지역사회공헌형	2,420	2,470	2,514

항목			2021	2022	2023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2,361	2,399	2,595
		비영리민간단체	1,995	1,958	2,198
		사회복지법인	3,341	3,464	3,639
		상법상회사	2,646	2,779	2,84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1,789	1,942	1,887
		영농조합법인	2,330	2,491	2,64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2,085	2,155	2,233
		기타	2,018	-	-
전체 일반인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전체		36.3	35.7	35.5
	인증연도	2007	34.2	34.0	35.5
		2008	35.1	34.1	34.5
		2009	34.0	32.8	31.2
		2010	37.9	35.6	35.6
		2011	37.3	37.0	37.0
		2012	35.8	37.1	36.5
		2013	35.1	35.1	35.4
		2014	35.4	34.6	34.4
		2015	36.5	35.4	34.7
		2016	37.9	37.6	37.3
		2017	37.8	37.3	36.6
		2018	36.1	35.4	36.5
		2019	36.7	36.0	34.8
		2020	36.5	36.5	35.9
		2021	36.5	34.9	35.2
		2022	-	36.1	36.0
		2023	-	-	36.2
	인증유형	일자리제공형	37.1	36.5	36.2
		사회서비스제공형	32.9	32.4	32.3
		혼합형	32.9	31.8	32.4
		기타(창의·혁신)형	36.2	35.9	36.0
		지역사회공헌형	38.2	36.7	36.9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	35.5	34.1	35.0
		비영리민간단체	34.5	32.8	33.3
		사회복지법인	39.1	39.1	38.6
		상법상회사	37.0	36.6	36.2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1.6	32.1	31.0
		영농조합법인	38.6	38.7	38.4
		일반/사회적협동조합	34.2	33.3	33.3
		기타	28.1	-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표 부가분석 4-6> 전체 유급근로자(지역, 표준산업분류별)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6,714	2,782	1,423	3,945	1,968	2,138	1,538	1,135	19,165	3,847	2,402	2,040	2,849	1,828	3,975	2,961	1,240
전체 유급 근로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1,344	3,462	-	702	4,911	19,426	151	15,102	1,470	2,321	357	53	1,419	16,668	1,081	2,539	944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52	1,753	1,925	1,909	2,153	2,286	2,014	1,891	2,330	2,884	2,253	2,139	2,309	2,202	2,582	2,129	2,209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411	2,124	-	1,956	2,404	1,757	2,698	2,219	2,004	2,076	2,544	2,801	2,956	2,219	2,585	5,051	1,932
전체 유급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0	29.6	32.6	31.1	32.5	35.2	33.4	32.3	32.7	35.6	33.0	32.3	34.0	35.2	33.9	32.2	33.7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5.4	32.7	-	34.1	35.4	28.8	37.5	33.0	32.3	33.2	37.3	37.7	36.3	33.5	34.9	39.5	31.5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1,020	1,736	876	2,778	1,192	1,475	985	876	12,672	2,303	1,471	1,307	1,654	1,029	2,316	1,918	777
전체 취약 근로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765	1,463	-	494	2,328	13,793	67	11,918	856	919	254	33	565	10,610	419	1,266	635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임금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36	1,571	1,753	1,719	1,764	2,082	1,846	1,763	2,042	2,713	1,945	1,930	2,051	1,958	2,360	1,974	1,872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150	1,877	-	1,797	2,103	1,650	2,333	2,070	1,814	1,842	2,545	2,689	2,492	1,802	2,128	4,816	1,701
전체 취약 근로자 평균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9.0	28.2	30.9	29.3	29.7	34.3	32.3	31.8	31.4	34.4	30.4	30.8	32.1	33.3	32.3	31.0	31.1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3.4	30.3	-	32.7	33.6	27.9	36.1	32.5	31.0	30.6	36.9	37.8	33.1	30.7	31.5	39.0	30.1

<표 부가분석 4-6> 계속

(단위: 명, 천 원, 시간)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5,694	1,046	547	1,167	776	663	553	259	6,493	1,544	931	733	1,195	799	1,659	1,043	463
일반인 근로자 수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579	1,999	—	208	2,583	5,633	84	3,184	614	1,402	103	20	854	6,058	662	1,273	309
일반인 근로자 평균임금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665	2,055	2,202	2,361	2,751	2,740	2,314	2,324	2,891	3,138	2,739	2,514	2,666	2,517	2,891	2,414	2,774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5.0	31.8	35.4	35.3	36.7	37.1	35.4	34.1	35.1	37.4	37.0	35.0	36.8	37.8	36.2	34.5	38.1
일반인 근로자 평균시간	표준산업 분류	건설업(F)	교육 서비스업(P)	금융 및 보험업(K)	농업, 임업 및 어업(A)	도매 및 소매업(G)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부동산업 및 임대업(L)	사업시설관 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숙박 및 음식점업(I)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운수업(H)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제조업(C)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J)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38.0	34.5	—	37.2	36.9	31.0	38.6	34.8	34.1	34.9	38.3	37.7	38.5	38.3	37.1	40.0	34.6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제5장 요약 및 결과해석

이상에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 행정자료를 활용해 2021~2023년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성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를 최근 변화에 초점을 두어 요약해 보면 다음 <표 5-1>과 같다.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인증사회적기업의 현황이나 성과는 일부 등락이 있으나 대체로 지난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성에 있어 예년과 같이 상법상회사와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지원금 총액은 민간지원금은 전년 증가하였으며 정부지원금은 감소하였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2022년에 3,202개소에서 2023년 3,588개소로 약소하게 증가하였으나 지원금 평균과 중위값은 모두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제주와 서울에 소재한 기업의 지원금 총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전년도와 같이 사회복지법인인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급 근로자 총인원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평균 근로자 수와 평균 취약계층 근로자 수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의 완화 등으로 인해 2023년 기업당 고용이 증가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평균 임금은 취약계층, 일반인 모두 상승하는 경향을 지속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의 경우 각각 소폭의 등락은 있었으나 2022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경제적 성과에서는 총매출액 및 평균, 중위값 모두 증가하였다. 주목할 점은 하락세를 보이던 영업이익이 2023년에 들어 회복되었다는 점이다. 영업이익은 2022년 약 -480억 원에서 2023년 -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손실 폭이 96.1%p 감소하였다. 인증유형별 평균 영업이익(손실)을 살펴보면 일자리제공형(843만 원)의 경우, 영업이익을 보고했으나, 다른 인증유형은 그렇지 않았다. 혼합형(-5,725만 원)이 가장 큰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서비스제공형(-1,598만 원), 기타(창의·혁신)형(-1,104만 원), 지역사회공헌형(-604만 원) 순으로 손실이 컸다. 당기순이익(손실)의 경우에 당기순이익 총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평균, 중위값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의 수가 증가하였지만, 당기순이익 총액의 증가 폭이 이에 비례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5-1>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요약

구분	분석결과
사회적기업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2022년에 비해 196개의 사회적기업이 증가해, 2023년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제출기업은 3,637개소. • 인증연도별로는 2021년 및 2022년에 비해 2023년의 인증 기업 수는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 • 인증유형별로는 일자리제공형(66.5%), 조직형태별로는 상법상회사(67.1%)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지원금 및 기타영업의 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전체의 지원금 총액은 355,738,773천 원으로 2022년에 비해 약 9.7% 감소했으며, 지원금 총액 중 정부지원금이 745%를 차지하고 있음. • 지원금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지원금 전체평균은 약 99,147천 원이고 중위값은 33,230천 원으로 작년에 비해 감소함. 정부지원의 경우에는 평균과 중위값이 각각 105,192천 원과 50,242천 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취약계층 및 일반인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46,385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 보다 소폭 증가함(13.9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및 혼합형, 조직형태에서는 상법상회사가 기업당 취약계층 유급 근로자가 많음. • 사회적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반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5,565명. 기업당 평균 근로자 수는 2022년에 비해 감소함(8.1명). 과거에 인증되었던 기업, 인증유형에서 일자리제공형, 조직형태에서는 상법상회사에서 기업당 일반인 근로자 수가 많음. •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1,947천 원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0.8시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일반인 평균임금은 약 2,696천 원으로 2022년에 비해 증가, 평균근로시간은 35.5시간으로 2022년에 비해 소폭 감소. 일반인 평균임금대비 취약계층 평균임금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임(72.2%).
사회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수는 2023년 1,944개소로 2022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전체인원 6,105,233명, 중위값 181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사회서비스제공형과 혼합형 기업의 2023년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은 2,247,251명, 중위값은 422명으로 나타남. 2022년에 비해 총 수혜 인원과 중위값 모두 감소함. 이 수치는 관련 자료의 여러 한계로 인해 해석의 주의를 요함. • 시계열자료 기술분석 결과, 총 사회서비스 수혜 인원의 경우 2022년에 비해 감소함.

<표 5-1>의 계속

구분	분석결과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를 활용하는 기업은 3,269개소, 기타회의체(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등)를 활용하는 주체는 789개소임. 2023년 이사회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0.3%, 수혜자 참여비율은 10.3%, 지역사회 구성원 참여비율은 17.7%로 나타났고, 기타 회의체에 근로자대표 참여비율은 24.6%, 수혜자 참여비율은 10.8%, 지역사회구성원 참여비율은 19.0%로 나타남. 2022년 대비 이사회의 수혜자 참여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함.
사회적 목적재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기업 중 사회적 목적 재투자를 보고한 기업은 총 2,394개소이며, 전체 재투자액은 283,933,613천 원으로 나타남. • 기업 수로는 근로자 처우개선과 지역사회 재투자, 총금액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높게 나타남. 일자리 창출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이 컸던 반면, 지역사회 재투자에는 기업 수는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재투자 금액은 가장 적었음.
수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7,285,120,389천 원을 보임. 매출액 평균은 2,044,085천 원, 중위값은 672,233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지역마다 민간시장매출과 공공시장매출 간 비중 차이가 있었음. • 2023년 영업이익 총액 -1,882,678천 원, 평균 및 중위값은 각각 -528천 원, 2,195천 원임.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총액이나 평균, 중위값 모두 영업손실 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당기순이익 총액은 104,391,384천 원, 평균은 29,365천 원, 중위값은 9,128천 원으로 다소 감소함. 당기순이익을 나타낸 기업의 비율은 67.3%로 전년대비 감소함.
지출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원가 총액은 4,369,792,224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매출원가 평균(1,729,241천 원) 및 중위값(366,141천 원)은 전년 대비 증가함. • 판매관리비(경비 포함) 총액은 3,477,130,037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2년에 비해 평균(975,079천 원)과 중위값(423,915천 원)으로 모두 증가함. • 영업외비용 총액은 170,689,267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2년에 비해 영업외비용 평균(49,880천 원) 및 중위값(9,988천 원)은 증가함. • 노무비 총액은 2,062,434,590천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2022년에 비해 노무비 평균(580,447천 원)은 감소했으나, 중위값(233,550천 원)은 증가함.
노동생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생산성(1인당 매출액)은 2022년에 비해 증가하여 2023년 평균 138,989천 원, 중위값도 증가하여 83,687천 원을 나타냄.

마지막으로 <표 5-2>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핵심적인 수입 항목과 비용 항목을 종합하여 살펴보았다.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최근 3년 동안 영업이익은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였다. 반면, 당기순이익은 2022년 증가한 후 그 수준을 유지하며 흑자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증가했음에도 영업손실이 지속된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급격한 증가로 볼 수 있다. 2023년 매출액은 14.7% 증가했으나, 인건비는 이보다 높은 20.2%가 증가하면서 영업손실이 확대되었다. 한편, 2023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완화로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면서 경영환경이 개선되었고, 인건비 절감을 포함한 비용 관리 노력을 통해 영업손실 규모가 크게 축소되었다. <표 5-2>에 따르면, 인건비의 큰 폭 감소가 적자 축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매출액 등 각 항목 총액의 증감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본 것으로,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입구조와 비용구조를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연구를 통한 종합적인 분석과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2> 사회적기업 수입구조 및 비용구조 요약 (2021~2023)

(단위: 천 원)

항목	2021	2022	2023	증가율
매출액	5,975,954,691	6,854,081,778	7,285,120,389	10.5%
매출원가	3,805,040,700	4,255,622,482	4,369,792,224	7.3%
판매비와관리비	2,679,420,397	3,219,684,222	3,477,130,037	14.1%
인건비	1,689,129,985	1,986,346,184	1,593,426,604	-1.1%
복리후생비	74,698,742	90,843,139	101,191,687	16.5%
(연구)인력개발비	1,573,824	640,024	408,398	-47.8%
교육훈련비	3,233,070	4,399,546	6,170,032	38.2%
경상연구개발비	26,187,755	28,007,630	31,174,018	9.1%
기타	1,289,042,293	1,574,538,836	1,726,030,414	15.9%
영업이익	-35,101,092	-48,048,714	-1,882,678	-29.6%
당기순이익	78,310,101	104,254,230	104,391,384	16.6%

주 : 인건비=인력비용+임원급여+직원급여+상여금+성과급+잡급(일용급여)+제수당+퇴직급여
 기타=판매비와관리비-인건비-복리후생비-(연구)인력개발비-교육훈련비-경상연구개발비
 판매비와관리비(총액, 각 항목)은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상의 판매비와관리비와 제조원가
 명세서의 경비를 포함한 값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부록] 상대적 성과 비교 분석

[부록]에서는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정책 자료 등과 복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일반기업들과의 객관적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반 현황, 재무성과, 기업분포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절 사회적기업 지역별 분포 현황

사회적기업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인구수, 사업체,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의 분포를 파악하였다. 또한 시군구 단위 현황을 GIS를 통해 분포를 시각화하여 현재 사회적기업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을 파악하였다.

1. 사회적기업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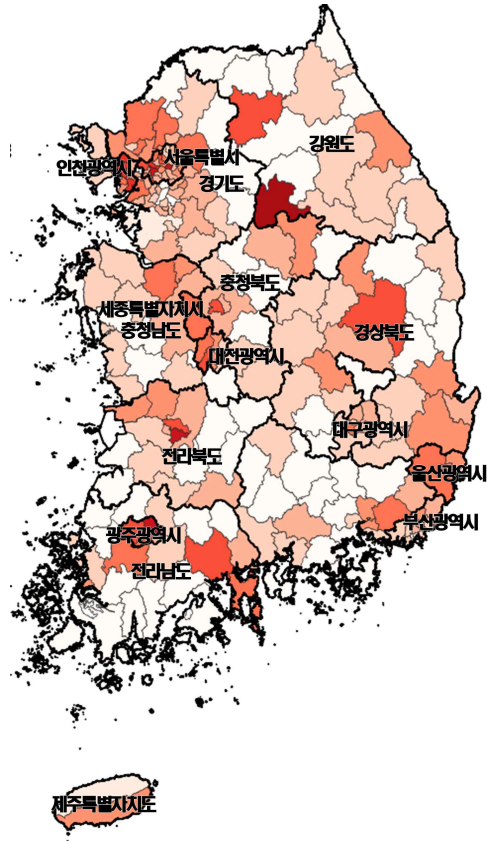
2023년 사회적기업의 시도 및 시군구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기도가 648개로 가장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가 599개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세종특별자치시가 30개, 제주특별자치도가 88개 순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 단위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시(64개), 경기도 화성시(61개), 강원도 원주시(56개) 등이 사회적기업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부1-1> 2023년 사회적기업 시도 분포 현황

구분		사회적기업 (2023년 기준)	
		개소	순위
합계		3,637	-
1	서울	599	2
2	부산	169	9
3	대구	133	13
4	인천	213	4
5	광주	153	10
6	대전	117	14
7	울산	114	15
8	세종	30	17
9	경기	648	1
10	강원	200	7
11	충북	152	11
12	충남	152	11
13	전북	211	5
14	전남	202	6
15	경북	261	3
16	경남	195	8
17	제주	88	16

[그림 부1-1] 2023년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



<표 부1-2> 2023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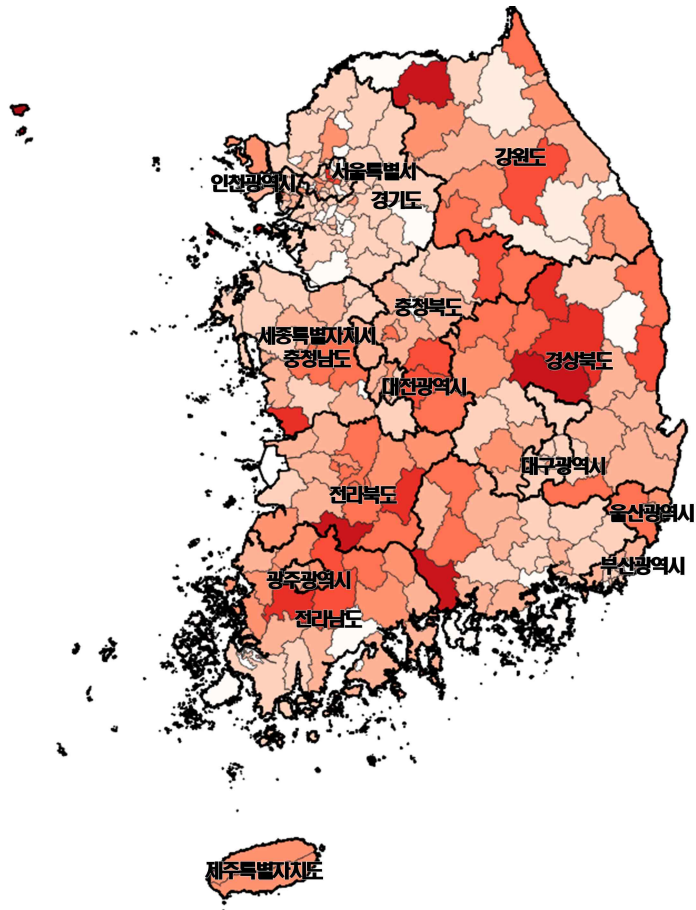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1	25	16	8	1	5	5	5	1	44	18	13	16	15	22	24	22	2
1	0~6이하	74		4		1					9	9	5	6	6	14	8	12	
2	6~12이하	61	2	7	2	3		1	1		1	6	3	6	3	3	9	5	
3	12~19이하	49	1	4	5	1	1				16		3	2	2	1	2	2	
4	19~25이하	27	4	1		2		2	2		3	1	1	1	2	1	4	2	1
5	25~32이하	20	3		1	1	2	1	2	1	5			1		2		1	
6	32~38이하	10	3				1	1				1	1		1	1	1		
7	38~44이하	3	1			2													
8	44~51이하	4	2				1								1				
9	51~57이하	1										1							
10	57~64이하	2									1								1

2.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강원도가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가 13.1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특별자치도가 13.0개, 전라북도 12.0개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사회적기업 개소 수가 가장 많았으나 인구수 역시 13,630,821명으로 가장 많은 만큼, 인구 10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는 4.8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상위 9개 지역은 모두 군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인제군(34.4개), 정선군(32.2개), 영월군(32.1개)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2] 2023년 인구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3>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3년 기준)		총인구수 (2023년 기준)		인구 10만 명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명	순위	개소	순위
합계		3,637	-	51,325,329	-	7.1	-
1	서울	599	2	9,386,034	2	6.4	13
2	부산	169	9	3,293,362	3	5.1	16
3	대구	133	13	2,374,960	7	5.6	15
4	인천	213	4	2,997,410	5	7.1	12
5	광주	153	10	1,419,237	14	10.8	5
6	대전	117	14	1,442,216	13	8.1	9
7	울산	114	15	1,103,661	15	10.3	6
8	세종	30	17	386,525	17	7.8	10
9	경기	648	1	13,630,821	1	4.8	17
10	강원	200	7	1,527,807	12	13.1	1
11	충북	152	11	1,593,469	11	9.5	8
12	충남	152	11	2,130,119	8	7.1	11
13	전북	211	5	1,754,757	10	12.0	3
14	전남	202	6	1,804,217	9	11.2	4
15	경북	261	3	2,554,324	6	10.2	7
16	경남	195	8	3,251,158	4	6.0	14
17	제주	88	16	675,252	16	13.0	2

<표 부1-4> 2023년 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1	25	16	8	1	5	5	5	1	44	18	13	16	15	22	24	22	2	
1	0~3.4이하	30	4	3							11	2	1	1		3	1	4		
2	3.4~6.9이하	89	14	8	6	4		1	1		27	1	2	8	1	3	5	8		
3	6.9~10.3이하	54	1	4		3	1	3	2	1	3	3	4	4	4	7	7	7		
4	10.3~13.7이하	32	2	1	1	1	3	1	1		3	5			4	5	3		2	
5	13.7~17.2이하	22	1			1	1		1			2	3	2	4	1	4	2		
6	17.2~20.6이하	9	1		1							1	3			2	1			
7	20.6~24이하	7	2											1	1	1	2			
8	24~27.5이하	4										1			1		1	1		
9	27.5~30.9이하	1				1														
10	30.9~34.4이하	3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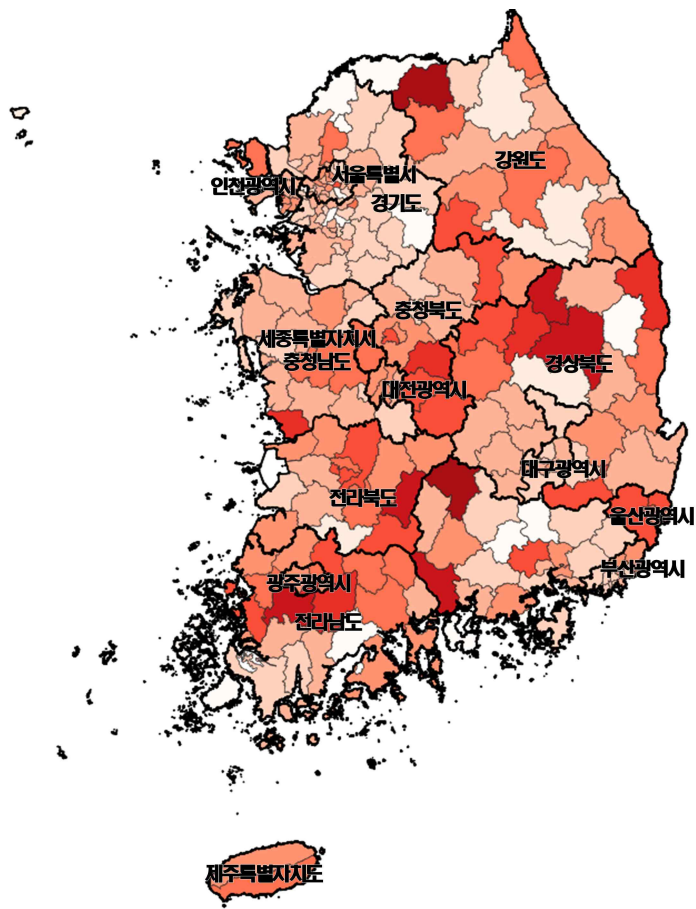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3.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울산광역시, 강원도가 사업체 1만 개당 사회적기업 수가 9.8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9.1개) 순으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부산광역시가 4.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사업체 1만 개당 사회적기업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인천 1개(옹진군), 강원 3개(정선군, 인제군, 영월군) 지역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1-3]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5>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3년 기준)		사업체 현황 (2022년 기준)		사업체 1만 개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개소	순위	개소	순위
합계		3,637	-	6,139,899	-	5.9	-
1	서울	599	2	1,180,025	2	5.1	13
2	부산	169	9	400,565	3	4.2	17
3	대구	133	13	279,223	7	4.8	15
4	인천	213	4	317,133	6	6.7	11
5	광주	153	10	170,894	13	9.0	6
6	대전	117	14	164,664	14	7.1	10
7	울산	114	15	115,784	15	9.8	1
8	세종	30	17	33,076	17	9.1	4
9	경기	648	1	1,514,951	1	4.3	16
10	강원	200	7	203,375	11	9.8	2
11	충북	152	11	197,158	12	7.7	9
12	충남	152	11	266,577	8	5.7	12
13	전북	211	5	232,695	10	9.1	5
14	전남	202	6	236,470	9	8.5	7
15	경북	261	3	333,276	5	7.8	8
16	경남	195	8	397,699	4	4.9	14
17	제주	88	16	96,334	16	9.1	3

<표 부1-6> 2022년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1	25	16	8	1	5	5	5	1	44	18	13	16	15	22	24	22	2	
1	0.0~2.2이하	17	1	1							6	1				3	1	4		
2	2.2~4.5이하	63	9	9	3						21	2	2	5	1	2	2	7		
3	4.5~6.7이하	67	8	4	3	4		1			15	2	3	7	2	4	1	4		
4	6.7~9.0이하	48	6	2	2	3	3	4	2			5	3	1	5	5	2	4	1	
5	9.0~11.2이하	21				2	1		1	1	2	3		2	2	4	2		1	
6	11.2~13.4이하	16	1						2			1	4		3	2	2	1		
7	13.4~15.7이하	6					1						1	1		1	2			
8	15.7~17.9이하	5													1	1	2	1		
9	17.9~20.1이하	2										1						1		
10	20.1~22.3이하	6				1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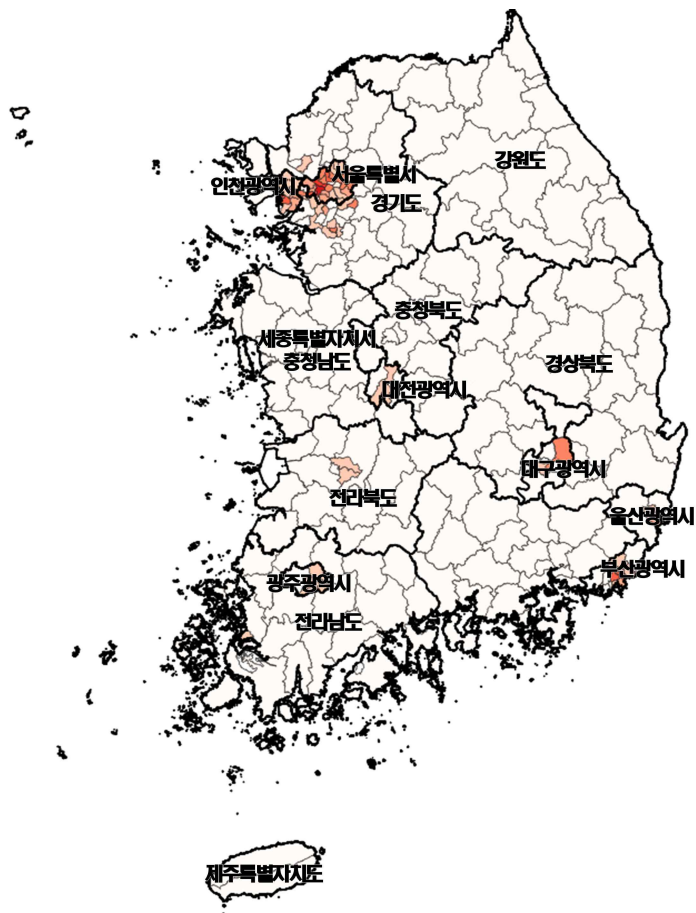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4.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서울특별시가 면적 100km² 당 사회적기업 수가 99.0개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가 30.5개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강원도가 1.2개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 면적 대비 밀집도를 10단계로 구분하여 GIS로 파악한 결과, 상위 10개 시군구는 모두 구 지역으로 확인되었으며,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개소 수는 ‘구’ 지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성동구(285.4개), 서울특별시 금천구 (268.8개), 서울 중구 (261.0개) 순으로 높은 밀집도를 보였다.

[그림 부1-4] 2023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



<표 부1-7>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구분		사회적기업 (2023년 기준)		면적 (2023년 기준)		면적 100km ² 당 사회적기업	
		개소	순위	km ²	순위	개소	순위
합계		3,637	-	100,449.4	-	3.6	-
1	서울	599	2	605.2	14	99.0	1
2	부산	169	9	771.3	13	21.9	3
3	대구	133	13	1,499.5	10	8.9	7
4	인천	213	4	1,067.1	11	20.0	5
5	광주	153	10	501.0	16	30.5	2
6	대전	117	14	539.8	15	21.7	4
7	울산	114	15	1,062.8	12	10.7	6
8	세종	30	17	465.0	17	6.5	8
9	경기	648	1	10,199.7	5	6.4	9
10	강원	200	7	16,830.8	2	1.2	17
11	충북	152	11	7,407.0	8	2.1	12
12	충남	152	11	8,247.5	6	1.8	14
13	전북	211	5	8,073.3	7	2.6	11
14	전남	202	6	12,362.3	3	1.6	15
15	경북	261	3	18,424.1	1	1.4	16
16	경남	195	8	10,542.5	4	1.8	13
17	제주	88	16	1,850.3	9	4.8	10

<표 부1-8> 2023년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시군구별 개소 분포 현황

단계	구간	시군구 현황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시군구 수		251	25	16	8	1	5	5	5	1	44	18	13	16	15	22	24	22	2	
1	0.0~28.6이하	179		6	4	3	1	2	3	1	3	18	13	16	13	21	24	22	2	
2	28.6~57.1이하	34	5	5	1	3	3	3	1		1				2	1				
3	57.1~85.7이하	11	5	1		2	1		1		1									
4	85.7~114.2이하	13	8		2						3									
5	114.2~142.8이하	7	2	3		2														
6	142.8~171.3이하	2	1	1																
7	171.3~199.9이하	1	1																	
8	199.9~228.4이하																			
9	228.4~256.9이하	1			1															
10	256.9~285.5이하	3	3																	

* 시군구는 세밀한 분석을 위해 자치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일반구·행정시 단위로 구분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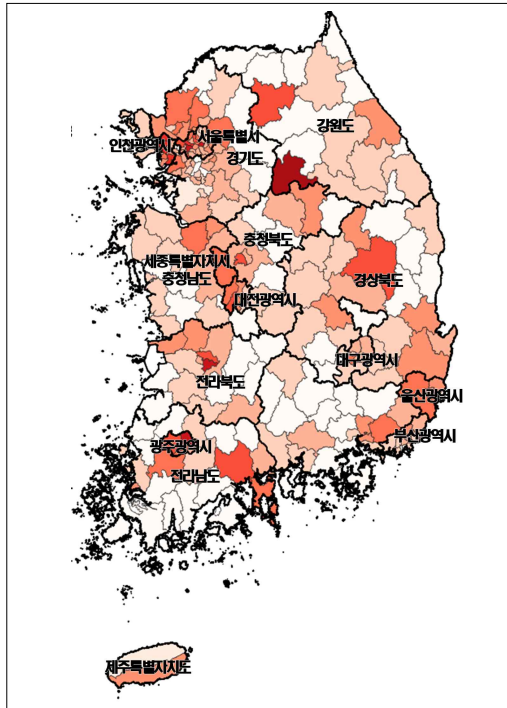
5. 사회적기업 분포 종합진단

사회적기업의 수를 인구, 사업체, 면적 대비로 비교한 결과, 단순히 사회적기업 개소수로 파악했을 때는 도시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나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밀집도를 분석한 결과는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밀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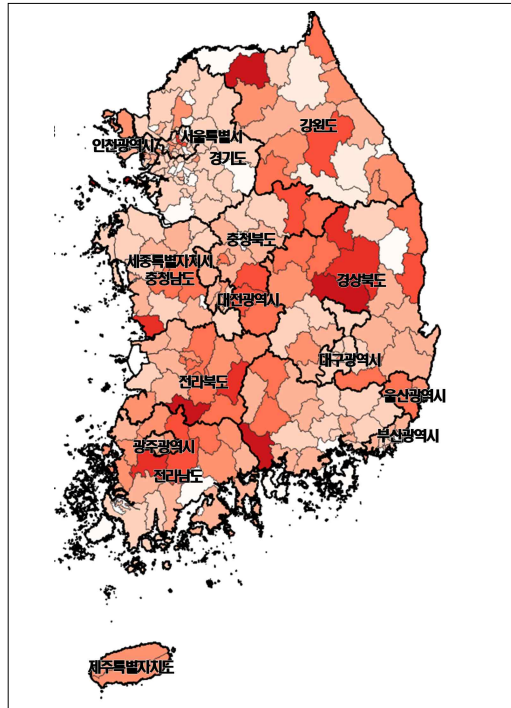
농촌 지역은 인구 부족으로 시장 규모가 작고 수익성 창출이 어려워 기업 유치에 한계를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일자리 부족으로 이어져 농촌 지역의 인구감소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된다. 인구 감소는 결국 지방세수 감소로 연결되며, 이는 지자체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한다.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은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지역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 수익성이 낮은 농촌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이 농촌 지역에서 인구 및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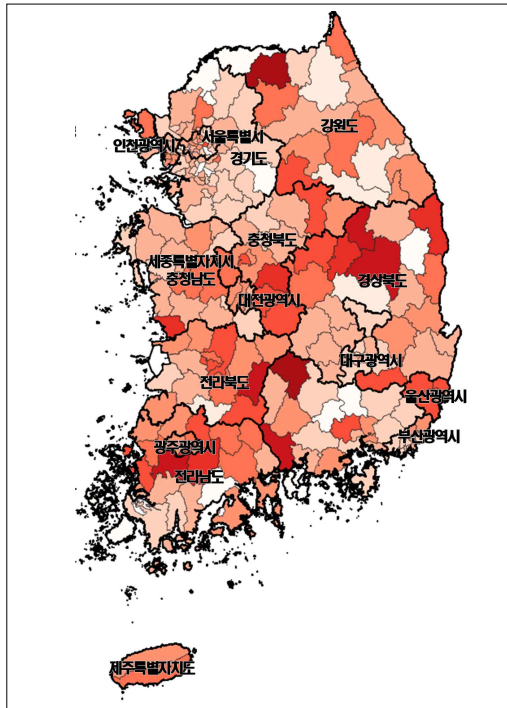
[그림 부1-5] 사회적기업 시군구 분포 현황(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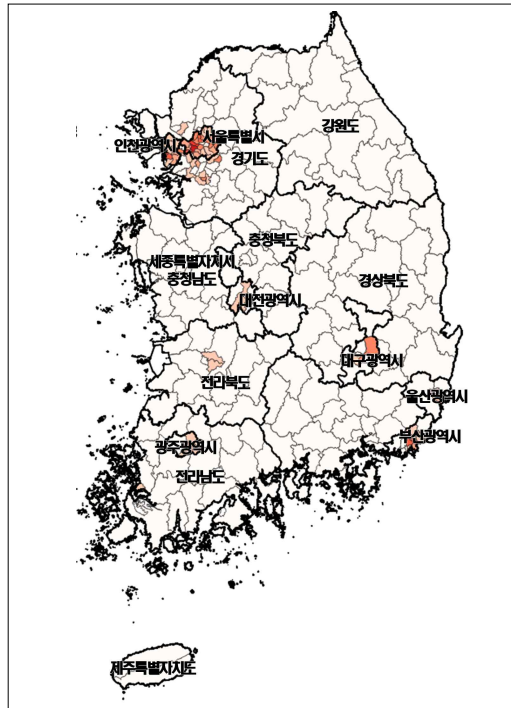
[그림 부1-6] 총인구수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3)



[그림 부1-7] 사업체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2)



[그림 부1-8] 면적 대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2023)



제2절 사회적 및 경제적성과 비교

일반기업 대비 사회적기업의 발생시키고 있는 상대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광역단체, 연구기관 등의 관련 정책 자료 및 연구자료 등의 2차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국내의 경제 동향, 고용시장 상황 등의 거시적인 조사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객관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1.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비교

1) 3개년(2021~2023)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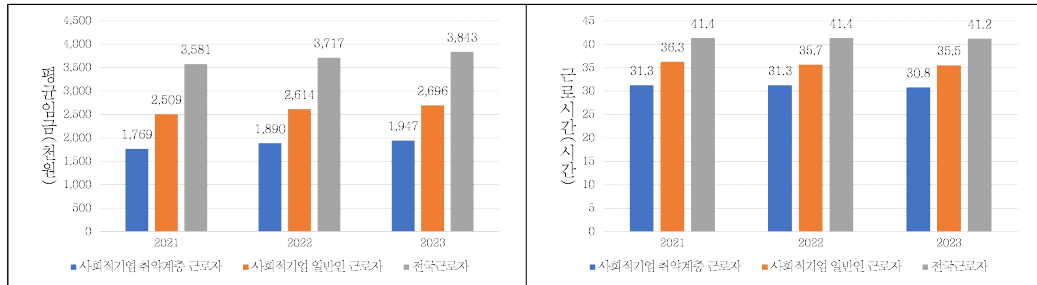
먼저 사회적기업과 일반기업 근로자의 3개년 평균임금과 평균 근로시간을 비교하였다. [그림 부2-1], <표 부2-1>을 보면 2023년 기준 전국근로자의 월 임금은 3,843천 원, 주 근로시간은 41.2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23.3천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기업의 일반인 근로자의 월 임금은 2,696천 원, 주 근로시간은 35.5시간, 근로시간 당 임금은 19.0천 원,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의 월 임금은 1,947천 원, 평균 근로시간은 30.8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15.8천 원으로 나타나, 전국근로자의 평균임금,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당 임금은 모두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근로자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이 포함되나, 사회적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중소기업 규모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의 임금 및 근로시간이 낮게 나타난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표 부2-1>에서 나타나듯이 사회적기업의 일반근로자와 취약계층 근로자 모두 근로시간당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근로 여건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회적기업의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의 근로시간당 임금상승률은 전국 근로자의 상승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근로 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월 임금, 평균 주 근로시간

(단위: 천 원)



<표 부2-1>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당 임금

(단위: 천 원)

구분		월 임금			주 근로시간			근로시간 당 임금			상승률 (3개년)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전국근로자		3,581	3,717	3,843	41.4	41.4	41.2	21.6	22.4	23.3	3.9%
사회적 기업	일반근로자	2,509	2,614	2,696	36.3	35.7	35.5	17.3	18.3	19.0	4.8%
	취약계층 근로자	1,769	1,890	1,947	31.3	31.3	30.8	14.1	15.1	15.8	5.9%

주: 주 근로시간 = 상용근로시간/상용근로일수X5

근로시간당 임금 = 월평균임금/주근로시간/4주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고용노동부(2023a).

2) 시도별 월평균 임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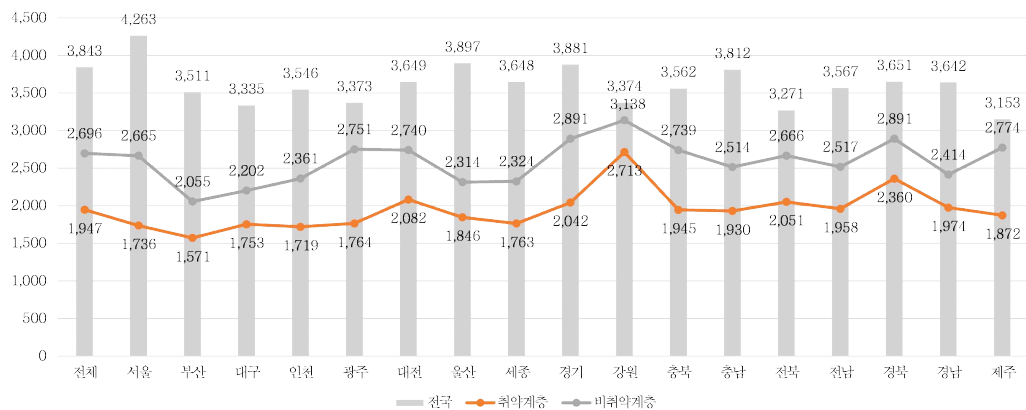
2023년 월평균 임금을 시도 간 비교한 결과 일반근로자는 서울특별시가 4,263천 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은 강원도가 비취약계층 3,138천 원, 취약계층은 2,713천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 임금 차이가 가장 큰 지역 또한 서울특별시로 임금 차이는 929천 원으로 나타났으며,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의 임금 격차가 가장 작은 지역은 강원도로 425천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 및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가 발생함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예상되며, 시도별 업종에 따른 임금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천 원,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고용노동부(2023a).

<표 부2-2>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임금

(단위: 천 원, %)

지역	평균임금			임금 비율	
	일반근로자	사회적기업		취약/전국	비취약/전국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전체	3,843	1,947	2,696	50.7	70.2
서울	4,263	1,736	2,665	40.7	62.5
부산	3,511	1,571	2,055	44.8	58.5
대구	3,335	1,753	2,202	52.6	66.0
인천	3,546	1,719	2,361	48.5	66.6
광주	3,373	1,764	2,751	52.3	81.6
대전	3,649	2,082	2,740	57.1	75.1
울산	3,897	1,846	2,314	47.4	59.4
세종	3,648	1,763	2,324	48.3	63.7
경기	3,881	2,042	2,891	52.6	74.5
강원	3,374	2,713	3,138	80.4	93.0
충북	3,562	1,945	2,739	54.6	76.9
충남	3,812	1,930	2,514	50.6	65.9
전북	3,271	2,051	2,666	62.7	81.5
전남	3,567	1,958	2,517	54.9	70.6
경북	3,651	2,360	2,891	64.6	79.2
경남	3,642	1,974	2,414	54.2	66.3
제주	3,153	1,872	2,774	59.4	88.0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고용노동부(2023a)

3) 시도별 평균 주 근로시간 비교

2023년 평균 주 근로시간을 시도 간 비교한 결과 충청남도의 일반근로자가 42.3시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기업 비취약계층은 제주특별자치도가 38.1시간, 취약계층은 강원특별자치도가 34.4시간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 간의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로 취약계층은 31.8시간, 비취약계층은 34.1시간으로 2.3시간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지역은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로, 각각 취약계층은 29.7시간과 31.1시간, 비취약계층 36.7시간과 38.1시간으로 7.0시간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지역별 사회적기업의 활성화 정도 및 업종 간의 다양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예상되며, 시도별 업종에 따른 근로시간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명확한 차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주 근로시간

(단위: 시간, %)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고용노동부(2023a).

<표 부2-3> 지역별 사회적기업 및 전국 유급 근로자 평균 근로시간

(단위: 시간, %)

지역	주당 평균 근로시간			근로시간 비율	
	전국	사회적기업		취약/전국	비취약/전국
		취약계층	비취약계층		
전체	41.2	30.8	35.5	74.8	86.1
서울	40.9	29.0	35.0	70.8	85.5
부산	40.5	28.2	31.8	69.7	78.6
대구	41.0	30.9	35.4	75.3	86.3
인천	41.4	29.3	35.3	70.7	85.3
광주	40.2	29.7	36.7	73.9	91.1
대전	40.9	34.3	37.1	83.9	90.8
울산	41.7	32.3	35.4	77.4	84.9
세종	42.0	31.8	34.1	75.7	81.2
경기	41.5	31.4	35.1	75.6	84.5
강원	40.8	34.4	37.4	84.3	91.6
충북	41.8	30.4	37.0	72.8	88.6
충남	42.3	30.8	35.0	72.9	82.8
전북	40.6	32.1	36.8	79.1	90.7
전남	40.4	33.3	37.8	82.3	93.3
경북	41.7	32.3	36.2	77.5	86.7
경남	42.1	31.0	34.5	73.6	81.8
제주	40.3	31.1	38.1	77.3	9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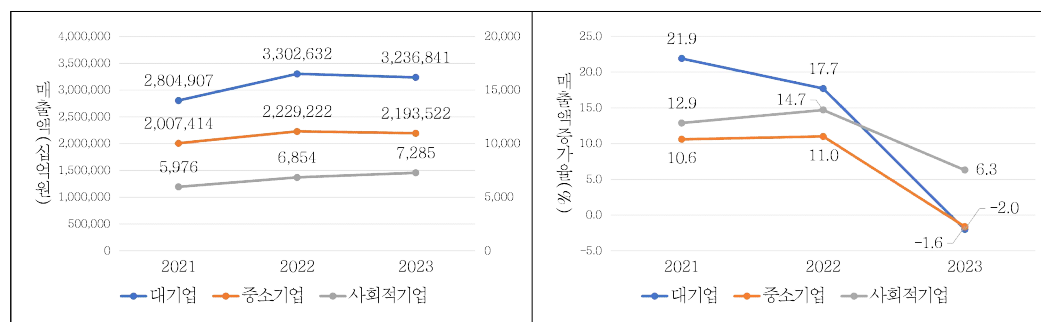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3), 고용노동부(2023a).

2. 수입구조: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매출액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액은 소폭 감소한 반면,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기준 대기업은 약 3,236조 8천억 원, 중소기업은 약 2,193조 5천억 원, 사회적기업은 약 7조 3천억 원의 매출액 규모를 보였다.

2023년 매출액 증가율은 대기업이 -2.0%, 중소기업이 -1.6%, 사회적기업이 6.3%로 나타나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지만,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양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러한 매출액 변화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해외 시장에 미친 영향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사회적기업에 비해 글로벌 시장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국제무역 둔화와 공급망 차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주: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대기업 8,947개소, 중소기업 926,65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국은행(2023).

<표 부2-4>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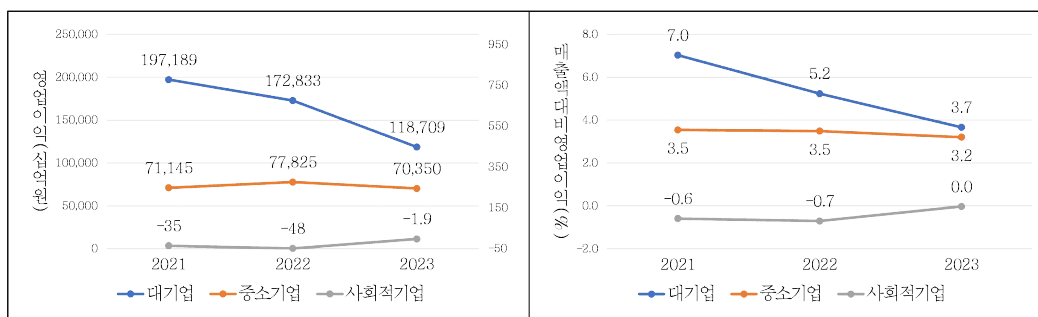
규모	매출액(백만 원)%			매출액 증가(%)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대기업	2,804,906,596	3,302,632,020	3,236,841,206	21.9	17.7	-2.0
중소기업	2,007,413,951	2,229,221,847	2,193,521,801	10.6	11.0	-1.6
사회적기업	5,975,955	6,854,082	7,285,120	12.9	14.7	6.3

3. 수입구조: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영업이익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업이익은 대기업이 약 118조 7천억 원, 중소기업이 약 70조 4천억 원, 사회적기업이 약 -19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은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사회적기업은 유지하다가 회복하는 양상을 보였다.

2023년 매출액영업이익률은 대기업이 3.7%, 중소기업이 3.2%, 사회적기업이 0.0%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변화는 영업이익과 유사한 변화를 보였으며, 중소기업은 최근 3년 동안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그림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주: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대기업 8,947개소, 중소기업 926,65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국은행(2023).

<표 부2-5> 영업이익 및 매출액영업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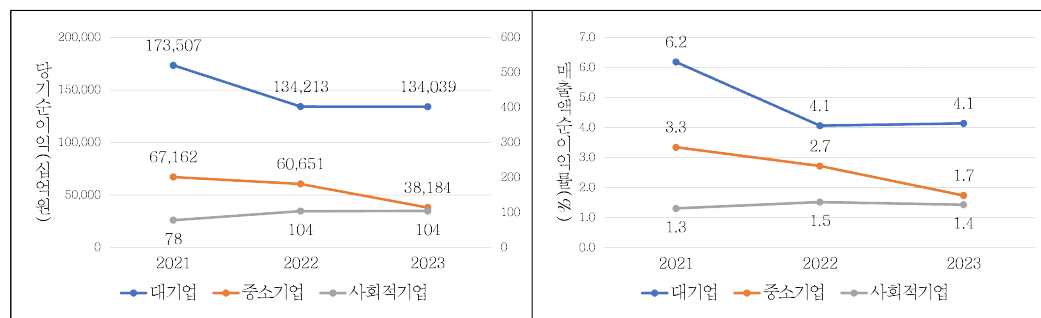
규모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대기업	197,189,270	172,832,683	118,709,342	7.0	5.2	3.7
중소기업	71,144,975	77,824,891	70,349,707	3.5	3.5	3.2
사회적기업	-35,101	-48,049	-1,883	-0.6	-0.7	0.0

4. 수입구조: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2023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대기업이 약 134조 원, 중소기업이 약 38조 2천억 원, 사회적기업이 약 1,040억 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당기순이익은 2022년 감소하였지만 2023년에는 안정세를 보였고, 중소기업의 당기순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사회적기업의 당기순이익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매출액순이익률은 대기업이 4.1%, 중소기업이 1.7%, 사회적기업이 1.4%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순이익률의 변화 추세는 당기순이익의 변화 추세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주: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대기업 8,947개소, 중소기업 926,65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국은행(2023).

<표 부2-6> 당기순이익 및 매출액순이익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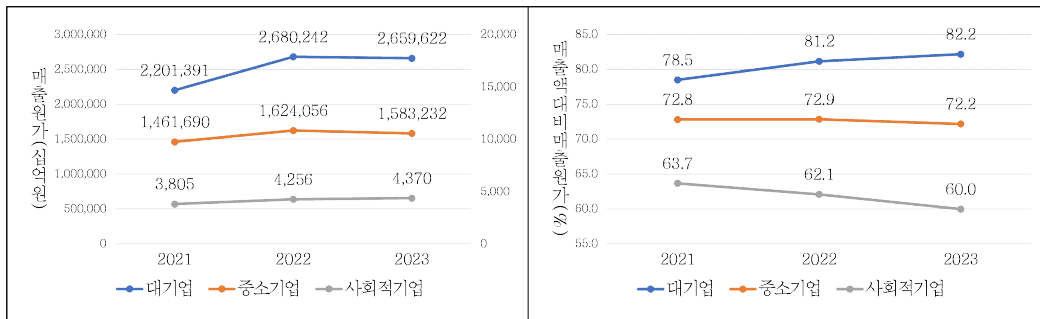
규모	당기순이익(백만 원)			매출액 순이익률(%)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대기업	173,506,730	134,212,941	134,038,877	6.2	4.1	4.1
중소기업	67,161,826	60,650,882	38,184,475	3.3	2.7	1.7
사회적기업	78,310	104,254	104,391	1.3	1.5	1.4

5. 비용구조: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매출원가 변화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매출원가는 대기업이 약 2,659조 6천억 원, 중소기업이 약 1,583조 2천억 원, 사회적기업이 약 4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대기업이 82.2%, 중소기업이 72.2%, 사회적기업이 60.0%로 나타났다.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은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사회적기업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림 부2-기]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교



주: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대기업 8,947개소, 중소기업 926,65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국은행(2023).

<표 부2-7> 매출원가 및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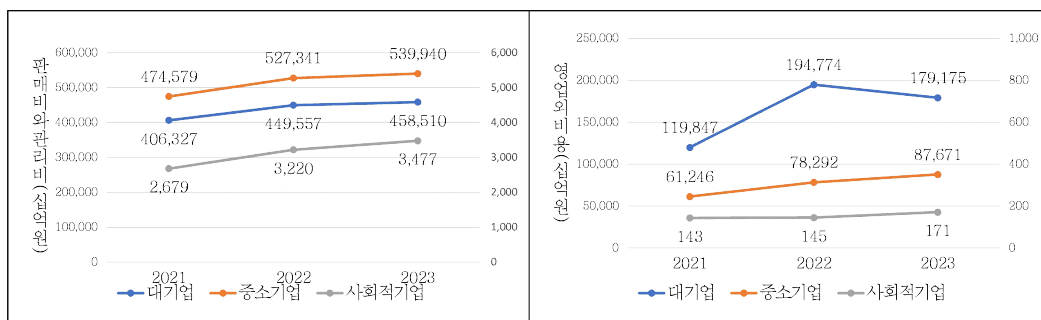
규모	매출원가(백만 원)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대기업	2,201,390,608	2,680,242,443	2,659,621,786	78.5	81.2	82.2
중소기업	1,461,689,759	1,624,055,966	1,583,231,643	72.8	72.9	72.2
사회적기업	3,805,041	4,255,622	4,369,792	63.7	62.1	60.0

6. 비용구조: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비용 비교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 판매비와 관리비의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판매비와 관리비는 대기업이 약 458조 5천억 원, 중소기업이 약 539조 9천억 원, 사회적기업이 약 3조 4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모든 기업의 판매비와 관리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한편 영업외비용의 3개년 변화를 파악한 결과 대기업 영업외비용의 변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영업외비용은 대기업이 약 179조 1천억 원, 중소기업이 약 87조 6천억 원, 사회적기업이 약 1,7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영업외비용 변화 추세를 보면 대기업은 2022년 증가하였다가 2023년에 다시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주: 비금융 영리법인 기업(대기업 8,947개소, 중소기업 926,650개소)의 경영성과 자료임
 자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2021, 2022, 2023), 한국은행(2023).

<표 부2-8> 판매비와 관리비 및 영업외비용 비교

규모	판매비와 관리비(백만 원)			영업외비용(백만 원)		
	2021	2022	2023	2021	2022	2023
대기업	406,326,717	449,556,895	458,510,078	119,846,628	194,773,895	179,174,561
중소기업	474,579,218	527,340,989	539,940,451	61,245,900	78,292,220	87,671,166
사회적기업	2,679,420	3,219,684	3,477,130	143,130	144,654	170,689

제3절 기업규모별 경제성과 비교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일반기업과 유사한 지원을 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규모를 고려한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소상공인부터 중견기업까지 다양한 기업규모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기업의 기업규모 분포 현황을 파악하였다.

1)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분류

정부 정책에서는 기업규모에 따른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기업규모에 따른 원활한 지원을 위해 중기업 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중견기업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원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기업규모의 목적은 소상공인은 경영 안정화, 소기업은 기업 성장, 중기업은 경영고도화, 중견 및 대기업은 사업화 등의 전략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기업별 매출 및 업종이 매우 다양하며, 기업규모(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도 매우 폭넓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사회적기업의 기업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본법을 통해 기업분류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기업 현황을 파악하였다.

<표 부3-1> 2023년 기업분류 기준표

번호	업종분류		중소기업기준 (매출액)	소기업기준 (매출액)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코드	업종명			
1	C10	식품류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	C11	음료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4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5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표 부3-1>의 계속

6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7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8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9	C24	1차 금속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1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2	C28	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3	C29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4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5	C32	가구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10명 미만
16	D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5명 미만
17	E36	수도업	1,000억 원 이하	120억 원 이하	5명 미만
18	A	농업,임업 및 어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명 미만
19	B	광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0	C12	담배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1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2	C16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가구제외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3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5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4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5	C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6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7	C31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8	C33	그 밖의 제품 제조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29	F	건설업	1,0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0	H	운수 및 창고업	8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10명 미만
31	K	금융 및 보험업	400억 원 이하	80억 원 이하	5명 미만
32	G	도매 및 소매업	1,0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5명 미만
33	J	정보통신업	800억 원 이하	50억 원 이하	5명 미만
34	E(E36 제외)	수도, 하수및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제외	8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5	L	부동산업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6	M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7	N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8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39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10명 미만
40	I	숙박 및 음식점업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1	P	교육 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2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3	S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00억 원 이하	10억 원 이하	5명 미만
44	N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400억 원 이하	30억 원 이하	5명 미만

자료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1](개정 2018.3.27). “주된 업종별 매출액의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개정 2017.10.17.).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2) 사회적기업 기업규모 현황

기업규모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만 기업 규모를 파악하였다. <표 부3-2>에서 정리하였듯이, 재무제표를 제출한 기업은 2021년 3,215개 기업 중 3,063개(95.3%), 2022년 3,534개 기업 중 3,408개(96.4%) 2023년 3,737개 기업 중 3,564개(95.4%) 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최소 95% 이상의 기업의 현황이 파악되었다.

<표 부3-2> 3개년(2021~2023)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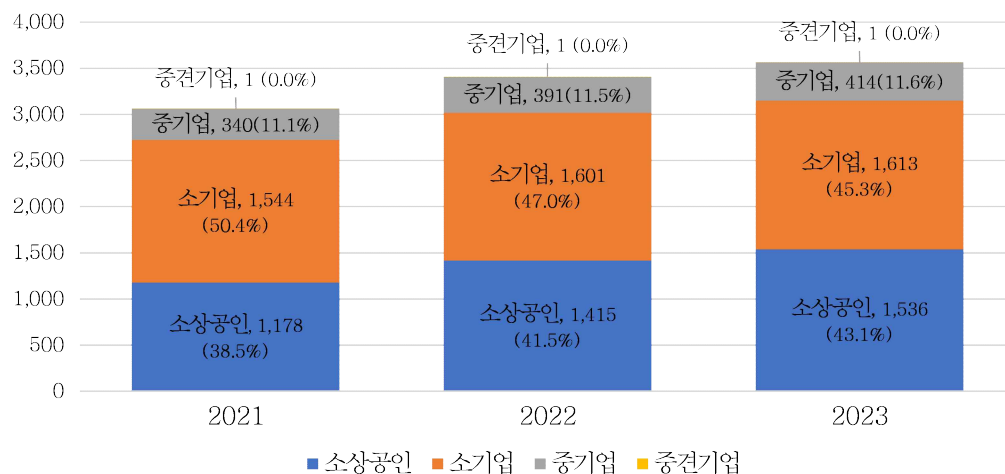
(단위: 개소, %)

연도	사회적기업		재무제표 제출 기업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기업 수	제출 비율	N	%	N	%	N	%	N	%	N	%
2021	3,215	95.3	3,063	100	1,178	38.5	1,544	50.4	340	11.1	1	0
2022	3,534	96.4	3,408	100	1,415	41.5	1,601	47.0	391	11.5	1	0
2023	3,737	95.4	3,564	100	1,536	45.3	1,613	43.1	414	11.6	1	0

먼저 최근 3개년(2021~2023) 간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분포 현황을 [그림 부3-2]에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소기업이 2021년 1,544개(50.4%), 2022년 1,601개(47.0%), 2023년 1,613개(4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소상공인의 비중이 2021년 1,178개(38.5%), 2022년 1,415개(41.5%) 2023년 1,536개(45.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표 부3-3>에서 분석한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을 살펴보았다. 우선 최근 3년 동안 인증을 많이 받은 업종들은 제조업(2,927개소), 교육 서비스업(1,196개소), 도매 및 소매업(1,028개소),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28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업종들을 중심으로 3개년 평균 매출과 인증 증가율을 분석해 보면, 매출 규모가 상위권인 제조업보다 매출 규모가 최하위권인 교육 서비스업과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가 상대적으로 소상공인의 증가와 소기업의 증가로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그림 부3-1] 3개년(2021~2023)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표 부3-3> 3개년(2021~2023) 업종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천 원, 개소, %)

구분		매출	개소				
		평균 (21~23)	2021	2022	2023	합계	증가율 (21~23)
합계		2,004,629	3,063	3,408	3,564	10,035	7.9
1	농업, 임업 및 어업	844,531	93	114	107	314	8.2
2	광업	359,951	1	0	0	1	-
3	제조업	2,546,210	911	980	1,036	2,927	6.6
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676,125	6	8	8	22	16.7
5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233,254	70	74	75	219	3.5
6	건설업	1,367,381	153	167	171	491	5.8
7	도매 및 소매업	5,016,984	309	360	359	1,028	8.1
8	운수 및 창고업	3,427,946	19	20	21	60	5.1
9	숙박 및 음식점업	815,033	105	114	105	324	0.3
10	정보통신업	964,898	118	135	135	388	7.2
11	금융 및 보험업	996,792	1	1	0	2	-
12	부동산업	1,336,243	12	12	15	39	12.5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339,344	75	85	108	268	20.2
14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879,650	262	294	322	878	10.9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50,843	2	0	0	2	-
16	교육 서비스업	637,864	352	403	441	1,196	12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032,942	234	256	261	751	5.7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545,958	285	316	327	928	7.2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583,726	55	69	73	197	15.6
20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0	0	0	0	-
21	국제 및 외국기관	-	0	0	0	0	-

<표 부3-4> 2023년 시도 및 기업규모별 사회적기업 현황

(단위: 천 원)

구분		합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N	%	N	%	N	%	N	%	N	%
합계		3564	100.0	1536	43.1	1613	45.3	414	11.6	1	0.0
1	서울	575	100.0	215	37.4	276	48.0	83	14.4	1	0.2
2	부산	163	100.0	69	42.3	79	48.5	15	9.2	0	0.0
3	대구	132	100.0	57	43.2	67	50.8	8	6.1	0	0.0
4	인천	210	100.0	93	44.3	93	44.3	24	11.4	0	0.0
5	광주	152	100.0	68	44.7	73	48.0	11	7.2	0	0.0
6	대전	116	100.0	47	40.5	57	49.1	12	10.3	0	0.0
7	울산	111	100.0	46	41.4	52	46.8	13	11.7	0	0.0
8	세종	30	100.0	11	36.7	15	50.0	4	13.3	0	0.0
9	경기	642	100.0	232	36.1	290	45.2	120	18.7	0	0.0
10	강원	191	100.0	88	46.1	84	44.0	19	9.9	0	0.0
11	충북	145	100.0	70	48.3	58	40.0	17	11.7	0	0.0
12	충남	151	100.0	70	46.4	67	44.4	14	9.3	0	0.0
13	전북	211	100.0	90	42.7	101	47.9	20	9.5	0	0.0
14	전남	199	100.0	117	58.8	73	36.7	9	4.5	0	0.0
15	경북	260	100.0	117	45.0	124	47.7	19	7.3	0	0.0
16	경남	191	100.0	105	55.0	68	35.6	18	9.4	0	0.0
17	제주	85	100.0	41	48.2	36	42.4	8	9.4	0	0.0

2. 기업규모별 경제성과 비교

1)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비교 자료 구축

본 연구는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를 파악하고자 기업 규모를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으로 분류하여 일반기업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중견기업의 경우 사회적기업에서는 1개 기업으로 일반기업과 비교하기 어려움에 따라 제외하였다.

기업규모에 따라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 간 비교를 위해 소상공인실태조사, 중소기업 실태조사,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자료의 조사항목을 검토한 결과 총 5개의 항목이 비교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는 조사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와 중소기업 실태조사의 경우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조사하고 있어 이를 추가 비교하였다. 항목별 세부 산출 방식은 <표 부3-5>에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소상공인 실태조사와 중소기업에서는 조사한 업종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10개 업종이 공통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 업종*에 대한 7개 지표의 현황자료를 재구축하여 기업규모에 따라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10개 업종: ① 교육 서비스업, ② 도매 및 소매업, ③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④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 ⑥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⑦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⑧ 정보통신업, ⑨ 제조업, ⑩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참고로 본 연구를 진행한 시점에서는 소상공인실태조사 및 중소기업실태조사는 모두 기업의 2022년 재무제표 조사 결과만 공개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비교를 위하여 사회적기업도 2022년에 제출된 재무제표로 비교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부3-5>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경영현황 조사 항목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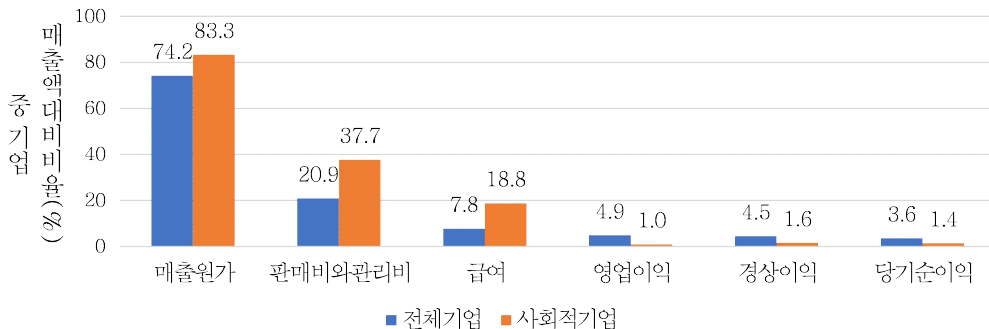
번호	항목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2022)	소상공인실태조사 (2022)	중소기업실태조사 (2022)
1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2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매출원가
3	판매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영업비용-매출원가	판매비와관리비
4	급여	인력비용+임원급여 +직원급여+제수당 +상여금+성과급 +갑급(일용급여)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제외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제외
5	영업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영업비용	영업손익
6	경상이익	영업이익+영업외수익- 영업외비용	-	세전계속사업손익
7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당기순손익

주 : 소상공인 실태조사에서 급여총액 조사 시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조사하여
 사회적기업 및 중소기업 급여 계산 시에도 해당 항목을 제외하고 산출하였음
 자료 :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2), 소상공인실태조사(2022), 중소기업실태조사(2022)

2) 기업규모별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비교

먼저 일반기업 내 중기업과 사회적기업 내 중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2]와 같다.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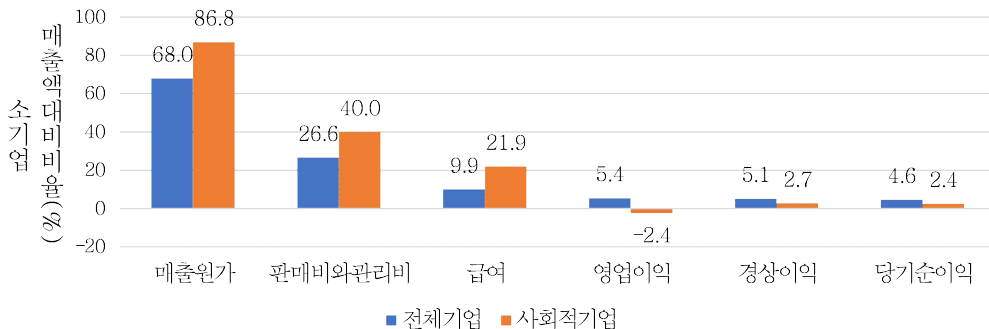
[그림 부3-2] 2022년 일반기업 중기업 및 사회적기업 중기업 비교



주1 : 중소기업실태조사(2022): 중기업 82,978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2): 사회적기업 156~212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다음으로 일반기업 내 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내 소기업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3]과 같다. 중기업의 비교 결과와 같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 경상이익, 당기순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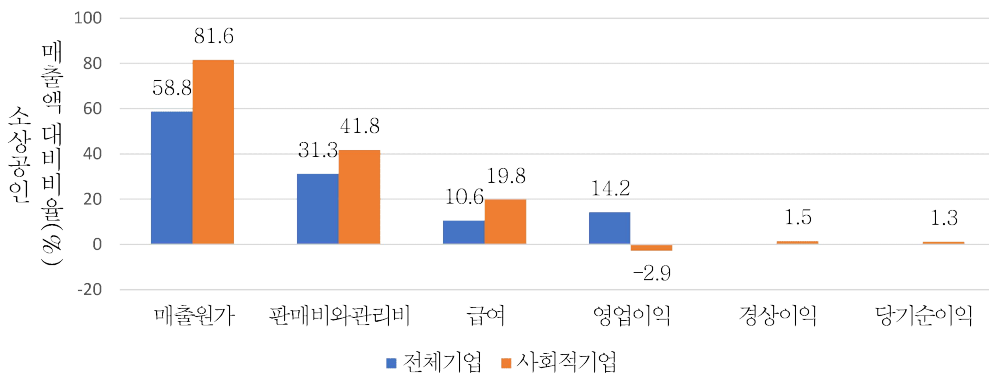
[그림 부3-3] 2022년 일반기업 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소기업 비교



주1 : 중소기업실태조사(2022): 소기업 665,820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2): 사회적기업 987~1374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끝으로 일반기업 내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내 소상공인의 매출액 대비 경제적 성과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 [그림 부3-4]와 같다. 앞선 비교 결과와 같이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급여는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업이익은 일반기업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의 특성상 자료 확보의 한계로 경상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한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비교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림 부3-4] 2022년 일반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비교



주1 : 소상공인실태조사(2022): 소상공인 3,664,605개, 사회적기업 성과분석(2022): 사회적기업 879~1174개
 주2 : 사회적기업의 해당금액이 없는 기업은 0으로 처리하였으며, 10개 업종 기업만 도출하여 비교분석함

기업규모별로 일반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한눈에 정리하면 <표 부3-6>과 같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사회적기업의 급여 평균값 및 매출액 대비 급여 비율이 일반기업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중기업에서는 평균 6억 4천만 원 (11.0%), 소기업에서는 평균 1억 7천만 원(12.0%), 소상공인에서는 평균 8천만 원 (9.2%)으로 사회적기업이 일반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업이익은 모든 기업규모에서 일반기업의 평균값과 비율이 사회적기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중기업에서는 평균 약 -5억 6천만 원(-4.0%), 소기업에서는 평균 약 -1억 3천만 원(-7.8%), 소상공인에서는 평균 약 -4천만 원(-17.1%)으로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과 달리 영업이익은 낮지만, 매출액 대비 급여 등 비율이 높은 것을 통해 사회적기업이 경제적 성과 부문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부3-6> 일반기업 및 사회적기업 간 기업규모별 재무제표 비교(2022)

(단위: 개소, 천원, %)

구분	일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기업	
	기업수	평균	비중	기업수	평균	비중	평균	비중
중 기 업	매출액	82,978	13,237,913		212	8,895,275	-4,342,638	
	판매비와관리비	82,978	2,760,970	20.9	212	3,356,160	595,190	16.9
	급여	82,978	1,031,496	7.8	212	1,671,945	640,449	11.0
	매출원가	82,978	9,824,185	74.2	156	7,410,763	-2,413,421	9.1
	영업이익	82,978	652,759	4.9	212	85,912	-566,847	-4.0
	경상이익	82,978	597,211	4.5	210	139,158	-458,052	-2.9
	당기순이익	82,978	471,420	3.6	212	122,554	-348,866	-2.2
소 기 업	매출액	665,820	1,767,649		1,374	1,578,198	-189,450	
	판매비와관리비	665,820	470,244	26.6	1,374	630,779	160,535	13.4
	급여	665,820	175,784	9.9	1,365	345,704	169,920	12.0
	매출원가	665,820	1,201,582	68.0	987	1,370,635	169,054	18.9
	영업이익	665,820	95,823	5.4	1,374	-37,164	-132,987	-7.8
	경상이익	665,820	90,088	5.1	1,369	42,495	-47,592	-2.4
	당기순이익	665,820	80,991	4.6	1,374	38,217	-42,774	-2.2
소 상 공 인	매출액	3,664,605	217,245		1,174	539,072	321,828	
	판매비와관리비	3,664,605	67,911	31.3	1,174	225,312	157,401	10.5
	급여	3,664,605	23,004	10.6	1,146	106,812	83,808	9.2
	매출원가	3,664,605	127,644	58.8	879	439,675	312,030	22.8
	영업이익	3,664,605	30,924	14.2	1,174	-15,374	-46,297	-17.1
	경상이익				1,174	8,175	-	1.5
	당기순이익				1,174	6,862	-	1.3

참고문헌

고용노동부((2023), 행정구역(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고용노동부(2023). “제4차 사회적 기본계획(‘23~’27) 발표”

관계부처 합동(2021). “문재인 정부 4년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윤지성·이재호·한송연·송민주·전혜원(2021), 2020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윤지성·송민주·이선웅(2022), 2021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김종인·정지영·한근진·조은지·김경미·박유진·곽동현(2023), 2022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2023a), “2022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중소벤처기업부(2023b), “2022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2), “2021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 “2022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3b),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

한국은행(2024a), 2023년 기업경영분석_책자형 통계편.

한국은행(2024b), 2023년 기업경영분석_업종별 작성대상 업체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2023년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발행인: 정승국
발행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8층
대표전화: 031-697-7700
팩 스: 031-697-7889
홈페이지: <http://www.socialenterprise.or.kr>
인쇄처: 새한기획(02-2264-1010)

ISSN: 2799-8061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할 수 없으며 책자의 내용 및 활용에 관한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 사회적기업 성과분석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